나 이전의 나



Eudgene Brenev

2026

연구서

나 이전의 나

죽음에서 새로운 탄생으로: 삶과 삶 사이의 생에 관한 증언 연구

임사체험, 출생 이전의 기억, 고인과의 만남에 관한 증언을 비교한다. 시간, 자기의식, 인격의 연속성 가능성을 탐구한다.

2026

목차

머리말 5

제I부 체험과 증언

제1장 자신의 죽음을 체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7
제2장 이야기는 어떻게 자료가 되는가 12
제3장 측정할 수 있는 경계 18

제II부 가정된 경로

제4장 몸으로부터의 분리 25
제5장 전이와 만남 32
제6장 생애 회고와 주변 세계 39
제7장 머무름과 휴식과 회복 47
제8장 귀환의 선택 54
제9장 출생 이전의 기억 61

제III부 시간과 인격의 연속성

제10장 두 시간 68
제11장 누가 계속 살아가는가 74
제12장 꿈속의 만남과 공유 체험 82

제IV부 가능한 설명

제13장 의식과 뇌와 설명의 한계 88
제14장 기억과 암시와 문화 94

제V부 지도와 의미

제15장 갈래가 있는 지도 101
제16장 왜 돌아오는가 107
제17장 세계관을 검증하는 법 112

결론 117
부록 1 개별 증언 기록표 119
부록 2 가정된 각 단계에 대한 질문 121
부록 3 주요 용어집 123
부록 4 논의한 보고의 찾아보기 125
부록 5 장면의 순서를 검증하는 방법 127
참고문헌 130

머리말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서술은 언제나 삶의 자리에서 독자에게 전해진다. 어떤 사람은 소생술 후에 깨어나 겪은 일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자라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고 여기는 것을 기록한다. 그가 말하는 사건과 지면의 글 사이에는 전달의 사슬이 있다. 기억, 언어, 대화 상대의 질문, 가까운 사람들의 기대, 출판자의 결정이 그 사슬에 참여한다. 이 사슬을 연구하면 증언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그 한계도 이해할 수 있다.

존재가 계속된다는 이야기는 연속성에 대한 약속으로 사람을 끈다. 생애가 끝난 듯한 곳에서 새로운 장면이 펼쳐진다. 다른 존재의 현존, 알아봄, 집과 비슷한 장소, 돌아감에 관한 대화가 등장한다. 이런 장면들을 출생 이전의 삶에 대한 기억과 연결하면 거의 완성된 경로가 나타난다. 그러나 그 경로가 일관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각 구간이 동일한 경험에 속했는지,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었는지, 구간 사이의 전환을 어떤 자료가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책은 발표된 증언을 비교하여 죽어 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출생에 이르기까지의 가정된 경로를 탐구한다. 체험하는 이의 상태, 그의 나의 보존, 주변 환경, 다른 등장인물, 시간이 중심에 놓인다. 휴식, 회복, 귀환의 선택, 그리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새로운 삶의 경로를 설명하며 제시하는 이유들을 각각의 장에서 다룬다.

이 책은 체험의 내용, 그것이 기록된 경위, 일어나는 일의 본성에 대한 결론을 구분한다. 누군가 죽은 친척을 만났다고 보고할 때 우선 확인되는 것은 그러한 보고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른 시기의 기록과 독립적인 확인이 있다면 추가적인 세부 사항도 검증할 수 있다. 만난 존재가 누구였는지는 따로 검토해야 한다. 이 수준들의 구분은 종교적 해석과 뇌 기능을 통한 설명에 똑같이 적용된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말은 이야기 자체와 검토하는 모형들에서 개인적 경험의 가정된 담지체를 가리킨다. 이 말을 쓴다고 해서 그러한 담지체의 구성, 성질, 독립적인 존재가 미리

확립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죽음 이후에 정확히 무엇이 지속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연구 주제 가운데 하나다.

문헌상의 토대는 임상 논문, 기억과 자기지각 연구, 어린 시절 기억에 대한 기술, 개인 증언 자료실, 사별 경험에 관한 연구다. 이 자료 집단들은 선정 방식과 검증 가능성에서 차이가 있다. 이 책은 구조화된 연구상의 비교를 제시한다. 전체 인구에서 체험이 얼마나 흔한지 계산하거나 발표된 문헌을 빠짐없이 다루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그림은 세 종류의 자료와 함께 제시된다. 발표된 기술을 재구성한 것, 저자가 설정한 사고 실험의 예시, 분석 도식이다. 각 그림의 성격은 설명에 밝혔다. 재구성에서 가정한 세부 사항은 따로 표시했으며, 도식에서는 기술된 관계와 연구상의 가정을 구분했다.

첫째 부에서는 무엇을 관찰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둘째 부에서는 가정된 경로의 단계들을 따라간다. 셋째 부에서는 단순한 직선으로 정리되지 않는 시간, 인격, 죽은 이들과의 만남을 검토한다. 넷째 부에서는 가능한 기제를 논의한다. 마지막 부에서는 갈림길이 있는 지도를 구성하고, 애초에 귀환이 왜 일어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독자는 삶의 지속을 미리 믿거나 미리 부정할 필요가 없다. 자료가 허용하는 만큼 질문을 열어 두면 된다. 검증을 통해 상당히 명확한 설명에 도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남을 수도 있다. 처음의 질문이 서로 다른 현상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단일한 답을 전제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날 수도 있다.

특이한 경험을 대하는 태도가 반드시 이야기하는 이의 모든 결론에 동의하는 것으로 귀결될 필요는 없다. 체험은 개인에게 엄청난 의미를 지니면서도 그 외적 상황은 확인되지 않은 채 남을 수 있다. 연구의 정확성은 한 책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할 수 있는 데서 시작된다.

제I부 체험과 증언

제1장 자신의 죽음을 체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경험과 사건

«나는 자신의 죽음을 겪었다»는 말은 서로 다른 두 주장을 연결한다. 하나는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일이 그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 연결을 풀어야 한다. 의학적 기술은 순환 정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증언에는 몸에서 최종적으로 벗어났다는 느낌이 담길 수 있다. 둘 사이에는 등호를 놓는 대신 관계를 찾아야 한다.

사람에게 직접 주어지는 것은 체험이다. 아픔을 느끼고, 빛을 보고, 얼굴을 알아보고, 목소리를 듣거나 보이는 모습 없이도 어떤 존재를 느낀다. 외부 원인에 관한 질문은 다른 분석 수준에 속한다. 이 구분은 지각과 그 해석이 반드시 시간상 앞뒤로 이어진다고 가정하지 않는다. 탁자에 컵이 있을 때 컵과 컵의 지각을 구분하는 일은 실용적 문제로 떠오르는 경우가 드물다. 특이한 체험은 이 차이를 고려하게 한다.

간단한 사고실험이 도움이 된다. 누군가 꿈에서 익숙한 방을 본다. 꿈에는 벽의 색, 문까지의 거리, 만남에 대한 기대가 있다. 방의 체험은 그 사람의 경험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존재한다. 하지만 그런 체험이 있다는 것만으로 해당 시점에 물리적인 방에 있었다고 확인되지는 않는다. 이 예는 임사체험을 꿈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체험의 존재와 그 외부 대상에 대한 추론 사이의 논리적 차이를 보여 준다.

반대의 가정 아래에서도 같은 차이가 유지된다. 체험이 실제로 외부 현실과 연결되어 있더라도 주관적 확신의 강도만으로 그 연결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는 없다. 연구에는 정확한 정보,

독립 관찰, 통상적인 정보 획득 경로의 제한이라는 추가 징표가 필요하다. 질문은 안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느껴졌는가에만 있지 않다.

퀄리아라는 말의 의미

여기서 «퀄리아»는 체험이 그것을 겪는 이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뜻한다. 빛의 파장을 알면서도 그 색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라는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다. 두려움의 신체적 징후를 기술하면서 두려움 자체는 어떻게 체험되는지 따로 물을 수 있다. 이런 구분이 의식의 기원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논의 대상을 정하도록 돕는다.

특이한 상태를 연구할 때에는 장면의 내용에 집중하다가 그것을 체험한 방식을 놓치기 쉽다. 여러 이야기가 빛을 언급하더라도 한 이야기에서는 외부 대상으로, 다른 이야기에서는 공간 전체를 채우는 광채로,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뚜렷한 시각적 형태가 없는 앎으로 나타날 수 있다. «빛»이라는 말만 적으면 차이가 사라진다.

따라서 체험의 기술에는 형태에 관한 질문이 필요하다. 시선의 방향이 있었는가? 대상까지의 거리가 있었는가? 주의를 옮길 수 있었는가? 소리가 말과 비슷했는가, 아니면 뜻이 곧바로 생겼는가? 몸을 느꼈는가? 이런 질문은 물리적 해석을 강요하지 않고 겪은 일을 구체화한다. 익숙한 말을 유추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표현도 구체화해야 한다. 충만한 느낌, 구체적인 생각의 출현, 관계의 이해, 특정 질문에 답할 능력을 뜻할 수 있다. 돌아온 뒤 이전에 모든 것을 알았다는 확신만 남았다면 연구자에게 있는 것은 그 확신에 관한 정보다. 얻은 지식의 범위는 검증 가능한 내용이 남은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

나라는 말의 여러 의미

«나»라는 개념을 나눌 수 없는 단일 지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름과 생애를 기억하면서도 자신의 위치는 다르게 느낄 수

있다.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관찰자로 지각할 수 있다. 개념적으로 분석하면 존재감, 신체 소유감, 행위 주체감, 자신에 대한 기억, 자신의 상태를 성찰하는 능력을 구분할 수 있다.

«나는 계속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말은 우선 성찰에 관한 것이다. 체험하는 이는 자신의 체험을 알아차리고 그에 관해 추론한다. 하지만 이런 말이 없다고 해서 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상에서 집중하여 행동할 때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문장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이야기에서도 성찰적 언급이 없다는 것과 자기의식을 잃었다고 직접 보고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자전적 기억의 보존은 다른 질문을 제기한다. 화자가 사건 전과 같은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고 하자. 무엇이 그 확신을 뒷받침했는지 알아야 한다. 가족을 기억했는가? 자기 몸을 알아보았는가? 기억 없이 연속성을 느꼈는가? 깨어난 뒤에야 추론했는가? 모두 «그것은 나였다»는 같은 말로 표현될 수 있지만 개인의 동일성에 관한 서로 다른 근거를 기술한다.

이후 «인격»은 한 사람의 비교적 안정된 생애적이고 심리적인 조직을, «체험의 주체»는 가정된 체험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할 것이다. 이는 논의를 위한 구분이다. 다른 주체가 생겼는지 즉시 결정하지 않고도 기억이나 성격이 바뀔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게 한다. 전생의 기억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이 질문이 특히 날카롭게 제기된다.

기억의 공백과 경험의 부재

반응을 잃기 전 마지막 기억과 회복 뒤 첫 기억 사이에는 공백이 남을 수 있다. 그 자체로는 접근할 수 있는 기억이 없음을 알려준다. 어떤 체험도 없었다고 추론하려면 다른 근거가 필요하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깨어난 뒤 기억이 있다고 해서 어느 초에 생겼는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실험에서 누군가는 처치가 시작된 것을 기억하다가 자신이 다른 방에 있음을 알아차린다. 그에게는 중간 구간이 사라진 듯하다. 시계로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을 수 있다. 하지만 중간 구간의 주관적 부재가 개별 의식에서 시간이 «빨라졌다»는

증거는 아니다. 단지 접근 가능한 사건 기록이 없을 수도 있다. 이 예는 측정한 지속시간과 기억의 구조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관찰되는 몸의 상태, 체험한 내용, 접근 가능한 기억, 화자의 설명을 일관되게 구분할 것이다. 네 기술은 같은 사람에 관한 것이지만 시간적 경계가 반드시 같지는 않다. 이들을 비교하는 일이 연구의 첫 단계다.



그림 1. 한 사례의 네 수준.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의 순서로 유기체의 상태, 체험, 기억, 설명을 나타냈다. 저자가 구성한 이 그림은 한 사례의 측면들을 구분하며, 그것들이 생겨나는 순서를 정하지 않는다.

이 질문이 여전히 의미 있는 이유

신중한 구분이 중심 관심을 없애지는 않는다. 죽음 뒤에도 개인의 체험이 이어질 가능성은 보통 자기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에 맞닿아 있다. 몸, 기억, 성격, 존재감을 따로 검토할 수 있다면 정확히 어떤 성질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는지 더 분명해진다.

생각 속에서 비교하기 위해 지속의 세 가능성을 구분할 수 있다. 하나에서는 생애가 보존되고, 다른 하나에서는 최소한의 존재감만 남는다. 세 번째는 체험자를 보존하지 않고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을 허용한다. 이를 모두 «불멸»이라는 한 말로 묶을 수는 없다. 구체적인 한 사람에게서 무엇이 남는가라는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기 때문이다.

다음 장들은 이용 가능한 증언에서 출발한다. 가정한 전체 순환을 논의하기 전에 개별 이야기에 어떤 무게가 있으며, 여러 이야기를 한 시스템의 기술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이해해야 한다.

제2장 이야기는 어떻게 자료가 되는가

최초 기록

이야기는 세부사항의 출처를 복원할 수 있을 때 연구의 형태를 갖춘다. 특이한 체험을 처음 보고한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말을 사용했는가? 그 시점에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다음에는 누구에게 말했는가? 이런 순서가 없으면 상세한 출판물에도 가장 중요한 사정이 알려지지 않은 채 남을 수 있다.

이른 기록은 이후 달라질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므로 유용하다. 이전 삶의 가족으로 여겨지는 사람들과 만나기 전에 보고를 기록했다면, 이미 고정한 세부사항의 출처에서 일부 후속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그렇다고 더 이른 정보 경로를 배제하거나 기록의 정확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다만 검증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가 생긴다.

늦게 한 이야기도 가치 있는 정보를 담을 수 있다. 한계는 연구자가 참가자들의 기억으로 앞선 정보 경로를 복원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이다. 정확하려는 마음이 문서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증언의 질은 진실성 하나가 아니라 진실성, 기록 조건, 이용 가능한 검증의 결합으로 정해진다.

이 책에서는 가정된 사건의 날짜와 처음 문서화한 날짜를 구분할 것이다. 아동의 사례에서는 발언이 시작된 때, 첫 상세 면담, 가족들 사이의 첫 접촉도 구분하면 유용하다. 임상 사례에서는 회복 뒤 첫 대화와 화자가 주변 사람들의 설명을 접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꿈에서는 기록한 시점과 그에 관련된 소식을 얻은 시점이 중요하다.

관찰 단위

집계는 단위를 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한 사람이 여러 체험을 보고할 수 있다. 한 사례가 논문, 책, 면담, 다큐멘터리에 나올 수 있다. 여러 연구자가 같은 표본을 다시 분석할 수도 있다. 출판물마다 새 확인 증거로 센다면 새 관찰이 없어도 증언 수가 늘어난다.

독립성에도 여러 의미가 있다.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이 같은 유도 질문에 답할 수 있다. 두 목격자가 가까이 있으면서 첫 면담 전에 사건을 의논할 수 있다. 두 저자가 하나의 이른 이야기를 공통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모두 일치는 존재하지만 그 출처가 다르다.

이야기 스무 개로 이루어진 가상 기록보관소를 생각해 보자. 나중에 글 여덟 개는 한 사례를 다시 전한 것이고, 다른 네 개는 공동 논의 뒤 같은 가족 구성원들에게서 얻었음이 드러난다. 글의 산술적 개수는 그대로다. 하지만 이를 독립 관찰 수로 사용할 수는 없게 된다. 이 예는 참고문헌 목록과 사례 자료에 서로 다른 대장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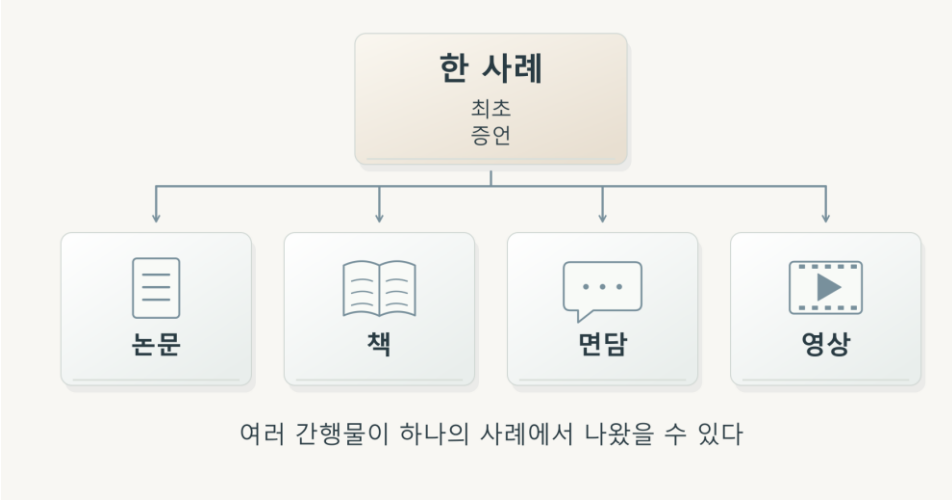


그림 2. 한 사례와 여러 발표물. 개략도는 논문, 책, 면담, 영화가 어떻게 하나의 증언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지 보여 준다. 발표물의 수와 독립적인 사례의 수는 다르다.

집단의 백분율도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참가자 일부만 질문에 답했다면 응답자 중의 해당 응답 비율은 초대받은 사람 전체에서의 비율과 같지 않다. 이 책에서는 생존자 집단인지, 면담에 동의한 집단인지, 기록을 이용할 수 있는 집단인지, 설문지의 특정 기준을 넘은 집단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기술의 유사성과 기능의 유사성

이야기는 여러 수준에서 비교할 수 있다. 첫 수준에서는 화면, 다리, 방, 사람, 빛 같은 구체적인 모습을 보존한다. 둘째에서는 살펴보기, 건너가기, 기다리기, 동행하기라는 행위를 구분한다. 셋째에서는 정보 획득, 상태 변화, 회복, 결정 준비라는 가정된 기능이 나타난다.

이 분류는 수준 사이의 전환이 드러나는 동안 유용하다. 화면과 목소리가 모두 전달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같은 장치의 두 모습이라는 결론이 따르지는 않는다. 물질, 공간, 상호작용 방식, 메시지를 만든 주체의 차이가 중요할 수 있다.

비교 범위가 너무 좁으면 의미의 유사성을 놓칠 수 있다. 너무 넓으면 거의 어디서나 유사성을 찾는다. «사람이 변화를 겪는다»는 범주는 꿈, 여행, 학습, 질병을 쉽게 묶는다. 따라서 범주에 넣는 규칙은 사례의 포함과 제외를 모두 설명해야 한다. 이후 이런 규칙을 분석 부호라고 부른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료의 분류 표시를 뜻한다.

이 책의 작업 지도는 기술과 해석을 나란히 보존한다. 화자가 방에서 기다렸다고 말하면 그것은 기술로 남는다. 이를 준비 단계로 분류하는 것은 재검토할 수 있는 연구자의 결정이다. 기다림의 목적에 관한 정보가 없으면 그런 목적을 원래 이야기에 슬며시 넣어서는 안 된다.

출처가 말하지 않는 것

언급하지 않은 사건에는 여러 설명이 가능하다. 일어나지 않았거나, 잊었거나, 화자에게 중요하지 않았거나, 줄인 출판물에 들어가지 않았을 수 있다. 그 질문을 아예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더 명확한 추론의 근거가 없는 동안 카드의 빈칸은 미상을 뜻해야 한다.

직접적인 부정은 지위가 다르다. 사람이 자발적으로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강조하면, 연구자는 그 기억에 만남이 없다는 명시적 정보를 얻는다. 그래도 기억의 완전성에 관한 질문은 남는다. 정밀한 기록은 부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보여 준다.

대조를 위해서는 각 항목에 적어도 네 가지 상태가 필요하다. 요소가 기술됨, 요소가 명시적으로 부정됨, 질문하지 않았거나 보고되지 않음, 기술이 모호함이다. 이들을 손실 없이 있음과 없음이라는 두 값으로 줄일 수는 없다. 모든 빈칸이 눈에 띄지 않게 부정으로 바뀐 표를 바탕으로 보편적인 순서를 구성하는 것은 특히 위험하다.

기록에서 모르는 것을 그대로 남기는 법

저자의 사고실험을 살펴보자. 첫 이야기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적혀 있다. 둘째에는 «밝은 공간에 있게 되었다»고 적힌 뒤 기록이 끝난다. 두 글 모두 만남을 기술하지 않지만 정보는 다르다. 첫 경우에는 시각적으로 지각한 만남의 직접적 부정을 표시한다. 보이는 모습 없는 존재감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둘째 경우에는 불확실성을 유지한다. 뒷이야기가 없다는 사실은 누가 곁에 있었는지 알려 주지 않는다.

이후 면담자가 둘째 사람에게 안내자를 물어 긍정하는 답을 얻었다면 두 기록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이야기에서는 그 요소를 보고하지 않았고, 질문 뒤에는 기술했다는 기록이다. 이는 응답의 진실성에 대한 판결이 아니다. 대화 방식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의 구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할 수 있게 한다. 사례를 비교할 때 처음의 침묵을 자발적인 만남 언급으로 슬쩍 바꾸어서는 안 된다.

부정 사례의 유용성은 생생한 이야기에 수사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데 있지 않다. 모형의 경계를 구체화한다. 특정 단계가 필수라고 한다면 그 단계가 없었다는 신뢰할 만한 기술을 설명해야 한다. 가능한 단계라고 한다면 부재는 반박이 아니다. 주장의 의미를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바꾼다

면담은 체험을 복원하도록 돕지만 동시에 답의 형식을 정한다. «그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는 «누가 쉬는 곳으로 안내했나요?»보다 가능한 뒷이야기를 더 많이 허용한다. 둘째 질문에서는 이미 안내자, 방향, 특정 기능을 갖춘 장소를 제시했다.

내용에 관한 질문의 답이 언제나 거짓이라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그 요소가 어디서 왔는가에 있다. 단서가 주어진 뒤에야 나타난다면, 그 반복을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바로 그 단계를 구분한다는 완전히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좋은 연구 기록철에는 추가 질문 전의 자유로운 이야기를 보존한다. 이어 질문과 응답 자체를 기록한다. 이 순서는 어떤 세부사항이 자발적으로 나왔고 어떤 것은 구체화되었으며 어떤 것은 절차에 의해 들어갔을 수 있는지 나중에 평가하도록 돕는다.

완결된 여정에는 특히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 도착, 만남, 설명, 준비, 귀환이라는 순서가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순서는 체험, 면담, 편집 중 어느 것에서 생겼을 수 있다. 검증하려면 이른 기록, 질문 기록, 출판된 글을 비교해야 한다.

확인 정도를 읽는 법

증언의 한 부분은 충분히 뒷받침되면서 다른 부분은 미해결로 남을 수 있다. 의료 기록은 순환 정지를 확인하더라도 체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 다른 목격자는 죽음의 소식 전에 이야기가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체험 자체의 정확한 시각은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 생애의 세부사항이 일치한다면 설명이 필요할 수 있으나, 그것으로 두 인격의 동일성이 확립되지는 않는다.

사례 전체에 꼬리표 하나를 붙이기보다 개별 주장을 평가하는 편이 편리하다. 예를 들어 사건 시각, 이른 기록, 세부사항의 정확성, 가능한 정보 경로, 목격자들의 독립성을 따로 검증한다. 그러면 강점이 약점을 숨기지 않고 약점이 나머지 모두를 자동으로 무효화하지도 않는다.

설명을 구별하려면 각 설명에서 어떤 결과를 예상하는지 물어야 한다. 어떤 응답이든 가설에 똑같이 들어맞는다면 가능한 설명들 사이에서 선택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틀릴 수 있는 구체적 가능성을 허용할 때 주장은 더 실질적인 내용을 갖는다.

이후 장들에서는 바로 이런 읽기 방식을 사용한다. 먼저 무엇이 보고되었는지 확인한다. 이어 무엇을 어떤 한계 아래 검증했는지 확인한다. 그 뒤 가능한 설명을 논의한다. 이 순서를 따르면 특이한 이야기를 성급하게 입증된 세계관으로 바꾸지 않으면서 연구할 수 있다.

제3장 측정할 수 있는 경계

한 단어의 대가

의료 기록으로는 이야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관찰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다. 구체적 상태, 그 상태를 확인한 방법, 시간적 경계가 중요하다. 이에 따라 어느 질문에 답하는지가 달라진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의식이 있었다는 증언과 생명이 최종적으로 끝난 뒤에도 존재했다는 증언에는 서로 다른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의학적 기술은 구체적인 상태에서 출발한다. Greer와 공동저자들의 2023년 지침에서는 신경학적 기준에 따른 죽음을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이 확인된 상태와 연결한다. 진단에는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 혼수, 맥박 부재, 기기의 단일 지표만으로 도출할 수는 없다. 순환 정지 뒤 소생에 성공한 사람을 그 사실만으로 확인된 뇌사 뒤에 돌아온 사례라고 볼 수는 없다. [1]

이 구분이 겪은 일의 심각성을 줄이지는 않는다. 그 사람은 극도의 위험에 처했고 삶을 바꾸는 사건을 겪었을 수 있다. 다음 추론 단계에 정확성이 필요하다. 의식이 작동할 조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체험이 생겼다고 연구자가 주장한다면, 바로 그 환자에서 어떤 조건을 측정했는지 보여야 한다. 목격자가 말했다고 해도 «죽음»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자료를 대신하지는 않는다.

여기서는 명칭과 측정의 경계를 유지하면 유용하다. 명칭은 많은 세부사항을 짧은 표현으로 묶고, 측정은 그 세부사항으로 돌아간다. 자발 순환이 없던 시간,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던 시간, 접근 가능한 기억이 없는 시간은 서로 다른 구간일 수 있다. 이를 합치면 하나의 빈 구간이라는 단순한 그림이 생긴다. 그 안에 여정 전체를 넣기 전에 바로 그 단순함을 검증해야 한다.

소생술의 시간선

임상 경과에는 시작점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응답을 한 때, 사람을 발견한 때, 순환이 정지했다고 추정하는 때, 도움을 요청한 때, 소생술을 시작한 때부터 각각 시간을 셀 수 있다. 서로 다른 과제에 유용한 지점들이며 서로 바꿔 쓸 수는 없다. 나중에 어느 하나를 단순히 죽음의 순간이라고 부르면 성실하게 다시 전한 이야기에서도 사건의 경계가 옮겨 갈 수 있다.

병원 밖 심정지에 관한 국제 Utstein 양식의 2024년 개정판은 사건의 시각과 도움을 제공한 시각을 구별하며, 계산하는 시간 구간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밝히도록 요구한다. 시간을 모르는 경우에도 그 상태를 그대로 남겨야 한다. 이런 엄밀함은 체험담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 지속 시간은 정확히 무엇이 지속되었는지 정의할 때에만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2]

출판된 환자 사례와 무관한 가상 예를 생각해 보자. 반응이 없는 사람을 발견하고, 얼마 뒤 지원을 시작하며, 이어 순환이 회복되고, 첫 대화는 나중에야 가능해진다. 그 사람은 기억 속에서 목소리를 듣고 이후 특이한 공간을 본다. 흠잡을 데 없는 치료 기록도 목소리와 공간이 외부 시간선의 어느 구간에 놓이는지까지 알려 주지는 않는다. 먼저 이야기의 요소 하나라도 독립적인 시점 표지가 있는 사건과 연결해야 한다.

그 연결은 더 강하거나 약할 수 있다. 여러 번 말한 알아들을 수 있는 문구는 미리 등록한 단 한 번의 메시지보다 시간 구간을 좁히는 힘이 약하다. 신호음에 관한 기억은 신호가 실제로 울린 시점들을 알 때 더 유용해진다. 하지만 세부사항 하나가 일치한다고 화자가 그 앞뒤에 놓는 모든 사건의 시각까지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이야기 안의 순서와 외부 연대기는 여전히 연결해야 한다.

따라서 장면마다 외부 시점을 아는지, 몇 가지 가능한 구간으로만 한정할 수 있는지, 전혀 확인되지 않았는지 따로 답해야 한다. 불확실성은 빈칸을 그대로 두어 문자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 전체 이야기를 가장 극적인 순간에 배치하면 더 완결된 그림이 되지만, 아무도 관찰하지 않은 정보를 더하게 된다.



그림 3. 네 가지 시간선. 의료상의 사건, 당사자의 반응, 보고한 장면, 기록의 이력에는 각각 별도의 시간적 대응이 필요하다. 도식은 개략적이며 수치상의 지속 시간은 지정하지 않았다.

전향적 연구가 알려 주는 것

전향적 연구는 관심 있는 이야기를 얻기 전에 설계한다. 참가자, 질문, 검증 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다. 이후의 결과가 표본에 누구를 넣을지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점이다. 하지만 «전향적»이라는 말 자체가 모든 이야기를 즉시 기록했고 모든 생리 지표를 보존했으며 모든 참가자가 예정된 검사를 거쳤음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첫 AWARE 프로젝트에서는 심정지 사건 2060건을 등록했다. 초기 면담을 거친 생존자는 140명, 다음 단계를 거친 사람은 101명이었다. 분모가 서로 다르다. 의료 사건 수를 체험을 상세히 이야기한 사람 수로 사용할 수는 없다. 논문은 소생술 중의 사건들과 정보를 대조할 수 있었던 사례 하나도 기술한다. 그 검증의 내용은 몸 밖에서의 지각을 논의할 때 다시 살펴볼 것이다. [3]

AWARE II에서는 병원 내 심정지 567건 중 53명이 생존했고, 28명이 면담을 마쳤으며, 11명이 저자들이 의식의 가능성과 연결한 기억이나 지각을 보고했다. 기술들을 여러 범주로 나누었고, 죽음의 초월적 체험에 관한 보고 여섯 건도 포함되었다. 범주는 일부 겹쳤다. 각 수치가 서로 다른 한 사람을 뜻하는 것처럼 더해서는 안 된다. 숨겨진 이미지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논문은 면담한 28명 가운데 청각 자극을 알아본 한 사례도 보고한다. 그런 응답 자체가 정보를 몸 밖에서 얻었다는 방식을 확립하지는 않는다. [4]



그림 4. AWARE II의 참여자 집단. 최초 사례, 생존자, 면담에 참여한 사람, 기억을 보고한 사람은 서로 다른 집단을 이룬다. 연구에서 체험의 범주들은 일부 중첩되었다. [4]

표본이 줄어들 때마다 이용 가능한 정보도 달라진다. 사망했다면 면담은 불가능하다. 생존했지만 참여할 수 없다면 주관적 체험은 미상으로 남는다. 대화에 동의했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면 연구자는 특정한 설문 결과를 얻는다. 따라서 면담자 가운데 이야기를 한 사람의 비율은 바로 이 접근 가능한 집단의 특성이다. 그 수치를 죽어가던 모든 사람에게 확장하려면 추가 가정이 생기며 이를 밝혀야 한다.

이는 단계 지도에서 특히 중요하다. 하나의 감각으로 된 단편보다 긴 이야기를 단계별로 나누기가 쉽다. 그러나 상세한 이야기를 선호하면 선정 과정에서부터 전환이 더 규칙적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짧은 보고, 빛이나 만남이나 생애

회고가 없는 이야기도 연구에 유용하다. 그런 자료는 가정한 순서가 어디서 끝나고, 방향을 바꾸거나, 아예 시작되지 않는지 보여 준다.

경험과 기억에 대한 접근

사건 당시의 상태와 이후 이를 이야기할 능력은 두 연구 질문이다. 면담에서 긍정하는 답은 대화 시점에 이야기가 있음을 입증한다. 그 내용이 언제 생겼는지 정하려면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부정하는 답은 이용 가능한 이야기를 얻지 못했음을 알려 준다. 두 결과 사이에는 기억의 작동에 관한 가정 하나로 채울 수 없는 여지가 남는다.

Sanders와 동료들의 연구에서는 전신마취 중 260명의 환자 중 12명이 특별히 격리한 손을 움직여 지시에 따랐다. 그러나 수술 후 이루어진 253건의 면담 어느 것에서도 수술 중 사건에 대한 명시적 기억은 확인되지 않았다. 초록만으로는 시술 중 반응한 각 환자를 이후 면담과 확실히 연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사건 당시의 행동 반응과 나중에 나온 기억 보고를 분명하게 구분한다. [5]

Mauduit와 공동저자들의 대동맥 수술 뒤 연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환자 101명 가운데 반응이 없던 기간의 기억을 보고한 사람은 없었다. 67명의 수술에는 저체온 순환 정지가 포함되었다. 이는 구체적인 수술 조건과 이후 설문에 관한 자료다. 기억이 없다는 것을 주관적 지속시간이 영으로 측정되었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는 없다. [6]

영 결과가 제약하는 것

아무런 양성 보고가 없다는 결과는 더 정확한 질문을 가능하게 한다. 이 조건에서 해당 절차는 접근 가능한 기억을 얼마나 자주 찾아낼 수 있을까? 101명 규모의 집단을 이용하는 별도의 수학적 예시를 보자. 관찰이 독립적이고 양성 보고 확률이 같다고 가정하면, 그러한 보고가 없을 때 신뢰 수준 95퍼센트에서 단측 정확 이항 상한은 약 2,9퍼센트다. 계산식은

p_{max} = 1 − 0,05^(1/101)이다. 이는 이 책에서 추가한 계산이며, 연구 저자들이 제시한 통계적 추정치가 아니다. [6]

그 경계값은 정해진 절차로 보고를 얻을 확률에 관한 것이다. 이 확률은 체험의 발생, 접근 가능한 기억의 보존, 설문에서 이를 보고할 능력에 달려 있다. 이 연결고리들을 따로 평가하지 않고 2,9퍼센트를 모든 체험의 발생 빈도에 대한 한계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 구분은 다음 실험을 제안한다. 의료 조건의 비교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이후의 기억 접근의 질과 주관적 내용의 기록을 함께 연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격의 지속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귀결이 있다. 이야기의 공백은 공백에 대한 이야기와 같지 않다. 첫 경우에는 사람이 아무것도 보고할 수 없다. 둘째에서는 대상의 부재, 어둠, 존재하지 않는 느낌을 겪었다고 기술한다. 둘째에는 이미 특정한 현상학, 즉 그 상태가 어떻게 체험되었는지에 관한 특성이 있다. 이를 하나로 묶으면 결측 자료와 체험의 독특한 내용 사이의 차이가 사라진다.

장기 입원도 똑같이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Rousseau와 공동저자들의 전향적 연구에서는 중환자실에 오래 머문 뒤 생존한 126명 중 19명이 채택된 임사체험 기준에 도달했다. 저자들은 치료의 어느 시점에 체험이 생겼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병동에 머문 시간이 기술된 장면들의 지속시간을 정하지는 않는다. [7]

여전히 측정할 수 있는 것

의미 있는 임상 연구가 되기 위해 사후 존재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조건에서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얻는지, 그 안에 어떤 특징이 함께 나타나는지, 어떤 외부 사건을 기억과 대조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기록, 응답, 믿을 만한 시점 표지가 없는 구간이라는 연구 자체의 한계를 발견할 수도 있다.

후속 분석을 위해서는 여러 평행선을 보존하는 편이 편리하다. 첫 선에는 의료 사건을, 둘째에는 관찰되는 사람의 반응을, 셋째에는 그가 말하는 사건의 순서를 놓는다. 넷째에는 면담 자체와 이후 이야기의 변화를 놓는다. 선들 사이의 일치는

검증의 결과가 되어야 한다. 알려지지 않은 모든 것을 편리한 한 구간에 넣어 미리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이런 읽기 방식은 예상 밖의 것을 위한 여지를 남긴다. 세부사항이 실제로 이른 이야기에 고정되어 있고 사건과 독립적으로 일치한다면 완성된 설명이 없더라도 연구해야 한다. 하지만 없는 자료도 없는 채로 남겨야 한다. 연구의 정직함은 두 경우 모두에 나타난다. 불편한 관찰을 보존하는 일과 편리한 보충을 거부하는 일에는 같은 엄정함이 필요하다.

가정한 여정은 여기서 관찰 가능한 경계에서 출발한다. 몸, 의료적 상황, 이후의 증언이 있다. 그다음 이야기는 관찰자를 천장 아래, 빛, 낯선 공간으로 옮겨 놓을 수 있다. 이야기를 따라가려면 먼저 이동한다는 느낌 자체가 무엇이며, 당사자의 말에 따르면 정확히 어떤 대상이 위치를 바꾸었는지 이해해야 한다.

제II부 가정된 경로

제4장 몸으로부터의 분리

관찰자는 어디에 있는가

몸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은 관찰의 조건 자체에 관한 것이어서 특히 설득력 있게 여겨진다. 당사자는 눈앞의 대상 하나가 아니라 보는 이의 위치가 달라졌다고 보고한다. 몸은 아래나 옆, 멀리 떨어진 곳에 놓여 주변 장면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존재의 지점은 일어나는 일을 지각하는 곳에 남는다. 여기까지의 표현은 보고의 의미를 기술한 것이다. 의식이 물리적으로 이동했는가는 아직 별도로 물어야 한다.

정확히 읽으려면 몇 가지를 구분하면 된다. 자기 몸의 모습을 보는 것과 몸 밖에 있다고 느끼는 것은 다른 특성이다. 여기에 움직임, 가벼움, 무게의 부재, 새로운 신체 형태라는 인상이 더해질 수 있다. 소유감에 관한 별도 질문도 있다. 보이는 몸을 자기 것으로 지각하는가, 낯선 것으로 느끼는가? 이 가운데 한 특성만 담긴 이야기에 알려진 줄거리에 맞추려고 나머지를 보충해서는 안 된다.



그림 5. 몸과 체험되는 관찰 지점. 같은 가상의 방을 누워 있는 사람의 위치와 위쪽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나타냈다. 저자의 그림은 보이는 몸과 장면을 지각하는 위치를 구분한다.

사고실험을 해 볼 수 있다. 누군가 바깥에서 찍은 자기 사진을 떠올리며 자신이 이미지를 본다는 것을 잘 안다. 그렇다고 체험되는 자신의 위치가 촬영 지점으로 옮겨 갔다는 결론은 따르지 않는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분신을 전혀 기술하지 않으면서 공간에서 자신이 이동했다고 보고할 수 있다. «이탈»이라는 말은 연구가 구분하기도 전에 이 가능성들을 하나로 묶는다.

관점의 변화가 자기의식의 소멸을 뜻하지도 않는다. 이야기 안에서는 자기를 알아봄, 관심, 놀람, 결정 능력이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이해했다»는 보고만으로 그 성질들이 모두 드러나지는 않는다. 당시 정확히 무엇을 이해했고 나중에 무엇을 추론했는지 물으면 유용하다. 그 체험의 의미가 화자에게는 아주 분명하더라도 이해가 이루어진 순서는 미상일 수 있다.

바꿀 수 있는 관점

2002년에 Blanke와 공동저자들은 우측 각회의 자극으로 자신의 다리와 몸통 아랫부분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 반복해서 생긴 여성 뇌전증 환자를 보고했다. 가벼워지는 느낌과 침대 위쪽에 있다는 인상도 나타났다. 주의와 팔다리의 위치를 바꾸면 신체 착각도 달라졌다. 이 사건들은 환자의 통상적인 발작이 아니었으며, 자극 부위는 확인된 뇌전증 병소와 달랐다. [8]

Ehrsson의 2007년 연구에서 건강한 자원자들은 자기 뒤에 놓인 카메라의 위치에서 자기 등을 디스플레이로 보았다. 서로 맞는 시각적 사건과 접촉은 이 새 위치에 있다는 느낌을 강화했다. 지각된 몸에 위협을 가하면 생리적 반응 지표인 피부전도도가 달라졌다. 불일치 조건과의 비교로 감각 신호의 조직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수 있었다. 주변 정보는 카메라와 눈을 통해 들어왔다.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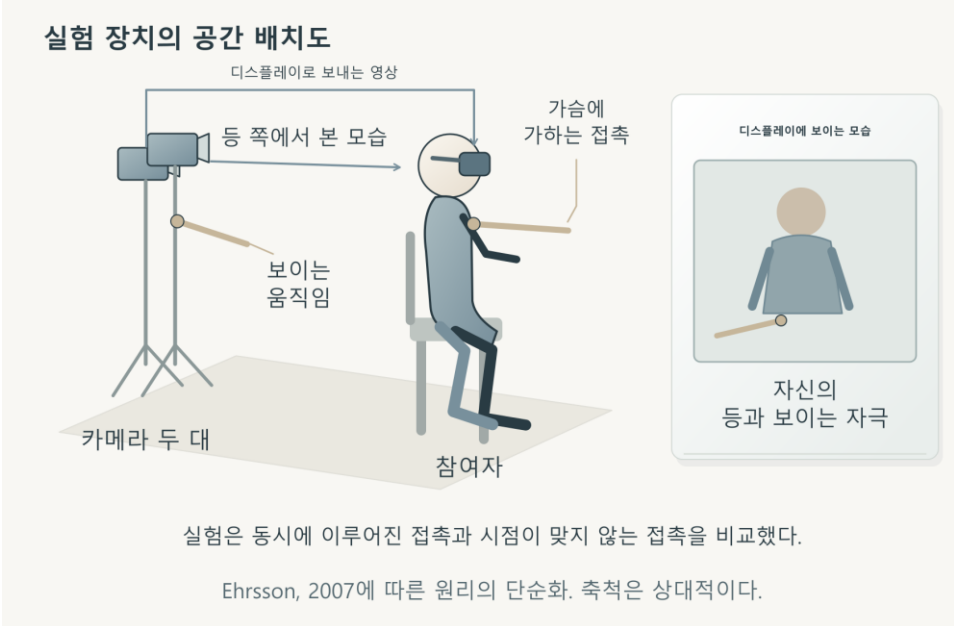


그림 6. 관점의 실험적 변화. Ehrsson 연구를 단순화한 도식으로, 카메라 영상과 시각적 사건을 촉각 자극에 맞추는 방식을 보여 준다. 주변 환경에 관한 정보는 일반적인 시각 채널로 들어온다. [9]

이런 결과는 논쟁의 대상을 정하는 데 중요하다. 체험되는 자신의 위치는 실험으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관찰자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확신 자체가 물리적 위치의 독립 측정은 아니다. 이는 검증 방식에 관한 일반적 결론이다. 공간적 체험과 정보의 외부 출처는 서로 다른 수단으로 연구해야 한다.

여기서 모든 이야기의 완성된 설명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실험은 선택한 조건을 재현하고 특정 특징을 측정한다. 다른 이야기에는 그 실험에 없던 추가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근거 있는 비교는 일치하는 특성들의 목록에서 시작해 차이로 나아간다. 기술의 한 항목만 같았다면 «실험실에서 같은 것을 유발했다»는 말은 이 검토 과정을 너무 빨리 지워 버린다.

인과적 개입은 일상적 체험에서 보통 결합된 성질들을 분리하도록 도울 때 특히 가치가 있다. 자전적 기억을 보존해도 관점이 달라지는지, 신체 소유감이 움직임에 의존하는지, 몸에 대한 위협이 체험되는 자신의 위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구할 수 있다. 그러면 의식에 관한 질문이 더 정확해진다. 나눌 수 없는 하나의 «나» 대신 보고에서 구분하고 조건과 대조할 수 있는 특성들을 다룬다.

타자가 나타날 때

익숙한 신체 위치에서의 이탈은 때때로 타인의 존재감과 함께 논의된다. 두 주제는 행위의 출처에 관한 질문으로 연결된다. 접촉이나 움직임을 느낀 사람이 이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거나 다른 누군가에게서 온 것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만남의 지도에는 이 점이 중요하다. 누가 곁에 있다는 느낌이 구별 가능한 모습이나 그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보다 먼저 생길 수 있다.

Blanke와 공동저자들은 2014년 연구에서 신경계 환자 관찰과 건강한 참가자 대상 실험을 결합했다. 로봇 장치에서 손의 움직임과 등에 가해지는 접촉의 불일치는 누군가 곁에 있다는 느낌을 강화했다. 저자들이 연구한 것은 바로 이런 존재감과 관련 신체 인상이었다. 실험은 죽은 사람의 신원을 확립하거나 안내자의 메시지를 검증하거나 사후세계 전체를 재현하지 않았다. [10]

이 결과는 이야기를 분석할 질문의 순서를 제안한다. 먼저 가까이 있다는 느낌, 윤곽, 목소리, 얼굴, 자신을 향한 행위 중 무엇이 직접 주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어 어떻게 누구인지 알아보았는지 묻는다. 외모, 메시지 내용, 구별 가능한 특징 없는 직접적 확신에서 알아봄이 생겼을 수 있다. 이 가능성들은 서로 바꿔 쓸 수 없다. 나중에는 친척을 만났다는 같은 말로 표현될 수 있더라도 그렇다.

마지막 수준은 정보다. 존재감에 대해 알려진 가능한 메커니즘이 있더라도, 몰랐던 정보를 얻었다는 주장에는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반대로 개별 정보가 정확하다고 그 정보를 준 것으로 여겨지는 존재의 모든 성질이 자동으로 확립되지는 않는다. 구분하면 한 결과로 모습의 기원, 그 정체, 나타난 세계의 구조에 한꺼번에 답하려 하지 않으면서 각 질문을 다룰 수 있다.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보다»는 연구가 그 내용을 구체화하기 전까지 단순한 말처럼 보인다. 이야기에서는 시점이 있는 색채 장면, 대상 배치에 대한 즉각적 앎, 통상적인 시각 관점이 없는 이미지, 일어나는 일 전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확신을 뜻할 수 있다. 이런 차이는 퀄리아의 기술에도 가능한 정보 경로의 검증에도 중요하다.

Ring과 Cooper는 1997년에 임사체험이나 다른 유체이탈 체험을 보고한 시각장애 참가자 31명과의 면담을 발표했다. 저자들은 시각 언어의 모호성을 따로 논의했다. «봄»은 공간적 앎과 다른 인상들의 조합을 표현했을 수 있다. Nancy 사례에서는 목격자에게 물을 수 있었지만, 그의 이야기에는 환자의 이름을 불렀다는 통상적인 청각 경로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연구는 특이한 해석을 제안했으나, 출판된 정보가 모든 사건을 눈 없이 보는 능력의 통제된 검사로 바꾼 것은 아니다. [11]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보든 유용한 원칙이 있다. 검증할 수 있는 앎은 그것을 얻었다고 가정하는 방식과 따로 기술해야 한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을 맞게 지목했다면 확인 전에 어떤 구별 가능한 특징을 보고했는지 알아야 한다. 물건을 지목했다면

정확성, 위치, 사전 또는 사후에 알게 될 가능성이 중요하다. 맞는 답에도 여러 출처가 있을 수 있으며, 검증의 과제는 이를 점차 구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화자 자신의 언어를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한다. 그림으로 전하기가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특이한 감각을 평범한 장면으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모호한 «모든 것을 알았다»를 추가 정보 없이 구체적 대상에 대한 정확한 앎으로 간주할 수도 없다. 검증할 수 있는 세부사항은 구체성, 기록 시점, 대조의 독립성 때문에 무게를 얻는다.

외부 사건과 증언의 정확성

AWARE I의 저자들이 자세히 분석한 사례에서 57세 환자는 소생술에 관한 정보를 기술했다. 저자들은 이를 의료 기록 및 자동제세동기의 작동과 대조했다. 시간적 연관은 대략 몇 분 범위에서 복원했다. 이 사건의 개별 EEG 기록은 없었고 방에 숨겨진 시각 표적도 없었다. 따라서 발표된 검증은 알아볼 수 있는 소생술 사건들에 관한 것이며 미리 숨긴 이미지를 읽는 검사에 관한 것은 아니다. [3]

외과의사 Lloyd Rudy의 알려진 이야기에서도 정보의 출처에 비슷한 주의가 필요하다. Rivas와 Smit의 출판물은 그의 뒤늦은 영상 증언과 영상을 본 뒤 조수가 한 확인에 근거한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환자는 메모가 붙은 모니터를 포함한 수술실의 세부사항을 기술했다. 환자 신원과 의무기록은 복원하지 못했고 사건 순서의 정확성에는 한계가 남았다. 이 사례의 모니터는 지상의 수술실에 속한다. 이를 가정된 사후세계의 기술 장비 목록에 넣어서는 안 된다. [12]

이런 보고는 이용 가능한 문서의 범위 안에서 설명이 필요한 사례로서 의미를 유지한다. 하지만 증언의 강도와 이야기가 반복된 횟수는 같지 않다. 다시 전하는 일이 반복되어도 잃어버린 의료 문서가 복원되지는 않는다. 이야기를 접한 뒤 하는 확인은 독립적으로 보존된 기술과 다르다. 이런 사정은 설명의 범위를 얼마나 좁힐 수 있는지 정한다. 화자가 얼마나 존중받아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준비한 검사에는 검증 가능한 답을 얻을 실제 기회도 필요하다. 숨긴 카드를 사용한 Holden과 Joesten의 병원 프로젝트에서는 연구 기간에 검사에 적합한 면담을 한 건도 얻지 못했다. 별도로 보고된 체험 하나는 장비가 설치된 방 밖에서 일어났다. 이 결과는 연구 조직의 어려움을 보여 주지만 카드를 읽으려다 거듭 실패한 계열을 뜻하지는 않는다. [13]

이 단계가 끝나면 독립적인 두 결과가 남는다. 첫째는 사람이 자신의 위치와 신체성을 어떻게 체험하는가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주변 정보 가운데 무엇을 검증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둘의 연결은 구체적인 사례 자료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후 이야기는 환경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사람과 기기가 있는 방 대신 통로, 빛, 맞이하는 존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검증은 알아볼 수 있는 지상의 사건에서 다른 환경에 관한 이야기 자체의 구성으로 옮겨 간다.

제5장 전이와 만남

익숙한 공간 없이 움직이기

몸과의 관계가 달라진 뒤 이야기는 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이»라는 말은 모두가 지나야 할 필수 도로를 상상하게 하지 않는 동안 유용하다. 전이에는 방향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길은 없을 때도 있다. 가까워진다는 느낌은 있지만 거리가 없을 수도 있다. 장면은 곧바로 바뀌고, 이동했다는 인상은 기억나는 두 상태를 연결하려는 시도에서야 생길 수 있다.

Mrs. Grace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발표한 여성은 빛나는 굽은 관, 가벼움, 귀를 통하지 않고 지각한 기분 좋은 소리를 기술한다. 계속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앞으로 움직인다. 이 이야기에는 만난 존재나 목소리가 없다. 수술 뒤의 체험에 관한 이야기이며 출판물에는 신뢰할 만하게 확인된 심정지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

이런 기술을 통해 이동의 체험과 만남을 분리할 수 있다. 이 줄거리 자체에는 동행자가 필요하지 않다.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 다른 이야기에서 나타난다는 이유로 맞이하는 존재를 덧그리면 원래 증언이 달라진다. 복원하는 지도는 안내자 없는 길과 앞선 길 없는 만남을 모두 허용해야 한다.



그림 7. 안내자 없는 이동. Mrs. Grace의 체험담에 나오는 빛나는 굽은 통로를 예술적으로 재구성했다. 이 기술에서는 의도적인 움직임과 가벼운 느낌이 유지된다. [14]

움직임의 방향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차이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보통의 산책에서는 몸이 안정된 주변 환경에 대해 움직인다. 특이한 체험에서는 벽이 다가오거나 멀어지지 않는데도 움직인다고 느낄 수 있다. 반대의 표현도 가능하다. 주변의 모든 것이 바뀌지만 관찰자 자신은 제자리에 남는다는 것이다. 이동이라는 전반적인 의미는 유지되지만, 가정되는 공간의 기하학은 달라진다.

따라서 터널은 구체적인 체험 형태로, 전이는 상태들 사이의 더 넓은 관계로 기술해야 한다. 이후 한 도식에 복도, 강, 순간적인 장면 변화, 이전 환경의 소멸이 함께 나타날 때 이 구분이 유용할 것이다. 같은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도 비슷한 서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타자를 구별할 수 있게 될 때

피터 N의 이야기에서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곁에 나타난다. 그 응답은 바깥과 안에서 동시에 지각된다. 전이에는 어둠, 움직임,

점점 커지는 리듬 있는 소리가 동반된다. 피터는 그 소리를 헬리콥터 소리에 비유한다. 이후 서로 구별되는 빛의 존재들이 나타나고, 메시지는 느낌을 동반한 생각으로 전해진다. 특이한 색과 별 같은 존재들은 그가 메시지의 출처를 알아보는 주변 환경을 이루지만, 메시지는 자기 안에서 체험한다. 피터는 사건들을 하나씩 나열하는 것으로는 겪은 일을 잘 전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하나라는 느낌이 개별 인격을 없애지는 않았다. 이는 자동차 사고 뒤 체험을 나중에 기록한 것이다. [15]

여기서 대화 상대는 얼굴이나 옷, 방 안의 위치로 구별되지 않는다. 핵심 특징은 메시지의 기원이다. 메시지가 다른 존재에게서 오는 것으로 체험된다.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전화기에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만큼 확실할 수 있다. 외부 연구자에게는 두 질문이 따로 남는다. 다른 존재가 메시지의 주체라는 확신은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정보를 얻었는가?

«텔레파시»는 종종 이런 소통을 짧게 부르는 말이다. 하지만 체험을 기술할 때에는 여러 가능성을 묶는다. 하나는 내적 언어와 비슷하고, 다른 하나는 의미의 직접적 이해와 비슷하며, 또 하나에는 상대의 감정이 포함된다. 메커니즘을 논의하기 전에 말, 언어, 억양, 이미지, 되물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형태를 복원해야 한다. 이 차이가 사라지면 평범한 말로 하는 대화와 갑자기 말없이 이해하는 일이 하나의 특징이 된다.

샤론 T는 물에 빠진 뒤 자기 침실의 장면과 흰 모습 둘을 기억한다. 하나는 예수처럼 느껴지지만 얼굴을 자세히 살피지는 않는다. 그 존재들은 말이 없고 사랑과 지지가 느껴진다. 전달된 가르침이 있었다고 보고하지는 않는다. 창의 빛은 새벽처럼 점차 강해진다. 샤론은 침대에 누운 모습이 눈을 뜨는 것을 자신이 수영장 곁에서 깨어난 일과 연결한다. 사건이 일어난 외부 장소와 체험 장면의 공간은 다르다. [16]



그림 8. 말없는 동행. 샤론 T의 체험담에 따라 침실의 밝은 두 형상과 점점 강해지는 빛을 나타냈다. 실내 모습은 가정하여 그렸다. 당사자는 이 외적 사건을 수영장 곁에서의 익사와 연결한다. [16]

말없는 동행도 사회적 만남이다. 말없이 받아들여진다고 느끼고,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을 역할에 따라 조력자로 지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역할만으로 생애가 확립되지는 않는다. «도움을 받았다», «아는 사람이었다», «특정한 고인이었다»에는 서로 다른 주장이 담겨 있으며 각각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화자 자신이 한 말로 묶는 경우에도 주의 깊게 읽으면 이 차이를 보존할 수 있다.

알아봄과 이름

얼굴을 알아보는 것과 익숙함을 체험하는 것은 다르다. 첫 경우에는 외모의 특징을 말하고 사진과 비교하며 변화를 기술할 수 있다. 둘째에서는 이름도 지상에서의 관계 이력도 없이 친밀함을 확신할 수 있다. 이런 알아봄은 집으로 돌아왔다는 느낌에 특히 중요하다. 전에 본 주소로 설명할 수 없어도 그 장소와의 관계 때문에 자기 곳이 되는 것이다.

체험 중의 알아봄과 나중에 붙인 이름도 구분해야 한다. Val C는 특이한 모습을 외계인에 잠정적으로 비유하여 기술한다.

전에 읽은 책이 그 존재의 외모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인정한다. 장면 안에서 Val은 제안된 생애 관람보다 상대에게 더 관심을 가지며 눈을 들여다보아도 되는지 묻는다. 지상의 친구들과 학교 공연은 기억에 남아 있어 돌아가려는 마음에 영향을 준다. 각자 기대에 맞는 모습을 보여 준다는 설명은 나중에 다른 이야기들을 읽은 것과 연결한다. [17]

이 출처는 사건과 설명을 나누려는 당사자의 시도를 담고 있어 특히 유용하다. 개인에 맞춘 모습이라는 가정은 타당할 수 있지만, 장면을 잘 설명한다는 이유만으로 원래 장면의 일부가 되지는 않는다. 이야기를 비교하려면 당시 그 존재가 어떻게 보였는지와 나중에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두 층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

«신»이라는 말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등장하는 존재, 보이지 않는 지시의 출처, 우주적 일체감, 당사자가 체험에 부여한 의미를 가리킬 수 있다. 이 용법들을 남김없이 하나의 모습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 화자가 만남을 신성하게 여긴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신을 만났다는 주장이 더 분명해진다. 말로 제시된 이름, 의도를 안다는 느낌,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느낌, 절대적인 확신 중 무엇이었는가?

리사 R은 경계 밖에 빛이 있는 어두운 공간, 색깔 있는 옷을 입은 키 작은 존재들의 무리, 누군가와 상의하듯 여러 번 대화를 멈추는 주된 대화 상대를 이야기한다. 그녀에게는 엄격한 얼굴과 다정한 눈이 함께 느껴진다. 다른 참여자는 보이지 않는 대화 상대를 신이라고 부른다. 리사 자신은 그를 보지 못한다. 기술에 따르면 그 존재들은 리사의 생각을 이해하지만, 자기 생각에는 부분적으로만 접근하도록 한다. 사고를 떠올리자 호기심이 두려움으로 바뀐다. 남고 싶어 하지만 귀환은 의무로 드러난다. [18]

이 이야기에서 위계에 속한다는 판단은 등장하는 존재들의 말과 행동 관찰을 통해 이루어진다. 체험은 모든 참여자에게 똑같이 접근하게 하지 않는다. 이는 의식들이 서로 완전히 투명하다는 가설에 이미 실질적인 한계를 준다.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누구나 모두에 관해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은 아니다.

위로가 보장되지 않는 만남

안내자는 모습만 흥미로운 것이 아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허가하고, 거절하고, 답을 기다리거나 다른 이를 대신해 결정할 권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서적 인상과 권력의 배분을 따로 살펴야 한다. 다정한 상대가 자유를 거의 주지 않을 수 있고, 엄격한 모습이 믿음직하게 느껴질 수 있다. 사랑의 느낌 자체로는 제안된 길을 거절할 수 있는가에 답할 수 없다.

바로 여기서 개별적인 «나»가 특히 뚜렷하게 드러난다. 질문, 반대, 결정을 미루거나 생각을 숨기려는 시도에는 자신의 바람과 타인의 의도를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 장면을 기술한다면 주변에서 일체감과 공통 연결을 느껴도 자기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일체감과 저항이 같은 순간에 속하는지, 기억의 서로 다른 구간인지 알아야 한다.

티나 W는 어린 시절의 감전 사고를 나중에 이야기하며 자기 몸을 차분히 바라봄과 흰빛을 기술한다. 하지만 터널, 다른 존재, 생애 회고, 모든 것을 앎, 시간의 변화는 없었다고 명시한다. 이야기는 신체 감각이 돌아오는 것으로 끝난다. 만남이 일어나는 별도의 세계를 보고하지는 않는다. [19]

새미 E도 집에서 겪은 위기를 기술하면서 다른 존재와 목소리가 없었다고 명시한다. 특이한 상태에서 자신의 생애를 떠올리고 귀환을 생각한다. 통상적인 시각과 청각은 없으며 몸은 기억처럼 멀리 느껴진다. 여러 생각의 흐름을 동시에 겪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남는다. 주된 내용은 사유이며 빛, 터널, 모든 것을 앎은 없다. 위험 상태가 지속된 의학적 시간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20]

이 이야기들은 중요한 갈래를 위한 자리를 남긴다. 체험은 자기의식으로 충만하면서도 외부 세계를 거의 담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안내자가 없다는 것은 복원해야 할 등장인물이 빠졌다는 뜻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건의 성격을 바꾼다. 당사자는 자신의 상황 이해와 홀로 마주하며, 결정은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만남은 자신의 «나» 너머로 체험이 확장되는 한 가능성이다. 어떤 경우 다른 이는 그저 존재하고, 어떤 경우에는 누구인지 알아보며, 또 어떤 경우에는 규칙을 설명한다. 다음 장면들에는 소통의 공간, 과거에 대한 접근, 활동과 제한이라는 더 복잡한 조직이 나타난다. 바로 그곳에서 개별 만남은 세계 전체에 관한 표상으로 바뀐다.

제6장 생애 회고와 주변 세계

과거에 접근할 수 있게 될 때

통상적인 기억은 과거의 일부를 골라낸다. 다른 사건과 타인의 체험은 주의 바깥에 남긴다. 따라서 생애 전체를 돌아본다는 이야기는 우선 그 접근이 완전하다고 여겨진다는 점에서 놀랍다. 당사자는 자신의 행위를 보면서 그 동기를 이해하고 타인에게 미친 결과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고 보고한다. 이를 주관적 상태의 정확한 기술로 받아들인다면 관찰자의 위치 자체가 달라진다. 사건의 참여자인 동시에 여러 측면에서 그 사건을 보는 목격자가 되는 것이다.

캐서린 L은 전시관과 탁자 위에 놓인 듯한 화면을 기술한다. 생애 회고 중에는 재생을 멈추고 장면을 확대하며 자신의 행동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관점을 포함한 여러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다른 존재들과의 대화는 행동할 기회를 놓친 일도 다루었다. 이 체험을 수술 합병증과 연결하지만 심정지가 있었는지는 모른다. [21]

이 기술에서 화면은 사건에 접근하게 하고, 관점이 달라지면서 도덕적 의미가 생긴다. 두 기능은 나눌 수 있다. 시각적 기기를 빼더라도 행위와 결과를 함께 지각한다는 생각은 남는다. 반대로 타인의 관점을 빼면 자기 생애를 보는 듯한 장면들의 계열이 남는다. 이 두 회고 방식은 화자에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림 9. 생애 회고와 관점의 전환. 캐서린 L의 체험담을 바탕으로 예술적으로 재구성했다. 화면은 마치 탁자 위에 놓인 듯하다. 화면 속 장면과 전시관의 세부 사항은 가정하여 그렸다. [21]

생애 회고를 미리 심판이라고 간주해서도 안 된다. 심판에는 고발, 규칙, 평가 권한을 가진 이, 판정이 중요하다. 자기평가에는 이해의 변화만으로 충분하다. 대화에는 두 과정이 함께 있을 수 있다. 당사자가 스스로 후회를 느끼면서 다른 이의 평가를 듣는 것이다. 연구는 이 구성을 익숙한 종교적 또는 심리적 용어로 대체하지 않고 보여 주어야 한다.

오델 H는 여러 장면이 있는 큰 화면을 기억한다. 논의할 장면 하나는 확대되고 나머지는 가장자리에 남았다. 대화 상대를 예수라고 부른다. 이야기에는 비난받을 두려움, 행위에 대한 지적, 함께 웃는 일이 있다. 오델의 말에 따르면 잘못한 행동의 동기를 미화하려는 시도는 바로 드러났고, 좋은 행동도 논의되었다. 터널은 관람 뒤에 나타난다. 해당 페이지에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같은 사건의 두 버전이 실려 있다. 이는 한 목격자이며 사건 순서에 대한 두 확인 증거가 아니다. [22]

이 순서는 바로 그 구체성 때문에 유용하다. 어떤 터널이든 보편적인 여정의 처음에 놓으면 원래 순서가 사라진다. 의미에 따른 비교는 비슷한 요소들이 다르게 연결될 가능성을 남겨야

한다. 순서가 안정적이지 않은 동안 지도는 장면 사이에 가능한 전이들의 연결망이다.

사물로서의 화면과 비유로서의 화면

화면이라는 모습은 특히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생애가 영화처럼 지나갔다»는 말은 기억이 빠르게 떠오른 것을 뜻할 수 있다. 표면, 테두리, 당사자에 대한 위치, 조작 방식을 언급하면 기술은 더 구체적이 된다. 또 다른 경우는 여러 해 뒤 특이한 체험을 전달하려고 현대적인 비유를 선택한 것이다. 화자가 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이 경우들은 서로 다르다.

리에트 W는 흰 방, 흰옷을 입은 남자, 평평한 터치스크린 여러 개를 기술한다. 하나는 삶의 선택지들을 보여 주고 다른 하나는 추가 정보를 준다. 마음에 드는 선택지가 없지만 선택해야 한다고 여긴다. 결국 연민을 느끼는 가족을 고른다. 결정 뒤 문을 통과하고 그다음은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하는 사건을 대략 네 살 무렵에 놓지만, 이를 출생 이전의 일로 해석한 것은 성인이 되어 발표한 글에 담겨 있다. 흰옷을 의료용 가운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23]

여기에는 일부 생애 회고 이야기와 구체적인 대상의 유사성이 있다. 별도의 표면을 통해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내용은 시간의 반대 방향을 향한다. 한쪽은 과거를, 다른 쪽은 가능한 미래를 보여 준다. 선택이나 앎을 제시하는 방식은 공통되지만 가정된 용도는 다르다.

셸리 P도 방과 여러 화면을 기술하지만 세 삶을 동시에 보여 준다는 점을 상세히 구분한다. 거절하는 몸짓 뒤 한 선택지는 사라지고 다른 것은 계속 재생된다. 동행자는 처음에 원하지 않던 삶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한다. 나중에 같은 페이지에는 수많은 영혼이 있는 원형극장이 나오지만, 이는 성인이 되어 겪은 별도의 환시다. 선택의 방과 원형극장을 하나의 연속 장면으로 합치면 출처를 왜곡한다. [24]

이 구분은 공간 지도에 중요하다. 한 사람이 기술한 두 환경이 반드시 이웃하거나 같은 종류의 상태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장소를 이루는 부분으로 보려면 화자 자신이 제시한

연결이 필요하다. 글 전체가 풍부하면 자세한 지리라는 인상을 줄 수 있지만 원자료는 나뉜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다.

화면의 위치, 이미지 선택 방식, 멈출 수 있음, 별도의 동행자라는 여러 특징이 일치하면 유사성은 더 실질적이 된다. 하지만 이런 조합도 체험의 기원을 정하지는 않는다. 비교 질문을 제기할 뿐이다. 답하려면 기록이 나온 시점, 당사자가 접할 수 있었던 문화적 이미지, 기억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 복잡한 정보를 설명하기에 편리한 장치라는 점만으로 공통된 외부 기술이 존재함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인간이 만든 물건에는 중요한 성질이 있다. 어떻게 행동할지 곧바로 암시한다. 문은 통과를, 책은 읽기를, 줄은 접근을 기다리는 일을 떠올리게 한다. 이야기를 해석할 때 이 암시가 지나치게 강할 수 있다. 장치와 비슷한 것을 보고 연구자는 목격자가 전혀 말하지 않은 기능을 부여할 위험이 있다.

환경을 설명하는 방과 책

조지 C는 긴 흰 복도와 오른쪽 방들을 보고한다. 밝은 모습의 키 큰 존재가 동행한다. 방에는 다른 존재들과 복도에 대비되는 별빛의 어둠이 있다. 다른 이들도 함께 가는지 묻자 동행자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답한다. 조지는 자신이 작게 느껴지고 동행자의 태도를 아버지의 태도에 비유한다. 길의 끝이나 출생은 기억하지 못한다. 방에서 치료했다는 기술은 없다. [25]

이 공간을 병원, 교육기관, 배정센터라고 부르기는 쉽다. 하지만 명칭마다 정보가 더해진다. 병원이라면 치료의 징후가, 학교라면 학습의 징후가, 배정이라면 장소를 지정하는 징후가 필요하다. 복도와 기다림만으로는 이 설명들 사이에서 선택할 수 없다. 때로 가장 정확한 표현은 기술적인 데 머문다. 동행을 받는 이가 더 나아가는 동안 다른 이들이 머무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브라이언 D는 학습에 수반되는 책상, 책, 카드식 자료함을 이야기한다. 안내자는 얼굴이 거의 없는 황금빛 존재로 보이고, 생각으로 소통하며, 보이지 않게 된 뒤에도 연결을 유지한다. 알아볼 얼굴은 없지만 익숙함을 느끼고 소통에는 유머도 있다. 브라이언은 지상의 인격이 여러 형태 중 하나인 더 포괄적인 존재로 자신을 체험한다. 질문하고 주의를 이끌며, 마지막에는

다른 빛의 조력자들이 나타난다. 이는 의학적 평가와 시간 추정이 확인되지 않은 자기보고다. [26]

이런 장면에서 앎은 익숙한 구성을 갖는다. 책상은 학생의 자리를 나누고, 책은 내용을 담으며, 카드식 자료함은 검색을 기대하게 한다. 함께 정보를 다룬다는 인상을 만든다.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려면 실제로 읽고 찾고 기억해야 했는지, 아니면 의미가 곧바로 주어졌는지 알아야 한다. 첫 경우에는 순차적인 활동이 유지된다. 둘째에서는 주변 물건들이 메커니즘을 기술하지 않은 접근에 형태를 부여하는 셈이다.

여기서 장면 안의 인과성이라는 질문이 생긴다. 책을 펼쳤기 때문에 답을 얻었다면 그 사물은 행동에 참여한다. 답을 이미 알고 있는 동시에 책을 알아차렸다면 연결은 더 약하다. 나중에 설명을 위해 책을 덧붙였다면 이는 기억을 표현하는 언어의 문제다. 세 경우 모두 진실할 수 있지만 체험되는 세계의 구성에 관해 서로 다른 정보를 준다.

흰 가운과 지상의 직업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을 특히 구체적으로 다룬 이야기 중 하나는 스티븐 I가 발표했다. 그는 이 사건을 성인이 된 뒤의 꿈이라고 명시하고 오랫동안 간호사로 일했다고 알린다. 꿈에는 이동식 침대, 의사로 여긴 인물들, 가정된 이전 인격에 관련된 사진과 화면 이미지가 나온다. 그 인격의 독립적인 확인은 출판물에 없다. [27]

이 예는 대상의 유사성을 맥락과 함께 보존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 준다. 가운은 실제로 이야기 안에 있다. 하지만 꿈에서 가운을 찾았다고 의학적으로 확인된 임사 사례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은 아니다. 병원 환경에 직업적으로 익숙했다는 점도 출처의 기술에 포함된다. 그것만으로 꿈의 세부사항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렇다.



그림 10. 흰옷과 의료 가운. 왼쪽에는 리에트 W가 보고한 출생 전 기억 속 흰옷을, 오른쪽에는 성인이 된 스티븐 I의 꿈속 의료 이미지를 나타냈다. 두 폭의 그림은 서로 다른 두 보고를 재구성한다. [23] [27]

체험과 익숙한 모습 사이에는 서로 다른 관계가 가능하다. 당사자는 익숙한 물건들을 다른 세계의 실제 대상으로 지각할 수 있다. 특별히 고른 표현 방식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또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 때에야 모습의 의미를 이해할 수도 있다. 이 가능성들 사이에서 선택하려면 목격자가 정확히 무엇을 주장하는지 알아야 한다. 본 방이 실제 공간이었는지 메시지의 형식이었는지를 당사자 대신 정할 수는 없다.

주의에 따라 달라지는 세계

캐서린 L은 건물에 주의를 기울이면 형태가 더 뚜렷해졌고, 비슷하게 자기 존재의 인간적 모습도 나타날 수 있었다고 덧붙인다. 기술에 따르면 대상의 구체성은 집중에 달려 있었다. 이후 정원에 머물렀지만 도시 안쪽으로 더 갈 수는 없었다. 한 대화 상대를 예수라고 부르기로 했으나, 나중에는 신적 의도를 대변하는 존재에 더 가깝게 기술했다. 소통 자체는 힘을 주었지만 얻은 앎의 내용에는 귀환 뒤 접근할 수 없었다. [21]

이런 세계는 익숙한 방식으로 지도화하기 어렵다. 지도는 관찰자가 다른 쪽을 보는 동안에도 대상이 유지된다고 가정한다. 이야기 자체가 형태를 주의와 연결한다면 다른 질문이 생긴다. 형태가 달라질 때 정확히 무엇이 안정적으로 남는가? 장소, 기능, 다른 존재와의 연결, 또는 알아본다는 느낌뿐일 수 있다. 무엇을 반복되는 단위로 볼 수 있는지는 답에 달려 있다.



그림 11. 대상의 구체성과 주의. 집중할수록 형태가 더 뚜렷해졌다는 캐서린 L의 보고를 개략적으로 시각화했다. 세부 묘사의 변화는 보고된 체험을 전달한다. [21]

캐미 R은 뚜렷이 보이는 형상이 없는 존재감, 하나의 전체에 속한다는 느낌과 이전 몸에서 삶을 계속하기로 함께 내린 결정을 보고한다. 경험 전체에 특정한 순서나 장소를 명시적으로 부여하지는 않는다. 진술에는 입원 중과 이후의 여러 상태가 포함되며, 이를 하나의 의학적 순간으로 묶을 수는 없다. [28]

구체적 대상이 나오는 이야기와 대상이 거의 없는 이야기를 함께 보면 가능한 기술의 범위가 드러난다. 한쪽 끝에는 건물, 표면, 활동이 있다. 다른 쪽에는 자세한 배경 묘사가 필요하지 않은 관계, 의미, 결정이 있다. 공통 기능은 유지될 수 있지만 익숙한 지리는 덜 명확해진다.

이후의 비교에서도 이 차이를 유지해야 한다. 조직된 세계를 체험했다는 것이 언제나 변하지 않는 환경을 기술한다는 뜻은 아니다. 화자에게는 무엇보다 타인과의 연결, 소속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이해가 안정적일 수 있다. 이동이 끝나고 머무름이 시작될 때 바로 이런 성질들이 특히 두드러진다.

제7장 머무름과 휴식과 회복

도착한 뒤

«머무름»은 이야기의 중요한 변화를 가리킨다. 전이는 끝났고 처음의 상황을 이해했지만 다음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 사이에는 체험되는 공간 안에서 살 가능성이 생긴다. 대화하고 관찰하며 활동을 고르거나 그저 평온하게 있을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새로운 출생의 준비로 환원할 수 없는 구간이 이야기들에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긴다.

모린 K는 첫 만남 뒤 자신의 회복을 돕는 별도의 조력자 무리를 기술한다. 부드럽고 따뜻한 담요, 보이는 출처 없는 음악, 묻지 않고도 필요를 이해하는 일을 기억한다. 조력자들은 말없이 일한다. 처음에는 정말 죽었는지, 일어나는 일이 실제인지 묻고, 두려움은 안도로 바뀐다. 모린은 곁에 다른 도착자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정할 기준이 없었다고 명시한다. 이어 다른 동행자들이 나타난다. 이 이야기는 위험한 상태에 대한 자기보고로 발표되었으며 의료 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 [29]

이 사례에서는 장면의 내용 자체가 회복을 구분해 준다. 즉각적인 편안함과는 다르다. 돌봄이 필요한 상태의 체험, 지원, 그 완료가 있다. 달력으로 잴 지속시간이 없어도 순서는 남는다. 처음에는 도움이 필요하고 이어 상황이 달라진다. 지상의 몇 분에 대응하는지 계산하지 않고도 이런 전이를 기술할 수 있다.



그림 12. 도착 후의 돌봄. 모린 K의 체험담에 따른 부드러운 담요와 말없는 도움. 예술적 재구성은 회복과 안정을 표현한다. 출처에서는 지속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 [29]

편안해짐, 휴식, 회복은 완전히 같지 않다. 편안해짐은 괴로운 감각이 줄었다는 뜻이다. 휴식은 행동해야 할 필요가 없음을 전제로 한다. 회복은 어떤 능력이나 상태가 돌아옴을 뜻한다. 이야기에 모두 담길 수도 있지만 한 특징만 있을 수도 있다. 따뜻하다는 느낌이 치료를 알려 주지는 않으며, 피곤하지 않다고 그전에 쉬는 기간이 있었음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머물 가능성

OBERF 기록보관소의 제임스는 가정된 이전 죽음, 흰 회복 영역, 이후의 학습을 이야기한다. 숲에서는 스승에게 지상으로 돌아가거나 멘토와 함께 머무르라는 선택을 제시받고, 머무르기를 고른다. 긴 대화, 계곡을 바라보는 벤치, 흰 수염의 스승이 기억에 남는다. 제임스는 장소가 자신을 위해 마련된 듯하다고 느끼고 멘토는 단서를 붙여 이를 확인한다. 태어날 준비는 점차 생긴다. 그에 앞서 저항하다가 가까운 영혼과 작별하고 미래의 형제를 만난다. 제임스는 회복의 지속시간을 잴 수 없다고 강조한다. «몇 분 또는 몇 년»은 불확실성을 표현한다.

신에 대한 언급은 존재와 우주를 통해 설명한다. 이는 어린 시절부터 기억했다고 주장하는 성인의 출판물이며, 이전 생애의 확인이나 이른 문서는 없다. [30]

이런 이야기 안에서 중간 구간에는 그 자체의 내용이 있다. 도착자를 순간적으로 분류하는 일로 기술할 수 없는 관계와 관심이 포함된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머무르기를 선택했다고 끝없이 머무를 권리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글은 하나의 결정과 이후 의도의 변화를 보여 준다. 이 사건을 보편적인 자유의 규칙으로 바꾸면 이야기 자체가 주지 않는 정보를 더하게 된다.



그림 13. 머무를 가능성. 제임스의 체험담에 따라 계곡이 보이는 벤치와 조언자와의 대화를 그렸다. 예술적 재구성은 체류 중의 한 장면을 나타낸다. 그 지속 시간은 알려져 있지 않다. [30]

비교할 때에는 가능성과 선호를 구분하면 특히 유용하다. 남고 싶지만 불가능하다고 여길 수 있다. 남을 수 있지만 더 나아가고 싶을 수도 있다. 소통하는 동안 바람이 바뀔 수도 있다. 그때 전이의 이유는 정해진 기한의 만료가 아니라 인격의 상태 변화에 있다. 모두 짧게는 «되돌려 보냈다»고 전해져도 서로 다른 귀환 모형을 만든다.

그 구간에는 또 하나의 성질이 있다. 그 자체로 가치 있을 수 있다. 대화, 관계, 환경 탐구가 흥미롭다면 의미가 이후의 삶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학습 가설을 논의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 과제 준비를 위해서, 이해를 위해서, 소통에 참여하는 일 자체를 위해서 배울 수 있다. 구체적인 의미를 고르려면 멘토의 존재만이 아니라 메시지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간직하고 싶은 평온

앤절라 E는 가정된 이전 죽음 뒤의 피로, 아는 존재들의 위로, 소통에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을 기술한다. 이전 가족에 대한 원망과 그 운명에 대한 관심이 남지만 동행자들은 아픔을 주지 않으려 관찰을 계속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추가 휴식은 허용한다. 나중에는 부모 선택을 거절하고, 본인의 말에 따르면 대신 선택해 준다. 이 구간의 감각적 환경은 거의 기술하지 않는다. 중심에는 안전, 유예, 결정 참여 정도의 변화가 있다. 가정된 아동기 기억의 이른 독립 기록은 없다. [31]

이 예는 풍경의 세부 묘사가 없다고 이야기가 심리적으로 비어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 준다. 공간보다 내적 상태가 더 잘 기술될 수 있다.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요청하며 언제 상호작용을 시작하는지 알 수 있다. 머무름의 지도에는 때로 문과 방의 수보다 이런 점이 더 유용하다. 관계에 들어갈 준비가 돌아오는 것으로 인격의 회복을 그릴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돌봄과 통제는 서로 배제되지 않는다. 조력자는 유예 요청을 존중하면서도 나중에는 돌보는 이를 대신해 결정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는 합리적이거나 불가피하거나 부당하게 보일 수 있다. 동행자들의 역할을 이해하려면 그 행동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복원해야 한다. «사랑이 넘치는»이라는 말 하나로 상호작용의 전체 질서를 기술할 수는 없다.

제니퍼 B는 어둡지만 안전하고 친숙하며 아주 오래 지속된 듯한 상태를 기억한다. 떠나고 싶지 않다. 자유롭게 한 이야기에는 남을 가능성이 나오지만 설문 응답에는 떠나야 한다고 적혀 있다. 사랑하는 존재감이 이 결정과 연결된다. 소리와 냄새는 기술하지 않으며 떠날 때 무렵 다급함이 생긴다. [32]

이러한 불일치는 보존하는 편이 낫다. 가능한 설명으로는 바람의 변화, 할 수 있다는 말의 서로 다른 의미, 부정확한 질문, 나중에 이루어진 기억의 정리가 있다. 하나를 선택하려면 추가 근거가 필요하다. 그 근거가 없는 동안에는 출처가 체험된 자유와 체험된 필연성 사이의 긴장을 보여 준다. 이 긴장은 독립적인 요소이며, 지나치게 매끄럽게 편집하면 사라질 것이다.

활동과 관계

다이애나 G는 밝은 풍경, 수정 같은 건물, 도서관을 기술한다. 별도의 태양은 없고 빛은 주변에서 나오는 듯하다. 그녀의 인상에 따르면 만난 존재들은 예술과 창작에 종사한다. 익숙한 존재감이 주변을 보여 주며 귀환을 논의한다. 다이애나는 처음에는 저항하다가 동의한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건과 연결된 이야기이며, 자신의 임상적 죽음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33]

이런 장면은 활동에 관한 질문에서 중요하다. 다른 삶을 단지 지상의 고통이 없는 상태로만 묘사하면 그 삶의 적극적인 내용을 무엇이 채우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창작, 교류, 탐구, 도움은 고통의 중단으로 환원되지 않는 목적을 도입한다. 또한 참여자 사이의 차이를 전제한다. 누군가는 할 줄 알고, 누군가는 배우며, 누군가는 결과를 보고 싶어 한다.



그림 14. 활동과 창작. 다이애나 G의 체험담을 바탕으로 서로 분리된 두 장면을 구성했다. 왼쪽은 도서관, 오른쪽은 창작 활동이다. 건축과 구체적인 활동은 가정하여 그렸다. [33]

여기서 세계 모형 자체에 대한 내부 질문이 생긴다. 모든 앎에 즉시 접근할 수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학습이 필요한가? 어떤 바람도 즉시 이루어진다면 오랜 작업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 질문들이 이야기를 반박하지는 않는다. 주장하는 앎의 완전성이 특정 주제, 짧은 상태, 이후의 일반적 해석 중 무엇에 관한 것인지 밝혀 준다.

논리적으로 서로 다른 몇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결과는 알지만 과정 자체를 아직 체험하지 않았을 수 있다. 생각은 이해했지만 행동 방식을 익혀야 할 수 있다. 타인의 감정은 알지만 관계에 들어갈 자유는 남을 수 있다. 이는 분석을 위한 가능한 구분이지 존재하는 사후 질서에 관한 정보가 아니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그중 하나를 고를 근거를 주어야 한다.

소통에도 어느 정도의 변화 가능성이 필요하다. 새것을 알거나 태도를 바꿀 수 없는 대화는 통상적인 학습과 별로 비슷하지 않다. 따라서 당사자가 놀라는지, 질문하는지, 처음에는 전부 이해하지 못하는지 구체화해야 한다. 화자가 시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런 세부사항이 머무름의 내부 역동을 보여 준다.

사물 없이 머무름

케리 T는 성인이 되어 쓴 기록에서 통상적인 대상, 몸, 생각, 감정이 없던 공허에 관한 어린 시절의 꿈을 떠올린다. 이어 호기심이 생긴 뒤 고양이와 긁힌 아픔이 있는 아주 어린 영아기의 장면으로 이어진다. 기억 자체는 깨어남으로 끝난 네 살 아이의 꿈으로 제시된다. 공허와 선재의 연결은 이후 설명에서 전개한다. 이 대목에는 출생의 전이나 동행자가 기술되어 있지 않다. [34]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모인 휴식 장소라는 모습과 거리가 멀다. 하지만 머무름에 관한 질문도 제기한다. 아무 활동이 없는 상태를 기술하면서 자신의 과거로 여길 수 있을까? 여기서는 처음에 생각이 없었다는 것과 나중에 생긴 호기심을 섞지 않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그 사이에는 이미 다른 무언가를 향하는 지향이 나타나는 경계가 드러난다.

이 가능성들을 비교하면 내용의 풍부함과 자기의 보존을 구분할 수 있다. 어떤 화자의 «나»는 가까운 이들에 대한 기억으로, 다른 이의 «나»는 선택 능력으로, 또 다른 이의 «나»는 단순한 존재감으로 유지된다. 인격의 정의에 풍부한 생애를 미리 요구하면 마지막 경우는 검토에서 빠진다. 반대로 어떤 존재감의 체험이든 인격으로 본다면 구체적인 지상 생애와의 관계는 불명확하게 남는다.

따라서 머무름은 상태의 즐거움, 가능한 활동, 타인과의 관계, 자유의 정도, 변화할 준비라는 독립적인 여러 방향에서 기술한다. 어느 것도 나머지를 대신하지 않는다. 안전하면서도 소통을 원하지 않을 수 있고, 기쁘면서도 결정에 따를 수 있으며, 풍부한 외부 장면 없이 평온하게 머물 수 있다.

새 삶에 관한 질문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더 이상 충분하지 않거나 다른 참여자가 전이의 필요를 알릴 때 나타난다. 다음 장은 바로 이 경계를 다룬다. 여기서는 제안, 동의, 양보, 지정, 화자가 나중에 자기 선택이라고 부르는 것 사이의 차이가 특히 뚜렷하다.

제8장 귀환의 선택

무엇을 선택하는가

새로운 출생의 선택은 삶들 사이에 머문다는 이야기의 자연스러운 마무리처럼 보인다. 하지만 «선택»에는 서로 다른 여러 행위가 숨겨져 있다. 몸 안에서 계속 존재하는 데 동의하거나, 가족을 고르거나, 어떤 조건을 다른 조건보다 선호하거나, 이미 바꿀 수 없는 결정을 받아들이기만 할 수 있다. 모두 어느 정도 참여는 남지만 자유의 범위는 다르다.

애덤 K는 두 선택지를 제안받았다고 기억한다. 쌍둥이 없이 키가 크고 운동선수 경력을 가질 가능성, 또는 쌍둥이 형제와 살며 긴밀하게 연결되는 삶이다. 형제와의 관계를 고른다. 장면에는 장소, 몸, 상대의 외모에 관한 상세한 기술이 없다. 이전의 죽음이나 출생 자체도 나오지 않는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설명하려 했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발표되었다. [35]

이런 이야기에서는 무엇을 선호했는지 분명히 구분할 수 있다. 관계가 다른 가능성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두 삶 중에서 고를 수 있다는 것이 태어나지 않을 가능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제안 전체를 거절할 권리는 별도 특징이다. 기술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으로 있다고도 없다고도 가정하지 말고 미상으로 남겨야 한다.



그림 15. 선택이 정확히 뜻하는 것. 분석 도식은 결정에 참여하는 것, 상황을 선택하는 것, 결정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한다. 한 매개변수를 선택할 자유가 나머지 자유의 범위까지 정해 주지는 않는다.

미셸 N은 성인의 기록에서 어린 시절부터 있었으며 출생 이전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꿈과 순간적인 기억들을 기술한다. 평온하고 어두운 공간, 다른 어린 소녀, 다음 삶의 바람을 묻는 보이지 않는 상대를 이야기한다. 처음의 부와 인기에 대한 바람은 삶의 교훈을 선택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어 둘은 물이 없는 고대 배 같은 것 안에 있게 되고 흰빛으로 기억이 끝난다. 출생이나 이전 죽음의 장면은 없다. [36]

여기서는 기억하는 대화 안에 학습의 동기가 있다. 하지만 이런 선택 하나로 모든 삶으로 태어나는 목적을 확립할 수는 없다. 사회적 지위, 관계, 체험, 도움, 특정 성질의 습득 중 무엇을 바람직하다고 여기는지 비교할 수 있을 뿐이다. 장면의 외부 구성이 다르더라도 선호의 대상들은 실질적인 비교 자료를 준다.

동의는 달라질 수 있다

크리스티안 산드베리는 고통스러운 삶 뒤의 긴 유예, 준비되었는지 묻는 안내자의 반복 질문, 이후의 동의를 기술한다. 다른 사건에서는 제한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기억하며 대략 시뮬레이터라고 비유한다. 안내자는 처음에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지상 시간을 고려한

다급함이 생긴다. 산드베리가 잠정적으로 기술자라고 부르는 존재들은 망각 준비에 참여하고 최종 동의를 묻는다. 의료용 가운은 기술하지 않는다. 내적 상태의 막대그래프도 실제로 관찰한 기기가 아니라 거친 비유로 제시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기억은 성인이 되어 명상할 때 돌아왔다. [37]

얼핏 보면 시간에서의 자유와 서두르라는 요구는 모순된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를 서로 다른 결정에 연결할 수 있다. 얼마가 걸릴지 정해지지 않은 채 참여 여부를 고를 수 있어도, 선택한 기회에는 제한된 시간 구간이 있을 수 있다. 논리적으로 양립하는 주장들이다. 검증의 질문은 그다음부터다. 무엇으로 그런 기회 구간의 존재를 확인하고 지상의 사건과 연결할 수 있는가?

이 구분은 동의를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처음의 호기심은 아직 최종 결정이 아니다. 두려움이 유예로 이어질 수 있다. 가정된 제한을 알게 되면 의도가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마지막 말과 실제로 이루어진 출생뿐 아니라 당사자가 동의에 이른 경로도 중요하다.

동의에는 조건이 있다. 당사자가 결과를 충분히 명확하게 이해했는가? 준비를 멈출 수 있었는가? 대안을 제시받았는가? 이 질문들이 가정된 다른 세계에 지상의 법을 옮겨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증언 안에서 «자발적으로»의 의미를 구체화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긍정적인 느낌 하나라도 앞선 사건은 무엇이든 자발적이라고 부르기 쉽다.

의무와 거절의 한계

또 다른 출생 전 이야기에서 제니퍼는 다정한 안내자들과, 과제를 마칠 때까지 돌아가야 한다는 확신을 묘사한다. 더 잘 해내기 위해 기억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한다. 이어서 별도의 힘이 나타나며, 제니퍼는 그 힘이 기억을 지운다고 여기고 저항하기 시작한다.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본인도 모호하다고 여긴다.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고 다른 뜻이었을 수도 있다. 제니퍼는 신을 만났다고 보고하지 않는다. [38]

여기서는 지원과 강제가 서로 다른 참여자에게 연결된다. 그렇다고 조정된 통제 체계나 독립적인 권한들의 충돌을 곧바로

도출할 수는 없다. 그런 추론에는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한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이야기가 주는 것은 우선 체험된 역할의 차이다. 어떤 이들은 돕고, 다른 이는 막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통과를 허용한다.

더 중요한 점이 있다. 필수 과제라는 생각이 그 내용의 불확실성과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당사자는 책임을 느끼지만 명확한 완료 조건을 알지 못한다. 학습 가설에는 어려운 질문이다. 과제에 대한 기억이 제한되면 어떤 특징으로 성공을 정하는가? 이야기는 도덕적 답을 제안할 수 있지만 결과를 검증하는 메커니즘 자체에는 별도 기술이 필요하다.

앨릭스 P는 고통스러운 이전 죽음과 반복될 두려움 때문에 다음 조건을 선택할 수 없었던 일을 기억한다. 느낌상 선택 시간이 끝나고 최종 선호를 정하지 못한 채 몸에 들어간다. 구체적인 과거 생애는 기억하지 못하고 미래도 모르며 현재 삶의 목적도 말할 수 없다. 자신의 출산에 관한 가족 정보는 이미 이후의 대조로 제시된다. [39]

이 이야기는 가정된 선택의 정서적 중심을 바꾼다. 가능성의 평온한 비교 대신 압박 아래의 결정이 나타난다. 영혼의 부족한 발달, 특별한 교훈, 잘못된 지각으로 불안을 미리 설명해서는 안 된다. 출처가 그런 정보를 확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이야기의 일부이며 더 위안이 되는 설명들과 나란히 드러나야 한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감

같은 몸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들은 별도 갈래를 이룬다. 선택의 대상이 다르다. 모르는 가족이나 생애를 고르는 대신 자신의 바람을 이미 있는 관계들과 연결한다. 의식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결정이 생리적 회복을 일으켰는지, 결정이 그 회복을 체험한 일부가 되었는지 정할 수는 없다.

우르줄라 K는 어린 시절의 위험한 상태를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병원을 바라본 일과 어머니에 대한 연민을 기술한다. 자신이 떠나면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생각한 뒤 돌아가기로 한다. 터널, 다른 세계, 고인들, 생애 회고는

없었다고 명시한다. 의학적 사정과 병원을 관찰했다는 내용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40]

여기의 관계 동기는 출생 이전 이야기에서 친밀함을 선택한 것과 비교할 수 있다. 하지만 동기가 같다고 두 사건이 하나의 생리적 또는 형이상학적 절차가 되지는 않는다. 같은 생애의 지속과 다른 생애의 시작에는 서로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 공통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과 연결된 채 남을 이유를 체험했다는 점뿐이다.

이 구분은 «아직 이르다»는 말에도 중요하다. 현재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다. 그 삶이 끝나면 반드시 다음 삶을 선택한다는 결론은 따르지 않는다. 소생술 뒤의 귀환으로 끝나는 이야기는 이후의 순환을 관찰 밖에 남긴다. 이를 채우려면 출처가 바뀌었음을 명시하고 다른 출처를 사용해야 한다.



그림 16. 귀환의 두 갈래. 도식은 이전 생애의 지속과 새로운 생애와의 가정된 연결을 구분한다. 각 갈래에는 고유한 증언과 검증 방법이 필요하다.

계획과 열린 미래

조건을 미리 선택했다고 가정하면 이후 삶의 자유라는 질문이 생긴다. 여러 모형이 가능하다. 하나에서는 초기 조건만 정한다. 다른 모형에서는 겪을 법한 어려움을 고르지만 대응은 열려 있다. 셋째에서는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미리 고정한다. 설명하기 편하다고 이 모형들을 슬쩍 바꾸어서는 안 된다. 예측과 기억에 서로 다른 요구를 하기 때문이다.

가능성 있는 갈래에 관한 것이라면 구체적인 사건과의 불일치가 허용될 수 있지만 예지의 검증은 더 어려워진다. 변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주장한다면 예측 오류의 의미가 커진다. 가설이 어떤 결과에도 자유롭게 맞추어질수록 그 결과가 가설의 옳음에 관해 알려 주는 것은 줄어든다.

기록 시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어려움을 이전에 선택했다는 설명은 그 어려움을 이미 안 뒤에 나온다. 삶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방식일 수는 있다. 하지만 예측을 입증하려면 사건 전에 존재했고 충분히 구체적인 정보를 담은 글이 필요하다. 나중에 자기 운명을 알아본다는 느낌이 그런 글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고통을 미리 선택했다는 가정은 특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자신의 동의에 관한 이야기로 다른 사람의 동의에 접근할 수는 없다. 더구나 질병, 폭력, 재난이 피해자에게 필요했다고 확립하지도 않는다. 사전 선택의 가상 모형에서도 가한 위해에 대한 지상의 책임과 고통을 줄일 가능성은 남는다.

학습의 동기가 모든 어려움을 자동으로 유익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학습을 말하려면 무엇이 달라졌고 그 변화가 어떻게 유지되는지 정해야 한다. 결과를 완전히 잊는다면 획득한 성질을 담는 다른 담지체를 가정하게 된다. 성향이나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이 남는다면 이를 현재 삶의 특성과 어떻게 구별할지 보여야 한다. 이는 이미 인격의 연속성이라는 질문이며 나중에 돌아올 것이다.

이처럼 이야기에서는 바람, 제안, 제한, 동의, 배정을 서로 다른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명확한 결정으로 모이고, 다른 경우에는 갈등이나 끝내지 못한 선택이 남는다. 이후 출생이 서사를 마무리하지만 불확실성을 없애지는 않는다. 정확히 무엇이 이 경계를 넘었는지 이해하려면 삶의 시작에 대한 기억을 살펴보아야 한다.

제9장 출생 이전의 기억

현재의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출생 전 상태의 기억이 반드시 또 하나의 지상 생애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어머니의 선택, 기다림, 자궁 안의 비좁음, 출산 뒤 첫 감각을 기술하면서 앞선 죽음은 전혀 말하지 않을 수 있다. 당사자에게는 자기 이야기의 시작이다. 연구자에게는 가정된 순서 안에 또 하나의 삶이 있었는가라는 열린 질문을 남긴다.

기억의 대상을 이전 생애, 생애들 사이의 구간, 자궁 안의 상태, 출생이라는 네 가지로 구분하면 의미가 있다. 연결될 수 있지만 하나가 있다고 나머지가 확립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목소리를 언급한다고 가족을 선택했다는 주장까지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을 고르는 장면은 기억하는 어떤 신체 감각보다 훨씬 전에 끝날 수 있다.



그림 17. 기억의 네 대상. 이전 생애, 가정된 중간 구간, 자궁 안의 상태, 출생을 나누어 제시했다. 이 범주들은 함께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가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오카도와 이케가와의 연구는 삶들 사이의 가정된 상태를 보고한 아동 21명을 다룬다. 13명은 면담했고 여덟 명은 어머니의 설문을 사용했다. 과거 삶을 이야기하지 않은 아이가 많았다. 한 어머니의 보고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개와 함께 있는 어머니를 보았다는 딸의 말이 담겼다. 대조는 어머니의 기억에 근거한다. 어머니는 아이가 사건의 사진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조 전에 남긴 아이 발언의 독립 기록은 제시되지 않았다. [41]

이 장면에는 부모 생애의 사건이라는 외부 근거가 있지만, 관찰자가 있었다고 가정하는 위치는 별도 주장으로 남는다. 드레스와 개가 확인되더라도 아이가 사진에서 무엇을 보거나 가족에게 무엇을 들을 수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 구체적 세부사항의 확인과 출생 전 지각의 확인에는 다른 검증이 필요하다.

몸으로 느끼는 세계가 돌아오다

메이는 얼굴이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존재의 도움으로 삶을 선택했다고 기술한다. 미래의 삶은 구멍 같은 것을 통해 보이지만, 그녀는 그것을 화면이라고 직접 부르지 않는다. 흰빛은 거의 만질 수 있으며 감정을 전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이어서 따뜻함, 밀도와 비좁음, 태어날 때의 강한 빛과 어머니의 목소리가 나온다. 나중의 진술에서 생각하는 주체는 영아의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지혜롭다고 자신을 느끼며 언어가 없어서 답답해한다. 이미 익숙하다고 여기는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한다. 이 기억의 초기 기록은 없다. [42]

이 기술은 자기의 두 규모를 연결한다. 하나는 몸과 그 제한에 연결된다. 움직이기 어렵고 말할 수 없으며 감각이 낯설다. 다른 하나는 이미 존재하는 이해와 평가의 능력으로 제시된다. 이야기를 내적 구조의 수준에서 받아들인다면, 출생은 관찰자가 보존된다고 가정하는 가운데 표현 수단이 제한되는 일이 된다.



그림 18. 신체 감각의 귀환. 메이의 후일 체험담에 나오는 따뜻함과 비좁음, 강렬한 빛과 어머니의 가까운 존재. 예술적 구성은 감각의 순서를 전달하며 장면의 세부 사항은 가정한 것이다. [42]

그러나 체험한 감각과 성인이 되어 붙인 이름 사이에는 거리가 남는다. 자궁, 선택, 동의, 들숨이라는 말은 초기 이미지에 나중의 개념을 붙인 것일 수 있다. 그렇다고 이미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질문은 달라진다. 당사자가 직접적인 내용으로 기억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이며, 순서와 가족의 설명과 현재의 지식으로부터 추론하는 것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기술은 특히 유용하다. 특정 순간에 어디 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을 완전히 알았다고 부여할 수는 없다. 나중에 장면을 알아본 일은 그 시간 표지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완전한 이른 단편이 출생 과정 전체의 상세한 기록으로 슬며시 바뀐다.

빌 D는 기다림, 줄, 몸에 들어갈 준비가 된 이들을 모으는 강하고 형체 없는 존재감을 기억한다. 통상적 시각과 소리는 없고 타인의 위치와 감정은 직접 지각된다. 기억을 보존하려 하며 자신의 전략적 계획도 기술한다. 강력한 존재 곁에서 작게 느끼지만 계속 추론하고 행동한다. 이어 밀침, 힘든 첫 호흡, 차가운 체중계가 나타난다. 하지만 자궁 안의 위치를 이해하지 못했고 더 이른 과거도 모른다고 한다. 당사자조차 다시 태어남을 유일한 필연적 결론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43]

이 경우 의도의 보존은 가정된 지식의 완전성보다 중요하다. 계속 기억하려는 목적을 통해 인격을 알아본다. 그러나 기억을 지웠다는 주장에는 한 단계가 더 있다. 기억에는 공백이 있을 수 있지만, 공백 자체는 왜 기억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는지 보여 주지 않는다. 외부의 기억 소거 기제를 결론 내리려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경로에서 빠진 모든 부분을 그 기제로 자동 설명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의 증언에 나타난 전환과 머무름과 귀환

샤르마와 터커는 버마 사례 35건의 분석에서 보고를 세 묶음으로 나누었다. 죽음 뒤의 전이, 비교적 안정된 머무름, 부모 선택이나 수정과 연결되는 귀환이다. 출처에는 지상의 장소, 의무, 편안함과 불편함, 스스로 가족을 향함, 상위 존재의 도움이 나왔다. 한 기술에서는 다른 존재들이 화자에게 물건을 던졌다. 다른 기술에서는 필요가 충족되어 머무름을 즐겁게 느꼈다.

저자들은 버마 자료가 불완전하게 부호화되었으며 일부는 삶들 사이의 기억이 있다는 이유로 선택되었다고 따로 경고했다. 따라서 발생 비율을 계산하는 대표 자료로 볼 수는 없다. [44]

이 도식의 의미는 특정 종류의 기록에서 순서를 추출한다는 데 있다. 하지만 넓은 세 범주만으로는 각 사례에 어떤 상태가 필수인지 알 수 없다. «머무름»에는 장소에 관한 상세한 기술과 나무 곁에 있었다는 짧은 말이 함께 들어갈 수 있다. 부호가 같아도 정보의 충실도는 다르다.

외적 특징과 내적 특징에도 마찬가지다. 아는 장소라고 지속시간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상위 존재에 대한 보고가 소통 방식을 확립하지는 않는다. 다음 가족을 가리킨다고 자유롭게 선택했는지 설명되지는 않는다. 처음 연구자가 이 질문들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이야기와의 유사성만으로 없는 정보를 복원할 수는 없다.

매틀록과 기슬러페테르센은 발표된 85개 사례를 비교하여, 검토한 다섯 단계 중 세 단계보다 많이 포함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지적했다. 자료에는 아시아와 서구의 기술에서 나타나는 지상 환경과 비지상 환경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저자들은 일부 사례에 대해 환생이라는 설명을 미리 받아들인다. 이 전제는 비교 자체의 결과가 아니다. [45]

하나로 묶은 순서는 어느 출처도 전체를 거치지 않더라도 연속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때 지도는 개별 단편들과 일반 가설의 양립 가능성을 보여 준다. 단일 여정이라는 주장으로 나아가려면 실제로 같은 상태들이 연결되는지, 그 사이 구간을 가정으로 채우지 않았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아이의 목소리와 기록의 이력

오카도의 연구에서 토모는 현재의 자기와 이전의 영국 소년을 구분한다. 미끄럼틀이나 에스컬레이터에 비유한 모습을 통한 전이를 기술하고 강한 몸의 선택을 말한다. 상당한 정보가 어머니의 일기에 보존되었지만 연구 면담 때에는 많은 세부사항이 이미 사라졌다. 가정된 이전 인격은 찾지 못했다. 이전 어머니의 모습과 만나고 싶은 마음은 일부 세부사항보다

오래 남았다. 따라서 이용 가능한 정보의 감소가 정서적 연결의 즉각적 소멸과 같지는 않았다. [46]

이 사례에서는 일기로 시간에 따른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응답이 다른 것보다 먼저 나왔는지 보여 준다. 생애가 확인되지 않아도 기억의 변화를 연구하는 데 유용한 문서다. 이후 재구성의 가능성도 제한한다. 알려진 이른 주장을 더 편리한 버전으로 몰래 바꿀 수는 없다.

아동의 나이 자체가 이야기를 영향에서 자유롭게 만들지는 않지만 내용을 설명해 주지도 않는다. 가족 대화, 여행, 이미지, 어른의 질문이라는 구체적인 정보 접근 이력이 필요하다. 연구자는 양쪽으로 틀릴 가능성을 모두 유지해야 한다. 일치를 너무 빨리 인정하면 통상 경로를 검증하지 않게 되고, 상상이라고 너무 빨리 설명하면 앎의 가능한 출처를 찾는 일을 중단하게 된다.

스티븐슨과 사마라라트네의 투시타 실바에 관한 출판물에는 태어나기 전에 현재의 아버지를 순례 장소에서 보았다는 보고가 있다. 생애 관련 주장에는 이른 목록이 있었지만, 삶들 사이에 관한 바로 그 말이 기록의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는 완전히 분명하지 않다. 논문은 틀린 정보도 보존한다. [47]

이 예는 문서 날짜가 개별 주장 수준에서 중요한 이유를 보여 준다. 사례 전체의 이른 기록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발표한 모든 세부사항이 처음부터 그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야기는 일부 결론을 강화하면서 다른 결론은 독립적 근거 없이 남길 수 있다. 사례의 전반적인 평판이 구체적인 단편의 검증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경계를 넘어 무엇이 이어져야 하는가

인격의 지속을 가정한다면 정확히 무엇이 지속되는지 정해야 한다. 생애 정보, 특유의 선호, 관계, 기술, 익숙함, 체험 능력이 가능하다. 이런 특징은 검증 방법이 서로 다르다. 이전 장소의 이름은 문서와 대조할 수 있다. 이전 집이라는 느낌에 대해서는 우선 기억의 출처에 대한 현재의 확신과 어떻게 다른지 기술해야 한다.

자기의식의 연속성에도 여러 의미가 있다. 하나는 체험되는 단절이 없다는 것, 다른 하나는 단절 전에 같은 주체가 있었다는 믿음, 셋째는 단절 뒤에 특정 정보가 보존된다는 것이다. 셋째가 있다고 첫째가 자동으로 따르지는 않는다. 전이를 전혀 기억하지 않으면서 과거 정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삶을 기억함»과 «전체 경로를 기억함»은 별도 범주로 남아야 한다.

이 부분에서 출생 자체는 이야기의 경계이지 의식이 결합하는 미리 확정된 지점이 아니다. 어떤 출처는 선택을 수정 전으로 놓고, 다른 출처는 더 나중에 몸에 들어감을 기술하며, 또 다른 출처는 이미 신체 장면에서 시작한다. 하나의 날짜로 통일하려면 추가 가정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사례마다 고유한 순서를 보존해야 한다.

출생 뒤에는 또 하나의 역사, 겪은 일을 이야기하는 역사가 시작된다. 언어가 생기고 질문이 나오며 이용 가능한 개념이 바뀐다. 어느 시점에 정보가 처음 고정된다. 가정된 사건과 문서 사이에는 여러 해가 있을 수 있다. 다음 부에서는 이 거리를 넘어 무엇을 복원할 수 있는지, 지상 시간, 인격의 안정성,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살펴본다.

제III부 시간과 인격의 연속성

제10장 두 시간

사건의 달력

귀환 이야기를 들으면 곧 시간의 질문이 생긴다. 몸을 떠나 다른 곳에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머물렀는지 알고 싶다. 아이가 자신을 죽은 사람과 연결하면 두 삶 사이에 얼마가 지났는지라는 다른 질문이 생긴다.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다른 양에 관한 것이다. 첫째는 체험한 지속시간, 둘째는 지상 달력에서 사건들 사이의 간격이다. 이 양들을 연결하려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이야기의 설득력만으로 두 척도를 자동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지는 않는다.

한 사람의 사망일과 다른 사람의 출생일의 차이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결과의 의미는 가정에 달려 있다. 바로 그 이전 삶이 확인되었고, 두 생애 사이에 다른 가정된 존재를 빠뜨리지 않았으며, 출생이 화자가 기술한 전이 시점에 해당한다고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라도 미상이면 수치는 달력상의 의미를 유지하지만 삶들 사이에 머문 시간이라는 해석은 조건부로 남는다.

단순한 산술도 검산해야 한다. 크리슈나 라와트의 샨티 데비 논문에는 루그디의 죽음을 1925년 십월 4일, 샨티의 출생을 1926년 십이월 11일로 적었다. 저자는 간격을 일 년 십 개월 칠 일이라고 한다. 제시한 날짜로 계산하면 일 년 이 개월 칠 일, 즉 433일이다. 이는 출판물 내부의 오류다. 빨셈을 바로잡아도 날짜 자체가 독립적으로 확인된 문서가 되지는 않는다. 논문은 이야기를 다시 전하며, 사망과 출생의 원증명서는 여기서 제시하지 않는다. [48]

이 불일치는 이야기 전체의 특이함에 비하면 사소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수치들로 귀환 시점에 관한 관념이 만들어진다. 우연한 오자, 번역 오류, 잘못 적은 달이 가정된 규칙성을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시간의 검증은 일상적인

작업에서 시작한다. 각 날짜는 어디서 왔고 어느 문서에 나왔으며, 날짜의 일자는 얼마나 정확하고, 표와 본문은 어긋나지 않는가? 형이상학적 해석이 달력의 요건을 취소하지는 않는다.

지속 시간과 순서

주관적 시간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 사건의 순서를 기억하거나, 오래 기다렸다고 느끼거나, 체험 안에서 여러 해가 지났다고 알거나, 시간 부재의 인상만 남길 수 있다. 이를 한 칸에 적어서는 안 된다. 순서는 무엇이 앞이고 뒤였는지 답한다. 지속시간의 느낌은 일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알려 준다. 몇 년이라는 주장은 그 기간을 순차적으로 살아낸 기억이 없어도 체험 내용의 일부일 수 있다.



그림 19. 달력상의 시간과 주관적 시간. 도식은 외부의 시간 표지를 장면의 순서 및 지속감과 대조한다. 주관적 시간선에는 확립된 수치 척도가 없다.

라와트와 리바스의 출판물에서 샨티 데비는 시간에 관한 질문에 시간의 느낌이 없었고 지속시간을 평가할 수 없다고 답한다.

다른 대목에서는 기다림을 길었다고 한다. 두 표현은 양립한다. 수치 평가 없이도 체험에 순서와 기다림의 정서적 질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논문은 최면 면담의 기술을 포함하여 여러 해의 자료를 묶으므로 사건 직후 작성한 하나의 기록으로 볼 수는 없다. [49]

시간이 없었다는 말은 특히 조심스럽게 읽어야 한다. 시계가 없었거나, 지속시간에 관심을 잃었거나, 귀환 뒤 구간을 평가할 수 없거나, 동시성을 체험했다는 뜻일 수 있다. 가능성마다 다른 질문이 생긴다. 이야기에 대화, 결정, 이후의 전이가 있다면 화자가 장소를 시간 밖이라고 여겨도 이미 상태 사이의 구별이 있다. 이것이 체험을 반박하지는 않는다. 다만 «시간»이 여러 뜻으로 쓰이므로 물리 모형을 만들기 전에 구분해야 한다.

사고실험으로 차이를 볼 수 있다. 한 사람은 문 앞에서 오래 기다렸지만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한다. 다른 이는 백 년이 지났음을 즉시 알았다고 한다. 셋째는 수많은 개별 날을 기억한다. 세 경우 모두 오래 머물렀다는 강한 느낌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세한 순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셋째 이야기뿐이다. 그 경우에도 기억이 많은 날을 어떻게 표상하며 그 수를 확인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은 남는다. 셋에게 같은 지속시간을 대입하면 이야기 사이의 핵심 차이를 잃는다.

외부의 기준점

가정된 중간 구간의 기술에는 장례식, 친척의 대화, 몸 곁 사람들의 움직임 같은 지상 사건이 나온다. 출처를 검증했다면 시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은 특정 단편을 달력과 연결할 뿐, 이후의 장면 전체를 자동으로 측정하지 않는다. 알아볼 수 있는 장례식으로는 사건이 장례식과 어떤 시간 관계였는지 논의할 수 있지만, 이후 정원이나 어둠이나 낯선 공간에 머문 지속시간은 알 수 없다.

푸르니마 에카나야케의 연구에는 죽은 몸 곁의 며칠과 이후의 전이가 언급된다. 달력 검증에는 장애가 있다. 표는 죽음을 1985년 사월 9일로 적지만 본문은 같은 해 구월에 놓는다. 출생은 1987년 팔월 24일로 제시한다. 연구자는 가족들 접촉 전의 발언 원기록이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불일치가 해결되기

전에는 정확한 간격으로 주관적 시간의 속도를 추론할 수 없다. [50]

다른 오류 가능성도 있다. 당사자가 지상 사건의 시간을 나중에 알았을 수 있다. 돌아온 뒤 소생술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읽었다면 그 앎이 이후 이야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그곳에 일곱 분 있었다»는 말이 «의사들이 일곱 분이 지났다고 했다»는 뜻일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적 평가는 없다. 의료적 구간이 내부 시계로 둔갑하지 않도록 두 표현과 각각의 출처를 보존해야 한다.

어떻게 그 평가에 이르렀는지 물으면 유용하다. 시계를 보았는가, 반복 행동을 세었는가, 밤낮의 변화를 관찰했는가, 등장하는 존재에게 수치를 들었는가, 깨어난 뒤 추론했는가? 답으로 이야기 전체의 진실성을 정하지는 않지만 어떤 양을 비교하려 하는지는 이해할 수 있다. 때로는 지속시간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결과다. 이런 기록은 추가 연구의 가능성을 남기고 거짓 정밀도를 만들지 않는다.

빠진 연결 고리

한 사람이 여러 전생을 보고하는 경우는 특히 복잡하다. 스티븐슨이 기술한 스와른라타 사례에는 1939년에 사망한 비야와 1948년 삼월 2일에 태어난 스와른라타가 등장한다. 그런데 이야기에는 그 사이의 또 다른 가정된 삶,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캄레시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알려진 두 날짜 사이의 기간을 생애 사이에서 한 차례 머문 기간으로 확신할 수는 없다. [51]

같은 책의 자스비르 사례는 다르게 구성된다. 이전 삶의 주인공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아이가 태어난 뒤 약 삼 년 반이 지나 사망했다. 이야기는 전이를 이미 살아 있던 자스비르의 병과 연결하지만 병의 정확한 날짜는 확인되지 않았다. 몸의 출생일과 가정된 동일성의 변화는 서로 다른 사건이다. 출생과 죽음 사이의 차이가 음이라고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51]

짧은 간격만 따로 고른 연구도 있다. Matlock은 보고된 죽음이 출생보다 아홉 달 미만 앞선 출판 사례 36건을 검토했다. 이런

표본으로는 가정된 전이, 임신, 출생의 관계를 논의할 수 있다. 모든 보고에서 짧은 간격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보여 주지는 않으며, 그 자체로 몸에 결합하는 순간을 확립하지도 않는다. [52]

이 예들은 도식 자체에 중요한 수정을 준다. 끝의 표지가 수정, 임신 중의 특정 시점, 출생, 이후 자기동일시의 변화 등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연구자가 모든 이야기에 같은 표지를 미리 고르면 자신의 정의가 만든 규칙성을 얻을 위험이 있다. 사례마다 어느 사건인지 먼저 알아보고 비교 가능한 구간들끼리만 비교해야 한다. 첫 발언의 나이와 기록 날짜는 보고의 역사에 속한다. 화자의 특별한 주장이 없다면 가정된 전이의 순간으로 볼 수 없다.



그림 20. 시간 구간의 경계. 개략도는 수정, 출생, 보고된 정체성 전환을 구분한다. 최초 기록은 보고의 이력에 속하며, 그 날짜가 가정된 육화의 시점을 정해 주지는 않는다.

두 시간 척도의 비교

충분히 비교하려면 경계가 같은 두 구간이 필요하다. 외부 구간은 문서화된 사건에 연결되어야 한다. 내부 구간은 외부

결과를 듣기 전에 체험자 자신이 기술해야 한다. 기억이 그 전후 상태가 아니라 바로 그 기간에 관한 것인지도 알아야 한다. 어려운 조건들이지만, 개별적인 의료상의 몇 분과 몇 년의 이야기를 아직 보편적 비율로 묶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사고실험에서 두 사람이 독립적으로 오래 머물렀다고 기술하고, 의료 기록에는 반응 부재의 지속시간이 같다고 나온다고 하자. 이런 일치에도 여러 가능성이 남는다. 같은 시간을 다르게 평가했거나, 관찰 기간의 다른 구간에서 체험이 생겼거나, 나중에 체험에 더 긴 시간을 부여했을 수 있다. 구별하려면 순서의 세부사항과 이른 기록이 필요하다. 한 수를 다른 수로 나누기만 하면 이런 갈림길이 가려진다.

체험한 순간과 그 체험이 기억에서 복원된 순간도 구분해야 한다. 여러 해 뒤 처음 장면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 나중에 만들었다거나 변함없이 보존되었다는 어느 쪽도 확립되지 않는다. 첫 확신은 언제 생겼고 무엇을 먼저 기억했으며 이후 어떤 정보가 들어왔는가라는 별도 역사가 생긴다. 체험, 생애, 이야기에는 각각 고유한 연대기가 있다. 이를 연결하는 것이 연구 과제다.

이 한계를 인정해도 시간에 관해 연구할 내용은 남는다. 오히려 날짜의 수정, 오랜 기다림과 몇 년이라는 앎의 구분, 누락된 삶의 발견, 이른 보고의 확인이라는 구체적인 성과가 가능해진다. 여기서 다룬 이질적인 증언들로는 지상 지속시간과 주관적 지속시간 사이의 신뢰할 만한 공통 관계를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 문제는 정확히 누구의 시계를 비교하는가이다. 시간이 두 생애를 연결한다면 같은 존재의 생애라고 보는 근거를 이해해야 한다.

제11장 누가 계속 살아가는가

몸과 가정된 인격

삶의 지속이라는 질문은 흔히 지속의 뜻이 자명한 것처럼 제시된다. 그러나 심정지 후 체험담, 다른 가족에 대한 어린 시절 기억, 성인 정체성의 갑작스러운 전환은 인격 개념에 서로 다른 요건을 부과한다. 첫째 경우에는 자신의 생애로 돌아온다. 둘째 경우에는 다른 생애에 대한 주장이 나온다. 셋째 경우에는 몸의 이전 삶은 계속되지만 그 몸이 누구에게 속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뀐다. 일반 이론은 하나의 이름으로 차이를 지우지 말고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한다.

수미트라 사례는 문제를 특히 분명히 보여 준다. 원보고에 따르면 1968년 무렵 태어났다. 시바 트리파티는 1985년 오월에 사망했다. 같은 해 칠월 특이한 상태 뒤 수미트라는 자신을 시바와 동일시하기 시작했다. 수미트라가 죽었다는 의학적 확인은 없다. 두 가족이 만난 뒤 연구를 시작했고 죽음에 대한 신문 정보는 더 일찍 접할 수 있었다. 저자들은 한 차례 알아보는 과정에서 힌트가 주어졌고 사진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다른 정보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53]

여기서 전이를 새로 태어났다는 한 문장으로 기술할 수는 없다. 이야기의 설명에 따르면 이미 살아 있는 사람이 자기 이름, 가까운 이들, 과거와 맺는 관계가 달라졌다. 시바가 그대로 지속된다고 상상하면 이전 수미트라의 운명이라는 질문이 생긴다. 자기동일시의 심리적 변화를 가정하면 그 내용과 관련된 앎을 설명해야 한다. 둘 다 실질적인 문제 설정이지만 각각 고유한 관찰 묶음이 필요하다. 표현력 있는 용어를 골랐다고 불확실성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런 사례에서는 «죽음»조차 별도로 검증해야 한다. 가족은 움직이지 않음, 눈에 띄는 호흡의 부재, 죽었다는 확신을 기술할 수 있다. 이는 목격자들의 지각을 보여 준다. 의학적 주장에는 다른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람이 죽었고 다른 영혼이 몸을 차지했다»는 연결에는 적어도 두 가설이 있다. 몸의 상태에 관한

것과 새 동일성의 출처에 관한 것이다. 둘째 부분의 강한 인상이 첫째를 확인해 주지는 않는다.

확신과 지식과 동일성

세 개의 독립적인 주장을 구분할 수 있다. 자신을 특정 인격으로 지각한다. 그 인격의 삶에 관한 정보를 보고한다. 그 사람과 고인 사이에 동일성이 있어 하나의 지속되는 주체라는 주장이다. 첫째는 자기의식, 둘째는 정보, 셋째는 인격의 본성에 관한 것이다. 연결되어 있지만 하나에서 다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근거가 필요하다.

이리스 파르차디의 이야기는 자기동일시의 안정성만으로 검증이 끝나지 않는 이유를 보여 준다. 헝가리 소녀가 자신을 스페인 여성 루시아로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후 연구에서는 주장한 스페인 가족을 찾지 못했다. 상세한 출판물의 저자들은 설명에서 갈렸다. 빙의, 크립토므네시아를 동반한 해리, 미해결로 남길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이한 동일성이 오래 지속되는 일은 가정된 생애가 확인되지 않는 것과 양립했다. [54]

크립토므네시아는 이전에 습득한 내용이 출처를 알아보지 못한 채 떠올라 자신의 새로운 생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브라운과 머피는 참가자들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응답을 자기 것으로 삼는 과제에서 이 효과를 연구했다. [55] 용어 자체가 구체적인 사례의 정보 경로를 규명하는 일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읽은 책, 들은 대화, 이전의 만남을 설명의 전제로 삼는다면 그런 가정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잠재적인 가능성은 가능성으로, 찾아낸 정보 경로는 검증된 사실로 구분해야 한다.

반대 오류는 정보의 출처를 모른다는 이유로 곧바로 개인의 지속이 입증되었다고 선언할 때 생긴다. 사고실험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보 접근 경로 없이 다른 사람의 생애 사실을 정확히 열거한다고 하자. 이 조건이 충족되어도 정보의 획득과 주체 자체의 보존은 다르다. 기억 전달 가설, 다른 앎의 획득 방식에 관한 가설, 환생 가설은 한 예측에서 일치할 수 있다. 같은 사실을 다시 제시하는 대신 추가 귀결로 구별해야 한다.

이 추론이 특이한 정보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어떤 질문에 답할 수 있는지 구체화한다. 앎의 검증은 설명의 범위를 크게 좁힐 수 있다. 동일성을 확립하려면 정보의 일치가 두 마음의 내용이 같다는 것만이 아니라 체험하는 «나»의 지속을 가리키는 이유도 보여야 한다. 영혼의 가능한 길에 관한 책에서 이 경계는 특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생애 정보가 의식 이론 전체의 역할을 슬며시 맡기 때문이다.

새로운 말과 이전 생애

또 다른 강한 주제는 배운 적이 없다고 주장되는 언어로 말하는 현상이다. 이를 진성 이언이라 부른다. 기원을 논의하기 전에 무엇이 실제로 입증되었는지 정해야 한다. 몇 단어인지, 암기한 표현인지, 질문을 이해하는지, 유연하게 대화하는지, 원어민 수준의 언어 능력인지 구분해야 한다. 발음의 변화와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능력에는 서로 다른 검증이 필요하다. 그 언어를 모르는 청자는 이러한 성질의 일부만 평가할 수 있다.

우타라와 샤라다 사례의 언어학적 분석에서 사라 토머슨은 벵골어 말하기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보였다. 언어를 이전에 접했을 가능성을 검토했고, 한 전문가는 현대적이며 비원어민의 말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자료에서는 인상적인 언어 행동에서 구체적인 역사 인물에 대한 추론으로 나아갈 때 주의가 필요하다. 토머슨이 우선 분석한 것은 증언의 언어학적 증거력이며 그 한계 안에서 결론을 읽어야 한다. [56]

잘 수행한 언어 검사도 제한된 질문에 답한다. 말을 얼마나 자유롭게 이해하고 만들어 내는지 정할 수 있다. 언어 습득의 이력은 따로 검증한다. 자신이라고 여기는 역사 인물은 또 하나의 별도 과제다. 수준들을 섞으면 특이한 표현 하나가 언어, 기억, 새 의식 담지체를 한꺼번에 입증하는 데 쓰이기 시작한다. 반면 일관되게 구분하면 어느 단계에서 증거가 실제로 강해지는지 알아볼 수 있다.

검증 중 의사소통 방식도 중요하다. 평가자가 가정된 생애를 알고 있으면 그에 맞는 질문을 하고 모호한 답을 그 생애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 미리 받아들인 설명 때문에 특이한 답을 배제하는 반대 방향의 편향도 가능하다. 질문, 답, 평가

기준을 따로 기록하면 두 방향의 오류에서 연구를 보호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구자의 감정적 태도가 아니라, 다른 전문가가 검증 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느냐다.

여러 가지 가능한 이어짐

단순한 모형은 고인 한 명과 새 사람 한 명의 대응을 가정한다. 스티븐슨은 이그보족에서 한 고인이 여러 아이로 다시 태어났다고 여긴 보고들을 논의했다. 증거력이 고르지 않고 가족에게도 그런 귀속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같은 책에서 Ma Tan Tan Aye가 중간에 황소의 몸으로 존재했다는 주장은 검증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가설의 범위를 넓히지만 인격의 분할이나 생물 종 사이의 전이를 확립하지는 않는다. [57]

논리적으로 여러 후속 존재라는 가설은 하나의 후속 존재라는 가설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요구한다. 기억, 체험 능력, 성격 특성, 또는 그 모두 중 정확히 무엇이 나뉘는지 정해야 한다. 두 사람이 동일한 과거를 가졌다고 가정한다면 공통된 체험의 중심을 유지하는가? 결정이 서로 달라질 수 있는가? 어느 시점부터 별개의 주체가 되는가? 답이 없으면 «분리»는 관찰과 대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아니라 비유적 이미지를 가리킨다.

사고실험은 어려움을 더 뚜렷하게 보여 준다. 자전적 기억 하나의 정확한 사본 둘을 생각해 보자. 각각 과거를 확신하며 이전 사람의 지속이라고 자신을 인정한다. 서로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인상을 다르게 얻으면 현재의 관점은 갈라진다. 같은 기억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쪽이 이전 주체인지, 여기에 단 하나의 답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정해지지는 않는다. 이는 구체적인 환생 이야기를 논의하기 전부터 생기는 철학적 과제다.



그림 21. 같은 기억과 서로 다른 관점. 사고 실험의 예시다. 두 인물은 자서전적 기억이 같지만 서로 다른 새로운 인상을 받는다. 기억의 일치만으로는 주체의 동일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반대로 기억이 없다고 질문에 부정적인 답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기억으로 개인의 연속성을 정의할 수 있지만 기억 상실 사례에는 추가 조건이 필요하다. 몸에 근거할 수도 있지만 그런 모형은 다른 몸에 대한 이야기를 다르게 읽는다. 접근 가능한 생애 정보와 무관한 안정된 체험 담지체를 가정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관찰 가능한 특징으로 이를 알아보는지 설명해야 한다. 정의마다 귀결이 있으므로 선택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 차이를 연구할 수 있게 만드는 법

여기서 미래 이론의 과제가 생긴다. 첫 모형은 이전 주체의 지속 없이 정보가 전달된다고, 둘째는 같은 주체가 지속된다고 가정하자. 이용 가능한 모든 조건에서 둘이 같은 응답을 예측하면 생애 정보의 추가 일치로 선택할 수는 없다. 이는 모형의 관찰상 구별 가능성에 관한 것이며 철학적 질문이 이미 해결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더 나아가려면 각 모형에 가정된 담지체, 기억, 행동 사이의 고유한 연결 법칙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귀결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여러 동시적 지속이나 기술과 구체적인 의도의 공동 보존에 대한 제한이다. 편리한 사례를 본 뒤 제한을 골라서는 안 된다. 먼저 모형의 구성에서 검증 가능한 귀결을 도출하고 이어 적합한 자료를 찾거나 모은다. 이 책은 이를 연구 과제로 제안한다. 주체의 수적 동일성을 직접 측정하는 확립된 방법은 여기에 없다.

지속되는 나

이야기를 분석하려면 인격의 여러 구성요소를 잠시 나란히 두면 유용하다. 존재의 느낌이 유지되는가? 자기 지상 생애를 알아보는가? 관계와 의무를 기억하는가? 자신의 상태를 성찰할 수 있는가? 결정을 내린 주체라는 느낌이 있는가? 모두가 동시에 바뀔 필요는 없다. 따라서 «나»가 보존되었다는 주장은 화자가 정확히 무엇을 그 «나»에 포함하는지의 설명과 함께 있어야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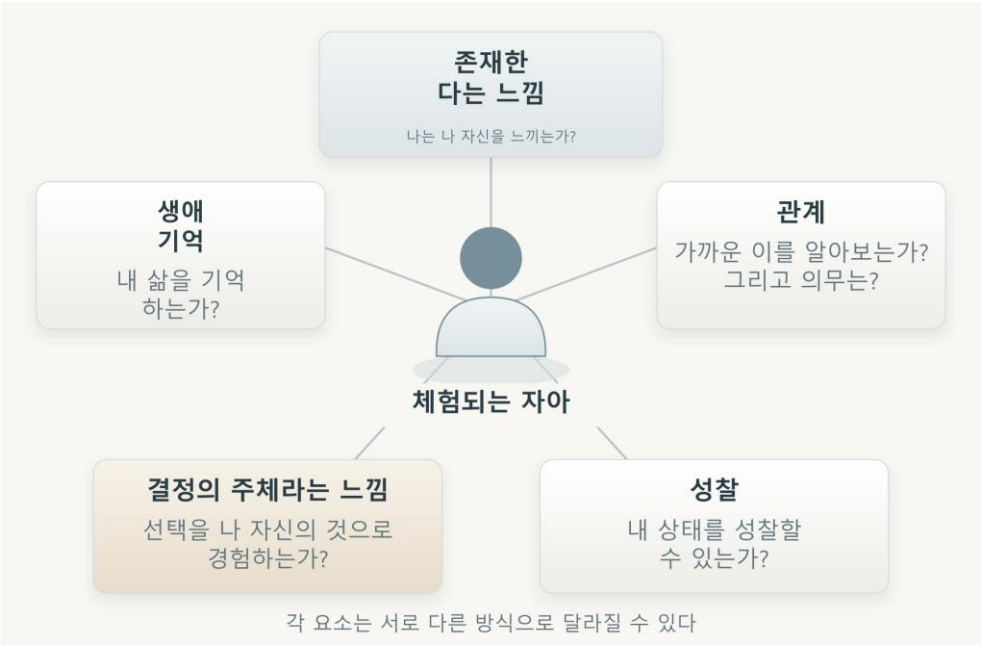


그림 22. 지속되는 나의 구성 요소. 작업용 도식은 존재감, 생애 기억, 관계, 결정의 주체성, 성찰을 구분한다. 이 특징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변할 수 있다.

퀄리아, 즉 체험되는 상태의 질은 질문의 다른 측면을 살펴보게 한다. 색, 아픔, 평온, 접촉에 관한 이야기는 체험이 안에서 어떻게 기억되는지 보여 준다. 현재 생애 밖에서 그 담지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완성된 답을 담고 있지는 않다. 자기의식은 체험에 대한 관계를 더한다. 일어나는 일을 자기 것으로 알아차리는 것이다. 성찰은 그 관계를 평가하게 한다. 감각의 생생함이 개인 연속성의 확립을 대신하지 않도록 분석에서 이 차이들을 보존해야 한다.

자스비르 사례에는 특히 날카로운 질문이 남는다. 이후의 동일성이 외부에서 왔다고 본다면 이전의 «자스비르인 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스티븐슨 자신도 명확한 답이 없었다. 다른 세부사항이 연구자의 관심을 끌어도 이야기의 이 미해명 부분은 드러나 있어야 한다. [51]

따라서 삶의 지속 지도는 장소 사이의 전이뿐 아니라 자신을 알아보는 이의 변화도 보여야 한다. 한 지점에서는 완전한 기억을 가진 이전 사람을, 다른 지점에서는 이름 없는 주체를, 셋째에서는 과거의 일부 단편이 있는 새 생애를 다룰 수 있다. 이런 상태들 사이에 동일성의 선을 말없이 그어서는 안 된다. 설명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선이다. 다음 증언 묶음은 과제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계속 살아 있는 다른 사람이 고인을 알아보는 경우다.

제12장 꿈속의 만남과 공유 체험

만남에서 누구의 관점에 접근할 수 있는가

고인과의 만남 이야기는 직접 관찰에 특히 가까워 보인다. 아는 사람이 특정한 모습으로 나타나 말하거나 손을 만지거나 잘 지낸다고 알린다. 하지만 연구자가 얻는 것은 살아 있는 참여자의 증언이다. 가정된 고인 쪽에는 이 체험의 내용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이 단순한 구분으로 만남의 세부사항을 보존하면서도 하나하나를 다른 세계의 구조에 관한 독립 보고로 바꾸지 않을 수 있다.

Wright와 공동저자들은 호스피스 환자를 돌본 뒤 사별한 사람들의 설문에서 고인의 건강과 평온, 메시지, 공동 기억, 질병과 죽음이라는 꿈의 주제를 찾았다. 꿈은 즐겁거나 불쾌하거나 둘이 섞일 수 있었다. 연구는 애도하는 사람들의 체험을 다루었으며, 꿈에 등장하는 존재의 주관적 존재 지속시간을 측정하지 않았다. [58]

가능한 사후 여정의 지도에서는 꿈을 꾼 시점만으로 모습을 단계에 배치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장례 뒤 여러 해가 지나 친척을 보았다면 알려진 것은 꿈꾼 사람의 삶에서 지난 간격이다. 친척이 주관적으로 같은 세월을 기다렸거나 내내 한곳에 있었다는 결론은 따르지 않는다. 꿈에 특정 날짜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출처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그런 만남이 환생과 양립하는가라는 질문도 생긴다. 사고실험에서 한 고인이 새로 태어났다고 여겨지는데 다른 사람이 이후 그 고인이 나오는 꿈을 보고한다고 하자. 모순은 새로운 출생이 이전의 모든 발현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추가 조건이 있을 때만 생긴다. 원래 가설에 이 규칙이 없다면 꿈을 환생의 반박으로도 확인으로도 볼 수 없다. 다만 두 이야기를 연결하려고 어떤 새 규칙을 더해야 하는지는 볼 수 있다.

살아 있는 사람의 마지막 날들

환자 자신의 임종기 꿈과 환시는 별도 집단을 이룬다. Kerr와 공동저자들의 종단 연구에서는 호스피스 환자 59명을 분석했고, 52명이 삶의 끝과 관련된 꿈이나 환시를 보고했다. 그 모습들에는 고인, 살아 있는 사람, 일상 장면이 포함되었다. 52명 모두가 고인을 보았다는 뜻은 아니다. 면담은 반복했고, 시간은 이후 환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표시했다. [59]

가정 호스피스 연구에서 Depner와 공동저자들도 친밀함과 지지, 중립적 또는 갈등적인 상호작용, 일상 활동, 수송, 익숙한 대중문화 이미지라는 다양한 내용을 발견했다. 한 참여자의 보고가 반복될 수 있었다. 따라서 기록한 체험 수와 사람 수는 다르다. 일상 장면이 있다고 자동으로 특별한 사후 범주가 되는 것도 아니다. [60]

이런 관찰에서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가치 있다. 하지만 무엇이 변하는지 알아야 한다. 꿈의 내용, 보고 빈도, 환자 상태, 대화 능력, 연구자가 사건을 포함할 의향 중 무엇인가? 더 이상 답할 수 없다면 새 면담에 없다는 것이 체험의 부재와 같지는 않다. 연구자는 이용 가능한 자료의 경계에 부딪히며,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정하여 이를 채울 수는 없다.

같은 장면도 정서적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아는 고인을 보았다고 편안해졌다는 뜻은 아니다. 뎀의 인도 연구에서는 다정한 모습이더라도 죽었다고 아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두려워한 참여자들이 있었다. 따라서 위안을 이런 체험의 필수 성질로 볼 수 없다. 동시에 상황과 표본이 달라 결과를 국적이나 종교만으로 설명할 수도 없다. [61]

따라서 내용과 그에 대한 반응을 따로 기술하면 유용하다. 누가 나타났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만남 중 무엇을 느꼈는가? 깨어나거나 통상적 소통으로 돌아온 뒤 어떻게 평가했는가? 답은 모순 없이 달라질 수 있다. 처음에는 두려웠다가 나중에는 지지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 이후 위안의 의미가 처음 상태와 반드시 같지는 않으므로 체험의 복원에는 두 시점이 모두 중요하다.



그림 23. 누가 만남을 체험하는가. 왼쪽에는 사별 후의 꿈을, 오른쪽에는 생애 말기의 환자가 겪는 체험을 나타냈다. 저자의 구성은 보고가 나오는 두 맥락을 나누고, 누구의 경험 측면을 연구할 수 있는지 보여 준다.

아직 전해지지 않은 소식

검증에 가장 큰 관심을 일으키는 것은 사망 소식을 듣기 전의 만남 보고다. 이른 기록과 대조할 수 있는 외부 사실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몰랐던 죽음, 몰랐던 질병, 몰랐던 위험을 구분해야 한다. 친척의 위중함을 오래전부터 알았다면 어떤 사전 정보도 없을 때와 일치의 조건이 다르다. 두 이야기 모두 체험자에게 의미 있을 수 있지만 연구 구조는 다르다.

도리스의 역사적 사례는 윌리엄 배럿이 발표했다. 편지들에 따르면 가족은 임종 중인 도리스에게 자매 비다의 죽음을 숨겼다. 하지만 의사 플로런스 배럿은 비다가 나오는 사건 전에 떠났다. 그 부분은 다른 참석자들이 기술했다. 소식을 숨긴 조치는 가족이 보고한 것이며 통제된 정보 차단은 아니다. 웹 전사본으로 증언의 차이를 복원할 수 있지만 원고와 의료 문서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62]

Haraldsson의 연구에서 다른 화자는 마르그레트의 출현을 03:30을 가리킨 시계와 연결했다. 아내는 남편이 사망 소식 전에

아침에 만남을 이야기했다고 나중에 확인했다. 이런 순서는 혼자 뒤늦게 한 기억보다 더 흥미롭다. 하지만 이른 서면 기록과 분 단위의 정확한 일치에 대한 독립 확인은 제시되지 않았다. [63]

강한 검증은 첫 보고의 내용, 기록 시점, 그전에 이용 가능한 정보, 독립적으로 확인된 외부 사건이라는 네 요소를 함께 유지해야 한다. 하나가 없어도 나머지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허용되는 추론의 범위는 좁아진다. 사망 확인은 사망을 입증한다. 아침 이야기의 확인은 특정 소식 전에 이야기가 있었음을 확립한다. 세부사항의 일치에는 별도 검증이 필요하다. 무엇을 확인했는지 밝히지 않고 «확인됨»이라고 하면 자료가 허용하는 것보다 큰 확신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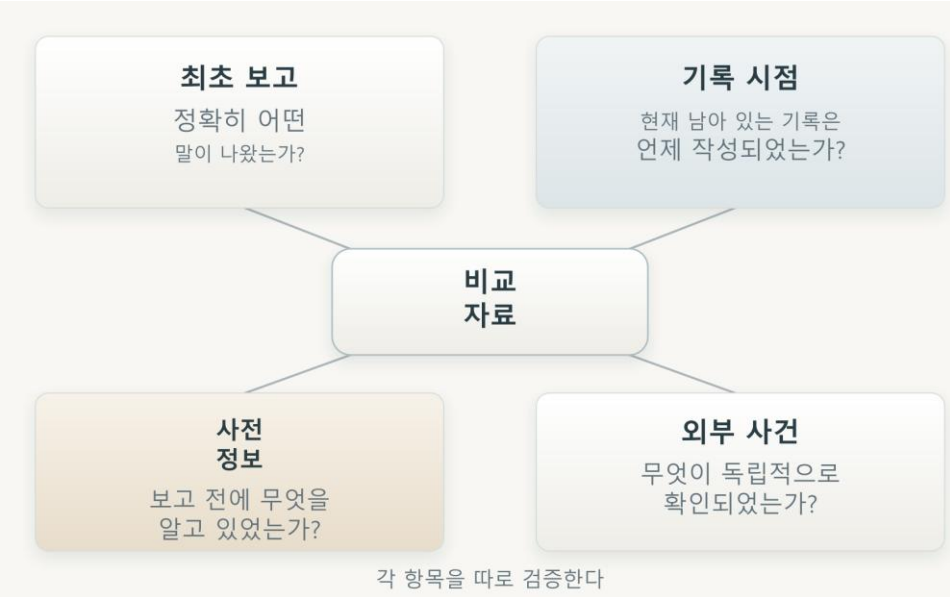


그림 24. 일치가 정확히 무엇을 뒷받침하는가. 도식은 검증의 네 요소를 결합한다. 최초 보고, 기록 시각, 미리 알고 있던 정보, 독립적으로 확인한 사건이다. 각 요소에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기록해야 한다. 사고실험에서 누군가 아는 이들에 대한 꿈을 많이 적지만 슬픈 소식이 뒤따른 꿈만 논의한다고 하자. 이 이야기의 아주 가까운 일치도 미리 명시한 단 한 번의 보고와는 다르게 평가한다. 관찰을 우연과 비교하려면 가능성의 범위를 알아야 한다. 꿈, 사람, 들어맞는

사건, 허용 시간 구간이 각각 얼마나 있었는가? 이는 검증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며 당사자의 진실성에 관한 것이 아니다.

함께한 경험과 독립성

shared death experience라는 명칭은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세계를 관찰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Shared Crossing Research Initiative 연구에서는 107명의 참여자가 164건의 체험을 보고했다. 이 용어는 한 화자가 죽어 가는 사람과 동행한다고 느낀 경우도 포함했다. 모든 에피소드에 독립적으로 기록한 두 증인이 요구된 것은 아니다. 이 프로젝트의 두 발표물은 같은 원표본을 사용하므로 독립적인 자료 집합으로 합산할 수 없다. [64]

Tressoldi와 공동저자들의 문화 간 설문에는 121명이 참여하여 146사례를 기술했다. 정의에는 다른 사람의 죽음 전, 도중, 이후의 체험이 포함되었다. 이용 가능한 저자 프리프린트에서는 같은 사람과 관련해 여러 시점을 다룰 때 «이전» 범주를 우선했다. 따라서 시간 분포는 부호화 담당자의 결정에도 달려 있다. 이 연구가 모든 일치를 전향적으로 의학 검증한 것은 아니다. [65]

함께함에는 적어도 네 정도가 있다. 한 사람이 임종자 곁에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여러 사람이 한 사건을 말할 수 있다. 논의 뒤의 이야기들이 일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 교환 전의 분리된 기록을 얻을 수 있다. 모두 «함께»라는 말이 있다고 같은 단계에 놓을 수는 없다. 공통 정보 출처를 검증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경우다.

Haraldsson은 두 번째 목격자에 대한 보고를 검증했다. 주장된 공동 관찰 39건 가운데 21건은 나중에 확인되었고, 6건은 불명확했으며, 3건은 기억이 없거나 확인에 참여하지 않았다. 목격자 9명에게는 접근할 수 없었다. 이 결과는 후속 검증의 가치를 보여 주지만 최초 기술들의 독립성을 확립하지는 않는다. [63]

오래된 이야기에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기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늦은 면담으로 불일치를 발견하거나 이른 대화가 있었음을 확인하거나 상황을 구체화할

수 있다. 보통은 목격자들이 소통하기 전의 잃어버린 기록을 되살릴 수 없다. 본 일을 즉시 함께 논의했다면 이후의 일치도 그 사실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목격자가 별개의 개인이라는 것과 정보가 독립적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성질이다.

체험한 만남의 의미

문화적 해석은 꿈의 의미를 바꿀 수 있다. Hinton과 공동저자들이 외상을 겪은 캄보디아 난민들을 연구했을 때, 고인에 관한 계속되는 꿈을 환생에 어려움이 있다는 징후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는 집단적 폭력을 겪은 임상 집단이다. 특성을 모든 불교도나 모든 사별자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다. [66]

연구 범주 자체도 검증해야 한다. Black과 공동저자들의 연구에서 꿈을 즐거운 «저세상에서의 방문»으로 분류할 때 평가자들의 일치는 더 구체적인 신체적 애정 표현을 부호화할 때보다 약했다. 겉으로 이해하기 쉬운 영적 명칭도 평가자들의 서로 다른 결정을 숨길 수 있다는 뜻이다. 범주가 사건의 가정된 본성에 가까울수록 어떤 특징으로 분류하는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하다. [67]

그 모습의 출처가 확인되었는지와 무관하게 당사자에게 만남은 의미를 유지할 수 있다. 정서적 결과와 외부 정보의 전달은 다른 질문이다. 위안이 꿈 세계의 객관성을 입증해야 한다거나 출처의 불확실성이 체험의 가치를 없애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으면서 둘 다 진지하게 연구할 수 있다. 이런 접근은 당사자의 모든 체험에 미리 판정을 내리지 않고 증언을 논의하도록 돕는다.

전체 지도에는 중요한 결과가 남는다. 꿈, 임종기 환시, 동행자의 이야기는 만남, 알아봄, 소통의 다른 형태들을 준다. 비교 자료를 넓히지만 고인의 연대기를 직접 기록한 것은 아니다. 별도의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 고인의 모습을 만날 때 살아 있는 사람이 무엇을 체험하는지에 관한 정보이며, 때로는 몰랐던 정보를 얻었다는 주장이다. 둘째 주장의 검증은 만남의 생생함을 기술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시작된다.

제IV부 가능한 설명

제13장 의식과 뇌와 설명의 한계

기제에 요구되는 것

특이한 이야기들을 접하면 하나의 설명을 얻고 싶어진다. 몸에서의 이탈, 생각의 명료함, 만남, 빛, 시간 변화, 일어나는 일의 실재성에 대한 확신을 연결하는 설명이다. 하지만 먼저 각 특성을 따로 설명하는지, 한 사람에게 나타난 조합을 설명하는지, 공통 서사 경로의 기원을 설명하는지 정해야 한다. 한 질문에 답했다고 나머지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의식 연구에서 엄밀한 의미의 신경 상관물은 특정한 의식적 체험에 공동으로 충분한 최소 신경 메커니즘들을 뜻한다. 개별 EEG 지표는 이 메커니즘의 표지 후보일 수 있다. 하지만 보고와의 통계적 연관만으로 전체 메커니즘이 확립되지는 않는다. [84] 인과적 설명에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 조건의 변화가 관심 있는 체험의 성질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보여야 한다. 또 다른 단계는 왜 바로 이 내용이 생기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상태의 변화, 구체적인 이미지의 출현, 그 의미에 대한 이후의 믿음은 서로 다른 분석 수준을 요구할 수 있다.

가상의 연구 상황을 생각해 보자. 특정한 개입을 하면 사람들이 특이한 신체 관점을 더 자주 보고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자. 이미 실질적인 결과다. 하지만 한 사람은 병실을 보고, 다른 이는 어둠 속 이동을 기술하며, 또 다른 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까지 알려 주지는 않는다. 일반적 가능성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로 나아가려면 추가 조건, 사건 순서, 기억 형성의 자료가 필요하다.

외부 세계나 의식의 지속을 통한 설명도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 다른 수준의 현실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만으로는 왜 한 사람에게 한 장면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장면이 주어지며 정보가 바로 그 형태로 남는지 설명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모형은 체험의 발생 조건과 예상이 틀렸다고 드러날 관찰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야기를 더 일반적인 말로 되풀이할 뿐이다.

증언 없는 뇌 기록

Vicente와 공동저자들의 2022년 연구는 심한 뇌 손상과 발작이 있던 87세 환자의 EEG를 분석했다. 기록의 특정 구간에서 절대 감마 파워가 심정지 전에 높아지고 그 뒤에는 낮아졌다. 감마 활동의 상대적 비중은 다른 변화를 보였다. 환자는 사망했다. 체험 내용을 보고할 수 없었으므로, 생애 회고가 있었을 가능성은 생리 자료의 해석에서 제안되었다. [68]

Xu와 동료들은 2023년에 죽어 가는 환자 네 명의 기록을 연구했다. 두 명에게서 인공호흡 지원을 중단한 뒤 감마 활동의 증가와 연결성 변화가 관찰되었다. 아무도 생존하지 못했고, 누구도 이 시기에 관한 체험담을 남기지 않았다. 저자들 스스로 이 결과가 의식적 처리의 존재를 확립하지 않으며 병리적 과정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69]

이런 연구를 읽을 때 전기 활동을 구체적인 장면의 번역으로 바꾸지 않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 주파수 대역의 이름은 기억, 사랑의 느낌, 친척과의 만남을 뜻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대응 관계를 세우려면 시간 경계가 맞는 한 사람의 생리와 체험 자료가 필요하다. 어느 한쪽이 없다면 아직 검증해야 하는 연관 가설이 남는다.

AWARE II에서는 문제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난다. 이후 면담한 참가자 가운데 EEG를 이용할 수 있었던 사람은 두 명뿐이었고, 두 사람은 명확한 기억을 보고하지 않았다. 다른 환자에게 기록한 리듬을 화자들에게 옮겨 적용할 수는 없다. 한 논문에 생리 기록과 특이한 이야기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개인별 시간 동기화가 이루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4]



그림 25. 생리 자료와 체험담의 대조. 저자의 도식은 개인별 대조의 조건을 보여 준다. 동일한 참여자, 대응하는 시간 구간, 알려진 회상의 시간적 한계다. 같은 발표물에 두 종류의 자료가 모두 있다는 것만으로는 둘의 연결이 확립되지 않는다.

제목의 뜻을 바꿀 수 있는 평범한 산술 문제도 있다. 전체 양이 신호 자체보다 더 빨리 줄면 그 신호의 상대 비중은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상 자료에서 열 단위 중 다섯은 백 단위 중 열보다 큰 비율이지만 절대량은 줄었다. 따라서 «활동 증가»라고 할 때에는 지표, 비교의 기준점, 기록 구간을 구체화해야 한다. 측정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이며 작은 용어 오류로 의식에 관한 결론이 달라지는 곳에서 특히 유용하다.

실험실에서 무엇을 비교할 수 있는가

실험실의 유사 모형은 조건을 정밀하게 바꾸고 결과를 비교할 수 있게 할 때 유용하다. 가치를 가지기 위해 원래 현상과 완전히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일치 목록과 차이 목록을 나란히 보존해야 한다. 이야기의 어느 부분을 검증하고 실험이 아직 어떤 질문을 다루지 않는지 미리 분명하다면 개별 구성요소의 모형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준다.

Martial과 동료들의 2024년 연구에서는 통제된 실신 후, 사용 가능한 자료가 있는 22명의 참여자 중 여덟 명의 체험담이 Greyson 척도의 기준에 도달했다. 20명은 시간 체험의 변화를 보고했다. 이 표본에서는 죽은 이나 종교적 인물과의 만남, 돌아올 수 없는 경계를 보고하지 않았다. 연구는 체험담과 EEG를 비교하여 임사체험의 현상학과 부분적으로 겹침을 보여 주었다. 이는 비가역적 죽음 이후의 체험에 관한 연구가 아니다. [70]

또 다른 비교 방법은 관심 있는 두 상태를 모두 겪은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다. Martial, Carhart-Harris, Timmermann의 연구에서는 참가자 31명이 자신의 임사체험과 사이키델릭 체험을 비교했다. 여러 특징에서 겹쳤지만 신체 이탈감과 시각 이미지에는 차이가 있었다. 연구는 후향적이고 자기선택에 의존했으며 체험의 사정도 달랐다. 특징의 일치가 메커니즘의 완전한 동일성이나 공통 외부 장소를 확립한 것은 아니다. [71]

유사성을 평가할 때에는 빈도와 강도를 구분해야 한다. 한 특징이 두 집단에서 거의 같은 빈도로 나타나더라도 체험되는 강도는 다를 수 있다. 총점도 서로 다른 구성 묶음을 가릴 수 있다. 두 사람이 다른 응답들로 같은 수치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유사성 주장은 척도의 질문과 함께 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교는 서로 다른 체험을 뒤에 둔 명칭들의 대조가 된다.

임상적 사정은 복잡성을 한 층 더한다. Fritz와 공동저자들이 2025년에 발표한 사례에서 한 여성은 심한 호흡부전과 다른 약물들을 동반한 케타민의 응급 투여 뒤 특이한 체험을 기술했다. 기술에서 심정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약물 투여와 다른 상태 이상에 대해 체험이 언제였는지 정확히 정하지 못했다. 모든 내용을 단일 물질에 귀속하면 이 사례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다. [72]

그러므로 비교에서는 맥락을 보존해야 한다. 회고적 설문, 실험적 개입, 단일 임상 관찰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 하나의 연구 프로그램으로 묶을 수 있지만, 한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옮기면서 결과의 성격을 슬쩍 바꾸어서는 안 된다. 해당 사건에서 필요한 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한, 가능한 기제는 어디까지나 가능한 기제로 남는다.

설명들을 종합하려는 시도

Martial과 동료들이 2025년에 제안한 NEPTUNE 모형은 생리적 스트레스, 혈액 공급, 신경화학적 변화, 신체 신호 처리, 심리 과정의 가정된 영향을 통합한다. 이 모형은 뇌사 이전의 임사 상태를 다룬다. 저자들은 모형의 이론적 성격과 기제들의 필요충분한 조합이 알려져 있지 않음을 명시한다. 목적은 흩어진 결과를 검증 가능한 신경과학적 설명으로 연결하는 데 있다. 이 종설 자체가 새로운 단일 환자 표본은 아니다. [73]

메커니즘을 결합하면 모든 세부사항에 하나의 원인을 요구하지 않고 복잡한 체험을 실질적으로 기술할 가능성이 생긴다. 하지만 모형의 복잡성에는 대가가 있다. 어떤 관찰의 조합이든 추가 과정을 골라 설명할 수 있다면 모형은 명확성을 잃는다. 따라서 결합 뒤에는 특히 제한이 필요하다. 어떤 성질들이 함께 나타나야 하고, 어떤 조건이 특정 효과를 약화해야 하며, 어디서 결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가?

최종 이론을 선택하지 않고도 이 요구의 간단한 예를 세울 수 있다. 신체 관점의 변화가 특정 신호의 불일치에 달렸다고 가정한다면, 불일치를 없앨 때 그 특징이 어떻게 달라질지 미리 기술해야 한다. 생애에서 형성된 기대가 맞이하는 존재의 모습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면 체험 전이나 적어도 이후 해석과 독립적으로 기대를 기록해야 한다. 모두 설명의 유용성은 새 자료와의 관계로 정해진다.

가능한 조건에서 확인된 원인으로 넘어가는 단계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메커니즘은 비슷한 특징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말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질문을 열어 둔다. 그 사건에는 메커니즘의 존재, 작용 시점, 내용과의 연관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다. 이 중간 수준은 보편적인 해답보다 덜 완결되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 생각을 끝없이 되풀이하는 대신 설명을 점차 구체화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수준이다.

설명의 한계와 질문의 한계

뇌 연구와 의식의 본성에 관한 철학적 질문은 맞닿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다. 특정 체험이 생기는 조건을 자세히 기술해도 왜 주관적 측면이 있는지는 열린 질문으로 남을 수 있다. 반대로 이 철학적 어려움을 인정한다고 다른 세계, 가족 선택, 몸 사이의 인격 전이에 관한 구체적 이야기가 확립되지는 않는다. 각 이야기에는 고유한 정보 요건이 남는다.

신경생물학적 설명도 체험의 인간적 의미를 없애지는 않는다. 발생 원인과 삶에서 차지한 자리는 따로 연구할 수 있다. 만남이 화해나 새 이해의 출처였다고 여긴다면 이는 결과와 의미에 관한 주장이다. 만남의 문자 그대로의 실재성을 논의하려면 다른 논거 묶음이 필요하다. 한 연구 방향이 다른 방향을 흡수할 필요는 없다.

가설을 비교할 때에는 반대의 대체도 피해야 한다. 특정 모형의 부족함이 대안의 완성된 증거는 아니다. 대안 모형이 검증 가능한 관찰을 더 잘 설명하고, 예상 결과를 미리 제한하며, 그 정보를 얻을 통상 경로를 찾는 시도들을 견딜 때 긍정적 근거가 생긴다. 가정된 정보 전달에서는 특히 그렇다. 검증할 내용은 확인 전에 보존해야 하고 가능한 경로들은 따로 연구해야 한다.

여기서 뇌에 관한 논의는 증언의 구성으로 돌아온다. 언젠가 체험의 모든 사건을 정확히 시간상 배치할 수 있게 되더라도 내용에는 기억과 이야기를 통해 접근하게 된다. 확신, 질문, 문화적 언어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도 연구할 수 있다. 다음 장은 연구자가 이용할 자료 대부분이 형성되는 사건과 설명 사이의 구간을 다룬다.

제14장 기억과 암시와 문화

기억의 설득력

사람은 타인의 이야기는 의심하면서 자기 체험은 거의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 유난히 선명하게 기억되고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꾼 사건은 특히 의문을 제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억을 통한 설명은 흔히 지어냈다는 비난으로 받아들여진다. 연구에서는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이 잘못이다. 진실성은 이야기하는 이의 의도에, 정확성은 개별 주장과 사건의 일치에 관한 것이다. 기억처럼 체험되는 것을 성실하게 보고하면서도 그 내용에는 외부 검증이 필요할 수 있다.

Moore와 Greyson은 참가자 122명에게 임사체험의 기억을 실제 사건 및 상상한 사건의 기억과 비교하도록 했다. NDE 기억은 전반적으로 특히 풍부하다고 평가되었다. 체험 뒤의 평균 경과시간은 약 34년이었다. 이는 연구 시점의 기억 특성에 관한 증거다. 한 번의 조사는 각 기억의 내용이 그전의 모든 해에 걸쳐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지 않는다. [74]

Schmidt와 공동저자들은 암시에 잘 반응하는 성인 24명을 대상으로 실험했다. 최면 후 신호는 중립 신호에 비해 확신도를 높이고 단어 알아봄을 빠르게 했다. 정확성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찾지 못했다. 이 연구는 확신도가 별도로 변할 수 있음을 보여 주지만 거짓 생애나 사후 여정이 생기는 일을 재현한 것은 아니다. [75]

따라서 기억을 여러 특징으로 살펴보면 유용하다. 얼마나 생생한가? 얼마나 확신하는가? 세부사항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반복되는가? 외부 검증이 있는가? 첫 기록은 언제 생겼는가? 서로 들어맞을 수 있지만 하나의 전반적인 진실성 인상으로 대신할 수는 없다. 외부 기준 없는 상세한 이야기는 상세한 이야기로 남는다. 검증 가능한 드문 세부사항이 있는 짧은 이른 보고가 정서적 인상은 작아도 특정 질문에는 더 가치 있을 수 있다.

안정성도 정의해야 한다. 전체 의미의 반복과 구체적인 말, 순서, 사정의 일치는 다르다. 여러 해 사랑에 둘러싸였다고 말해도 각 사건이 변하지 않았음이 확립되지는 않는다. 뒤의 버전에 새 인물이 있다면 이른 기록에도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런 분석은 모든 변화가 의도적 기만이라고 가정하지 않고도 변화를 알아볼 수 있게 한다.

오류와 지식의 출처

Meyersburg와 공동저자들의 연구는 전생의 기억을 보고한 성인 15명을 대조군 15명과 비교했다. 의미상 관련된 단어를 쓰는 과제에서는 제시하지 않은 단어를 잘못 회상하거나 알아보는 일이 생길 수 있었다. 첫 집단에서 일부 오답이 더 자주 나왔지만 통계적 설득력은 검사에 따라 달랐다. 구체적인 생애를 검증하거나 자발적인 아동 사례를 연구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결과는 이 작은 표본이 실험실 과제를 수행한 특성에 관한 것이다. [76]

이런 연구의 의미는 알려진 조건에서 개별 메커니즘을 연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연구자는 어떤 단어를 제시했고 어떤 단어를 제시하지 않았는지 안다. 출생 전 존재를 가정하는 이야기에는 그런 기준 목록이 없다. 따라서 실험실 결과를 옮겨 적용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확신에 찬 알아봄도 틀릴 수 있음을 보여 주지만 실험실 밖의 모든 구체적 기억의 출처를 자동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재구성을 통한 설명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어떤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는가? 언제 당사자에게 들어갈 수 있었는가? 이야기의 어느 부분이 그 정보와 일치하는가? 무엇이 설명되지 않고 남는가? 읽은 책이라는 가정은 그 책을 찾고 당사자가 접했음을 확인하면 더 강해진다. 이야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일반적 가능성은 더 약한 주장이다. 특이한 출처를 찾을 때와 통상 경로로 설명할 때 연구의 엄정함은 똑같이 필요하다.

사고실험으로 내용의 오류와 출처의 오류를 구분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주소를 정확히 말하지만 예전에 편지에서 읽었는데도 꿈에서 보았다고 여긴다. 주소는 맞고 그 출처에 관한 생각은 틀릴 수 있다. 주소만 검증하면 특이한 전달이 확인된 듯한

인상을 얻는다. 기억 오류의 가능성 때문에 주소를 버리면 실제로 정확한 정보를 잃는다. 주장이 다르므로 두 검증이 필요하다.

여기서 유용한 읽기 규칙이 나온다. 앎에 관한 각 발언은 내용과 주장된 출처로 나눌 수 있다. «집은 빨갰다»가 한 주장이고, «몸 밖에 있으면서 알았다»는 다른 주장이다. 서로 다른 정도로 확인될 수 있다. 이 구분은 사람의 체험을 인위적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의 정확히 어느 부분이 기존 설명에 문제를 제기하는지 이해하게 한다.

질문이 정하는 순서

기억을 얻도록 설계한 절차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Helen Wambach의 책에는 상상 속의 몸 이탈, 출생 전 상태, 출생 선택, 조력자들, 삶의 목적으로 사람을 이끄는 순서가 실려 있다. 첫 답에 때로 다섯 초를 준다. 기술한 자료에는 그런 시나리오를 받지 않은 대조군이 없다. 따라서 여정의 일치는 질문의 일치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 [77]

열린 질문과 유도 질문의 형식 차이는 작아도 결과의 차이는 클 수 있다. «그다음 무슨 일이 있었나요?»는 넓은 응답 범위를 허용한다. «밖으로 나온 뒤 누가 맞이했나요?»에는 이미 이탈과 맞이하는 존재가 전제되어 있다. «왜 이 가족을 골랐나요?»에는 선택이 이루어졌다는 전제가 더해진다. 진실하게 답하더라도 이 응답을 나열된 모든 요소가 자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Wambach는 치료사 26명의 설문에서 터널 언급이 드문 것을 많은 전문가가 죽음 뒤의 전이를 묻지 않았다는 점과 연결했다. 그 자신의 방식에는 빛, 생애 회고, 이후 삶들에 관한 논의로 이끄는 일이 포함되었다. 이 자료는 묻지 않은 질문과 부정하는 답에 서로 다른 표기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 준다. [78]

뉴턴 연구소의 2022년 지침은 열린 질문을 권고하고 체험의 다양한 순서를 허용한다. 한편 자격 인증에는 특정 영역들이 요구된다. 회의체 또는 최고 지혜의 장소는 반드시 거치는 곳으로 표시된다. 예상 장소에는 학습, 회복, 몸의 선택이 나열되어 있다. 이는 현대의 교육 문서다. 절차를 분석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뉴턴의 모든 초기 세션이 정확히 같은 규칙을 따랐음을 확립하지는 않는다. [79]

이야기를 비교할 때 질문을 답 옆에 보존하면 유용하다. 그러면 방이 자발적으로 나왔는지, 공간을 둘러보라는 제안 뒤에 나왔는지, 연구자가 먼저 불렀는지 볼 수 있다. 안내자, 화면, 회의체, 새 삶의 준비도 마찬가지다. 말의 유사성만이 기준이 되지 않고 요소마다 어떻게 나타났는지의 이력이 드러난다. 반복이 얼마나 독립적인지는 바로 이 이력이 정한다.



그림 26. 질문이 이야기를 이끄는 방식. 왼쪽은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라는 열린 질문, 오른쪽은 누가 맞이했나요라는 만남을 전제하는 질문이다. 저자의 모형은 응답이 생겨나는 조건의 차이를 보여 준다.

기대와 시나리오의 경계

로버트 베이커의 연구에 대한 출판사 초록은 기억 회귀에 관해 지지적, 중립적, 회의적인 사전 설명을 받은 학생 60명을 다룬다. 보고한 과거 삶의 수는 사전 태도에 따라 달랐다. 초록만으로는 집단 배정의 세부사항과 효과 크기를 전부 복원할 수 없다. 이 연구는 사전 기대의 중요성을 가리키며, 개별 이야기의 역사적 진실성을 그 결과로 정하지는 않는다. [80]

기대의 영향이 반드시 암시를 수동적으로 반복한다는 뜻은 아니다. 자신의 이미지에 놀라거나, 가정된 줄거리에 저항하거나, 면담자가 예상하지 않은 것을 보고할 수 있다. 브라이언 와이스의 책에서 여성 환자 한 명의 자료에는 휴식, 기다림, 귀환 의무가 포함된다. 한 세션에서는 예상한 «마스터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이야기 자체의 변화를 보여 주지만 기술된 세계 구조의 독립 검증을 주지는 않는다. [81]

따라서 «전적으로 암시로 생김»과 «완전히 독립적임»으로 단순히 나누는 것은 분석에 너무 거칠다. 처음의 인상, 주어진 주제, 우연히 생긴 이미지, 질문 뒤의 구체화, 이후 해석이 서로 다르게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 기록에서 그 순서를 찾아야 한다. 절차 기록을 자세히 보존할수록 어떤 내용이 최초 체험에 속했고 어떤 내용이 논의 중에 생겼는지 덜 추측하게 된다.

반복의 독립성이 특히 중요하다. 같은 지시 뒤의 비슷한 응답 백 개는 그 지시가 일관되게 작동함을 반영할 수 있다. 알려진 공통 출처 없이 나온 비슷한 이른 보고 백 개는 다른 질문을 제기한다. 둘 다 규칙성이 나타나지만 대상이 다르다. 첫째는 절차와 상상력의 상호작용을, 둘째는 이야기가 생기는 더 넓은 메커니즘을 기술할 수 있다. 출처 정보 없는 응답 수만으로 설명들 사이에서 선택할 수는 없다.

경험 전후의 문화

개인별 형식화 가설은 익숙한 모습들이 공통 의미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쓰인다고 가정한다. 논의할 만큼 정밀하게 정식화할 수 있다. 하지만 먼저 문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세 시점을 나누어야 한다. 체험 자체의 내용, 첫 이야기의 말, 이후의 해석이다. 같은 모습에 귀환 뒤에야 종교적 이름을 붙일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원래 상태에 자동으로 부여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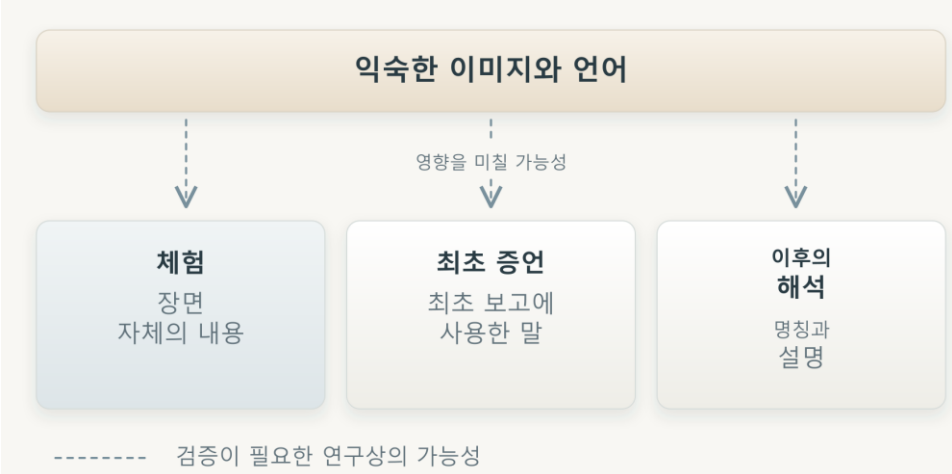


그림 27. 경험의 문화적 형성. 분석 도식은 익숙한 이미지와 언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수준을 구분한다. 체험 자체, 최초 보고, 이후의 해석이다.

Morita와 공동저자들의 일본 연구에서는 가족이 임종기 환시를 보고했다. 보고 확률은 답한 가족 자신의 종교성과 믿음에 연결되었다. 이 관계가 환자 체험의 원인을 확립하지는 않지만, 선택이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지점을 보여 준다. 무엇을 알아차리고 기억하며 환시라고 부를지 관찰자가 정한다는 점이다. [82]

Rashidi와 공동저자들의 이란 연구 제목에는 rebirth라는 말이 쓰인다. 내용에서는 다른 몸으로 새로 태어남이 아니라 삶으로 돌아온 뒤의 인격적 쇄신을 뜻한다. 여러 언어의 출판물을 비교할 때 이런 차이가 중요하다. 말이 문자 그대로 일치해도 연구하는 현상이 같다는 보장은 없다. [83]

개인별 형식화 모형은 변화의 한계도 정해야 한다. 공통 경로가 유지된다면 종교와 무관하게 어떤 특징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동행자의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동행이 필수라는 주장은 별도 예측이다. 선택의 방과 직접적인 결정은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어도 강요와 자유로운 거절은 행동 규칙이 다르다. 공통 과정을 기술하려는 가설이라면 모든 모순을 배경의 변화로 여길 수는 없다.

따라서 기억, 질문, 문화는 반복되는 줄거리 설명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의식의 기원 문제 전체를 미리 해결하지 않고도 그 기여를 연구할 수 있다. 정밀한 작업은 무엇이 생겼고 보존되었으며 제안되었고 나중에 이름 붙었는지 구분하는 데서 시작한다. 분석 뒤 전체 지도에 돌아오는 것은 무게가 같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력을 지닌 증언들이다. 이들로부터 자체의 예외를 견딜 도식을 구성해야 한다.

제V부 지도와 의미

제15장 갈래가 있는 지도

지도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개별 증언 집단을 살펴본 뒤에는 하나의 순서로 모으고 싶어진다. 몸에서의 이탈, 전이, 만남, 생애 회고, 머무름, 선택, 새 출생은 이해할 수 있는 서사를 이룬다. 하지만 순서의 이해 가능성과 고리들 사이 전이의 확인은 서로 다른 성질이다.

이 장의 지도는 기술된 모티프들의 관계를 나타낸다. 노드는 체험의 종류를 뜻한다. 화살표는 이야기 안의 가능한 전이 또는 출처 집단들 사이의 연결에 관한 연구 가정을 보여 준다. 한 사람에게서 전이 전체를 관찰하지 못했다면 연결은 조건부로 남아야 한다.

이 구성은 기술한 공간의 외적 실재성에 답하지 않아도 유용하다. 어떤 요소를 충분히 자세히 연구하는지, 같은 말을 다른 뜻으로 쓰는 곳은 어디인지, 어느 구간에서 없는 정보를 슬며시 보충하기 쉬운지 볼 수 있다.

지도에는 두 수준이 있다. 거시적 수준에서는 몸과의 관계 변화, 만남, 머무름, 결정이라는 기능이 보인다. 미시적 수준에서는 안내자의 모습, 소통 방식, 자기 몸의 감각, 행위의 순서라는 구체적 세부사항이 보존된다. 개별 이야기로 돌아갈 가능성을 잃지 않으면서 일반화해야 한다.

비교 지도의 노드

노드	비교하는 것	장
신체 관점	자신의 위치와 주변 정보에 대한 접근	4
전이와 만남	환경 변화, 알아봄, 소통	5
회고와 공간	생애를 돌아보기, 대상, 의미를 얻는 방식	6

노드	비교하는 것	장
머무름	휴식, 회복, 기다림, 활동	7
결정	동의, 거절, 유예, 선택의 제한	8
이전 생애	체험 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감	3, 4 및 8
가정된 새로운 삶	출생 전 기억과 생애 연결의 검증	9 및 11
시간	외부 시점 표지와 주관적 지속시간	10
다른 증언	꿈과 동행자들의 이야기	12

처음 구간

처음 노드를 통상적인 신체 관점의 변화라고 부를 수 있다. 이미 독립된 실체가 이탈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신중한 기술이다. 이야기에서 접근 가능한 관찰자의 위치, 자기 몸의 모습, 아픔의 변화, 가벼움, 익숙한 경계의 부재를 포괄한다.

다음 노드는 환경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전이 이야기만으로 물리적 이동을 가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제5장에서 다룬 기술에는 표지들이 이어지는 길과 자세한 전이 없이 새 장면이 나타나는 경우가 모두 있다. 지도에서는 서로 다른 상태 연결 방식이다.

만남은 또 하나의 노드다. 기능은 알아봄, 도움, 전달, 이후 이동의 제한일 수 있다. 이런 기능 때문에 만나는 존재 모두를 미리 안내자로 볼 필요는 없다. 돌아가야 한다고 알리는 존재와 정서적인 만남을 나누는 익숙한 사람은 다른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제6장에서 여러 형태를 검토한 생애 회고는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맞이하는 이의 역할과 생애를 다루는 방식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 내용에는 기억, 결과의 평가, 이해했다는 느낌이 포함될 수 있다. 지도는 평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판의 존재를 필수적으로 도출해서는 안 된다.

머무름과 결정

지도의 중간 영역은 비교적 안정된 머무름을 묶는다. 휴식, 회복, 소통, 학습, 기다림을 구분해야 한다. 활동을 기술하지 않았다고 빈 상태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치료를 언급하면 몸 상태, 기억, 정서적 결과, 신체 회복의 모습 중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전이의 결정은 독립된 영역을 이룬다. 제안, 동의, 유예, 설득, 배정, 강제의 체험을 구분한다. 모두를 «선택»으로 바꾸면 자료 일부가 사라진다. 반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보고만으로 그 필요의 메커니즘까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이전 삶으로 돌아가는 것과 새로운 출생을 준비한다고 가정하는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첫째 경우 체험담은 보통 이전 생애를 계속 사는 사람과 연결된다. 둘째 경우에는 생애들 사이의 연결, 적어도 그러한 연결이 있다는 주장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두 갈래를 모두 귀환이라는 말로 묘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림에서 합쳐서는 안 된다.

가까운 이들의 꿈은 지도 옆에 놓이지만 죽은 이의 경로에서 빠진 구간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꿈은 꿈꾼 사람의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때로는 검증할 수 있는 주장을 담는다. 꿈을 다른 사람의 존재의 특정 단계를 관찰한 것으로 사용하려면 추가 논거가 필요하다. 죽은 이를 알아보았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새로 태어난 날짜나 머문 기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단절 지점

가장 중요한 단절은 익숙한 상태에서의 일시적 이탈과 생애의 돌이킬 수 없는 종료 사이에 있다. 임사 이야기는 살아 돌아온 사람이 전한다. 귀환 지점 이후에 가능했을 이야기는 출처에 없을 수 있다. 그 부분을 출생 전 자료로 보충하면 연구 모형이 생기며, 이를 독립 자료와 연결하는 작업은 여전히 필요하다.

둘째 단절은 삶의 준비 이야기와 그 삶의 구체적인 조건 확인 사이에 있다. 성인이 부모 선택을 기술한다면, 나중에 자기 가족에 관해 얻은 앎이 이미 접근 가능한 생애에 들어 있다. 사전

지식을 검증하려면 이 앎의 영향을 제한할 수 있는 이른 기록이 필요하다.

셋째 단절은 주체의 보존에 관한 것이다. 특이한 정보의 전달을 확립할 수 있더라도 수신자가 이전 체험자의 지속인가라는 질문은 남을 것이다. 정보 연결, 성격의 유사성, 개인의 동일성에는 서로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단절이 연결의 불가능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다음 추론 단계에 현재 정보가 부족한 지점을 가리킨다. 불완전함이 드러날수록 과학적 지도는 더 유용해진다. 그러면 독자는 어떤 새 관찰이 도식의 구성을 바꿀지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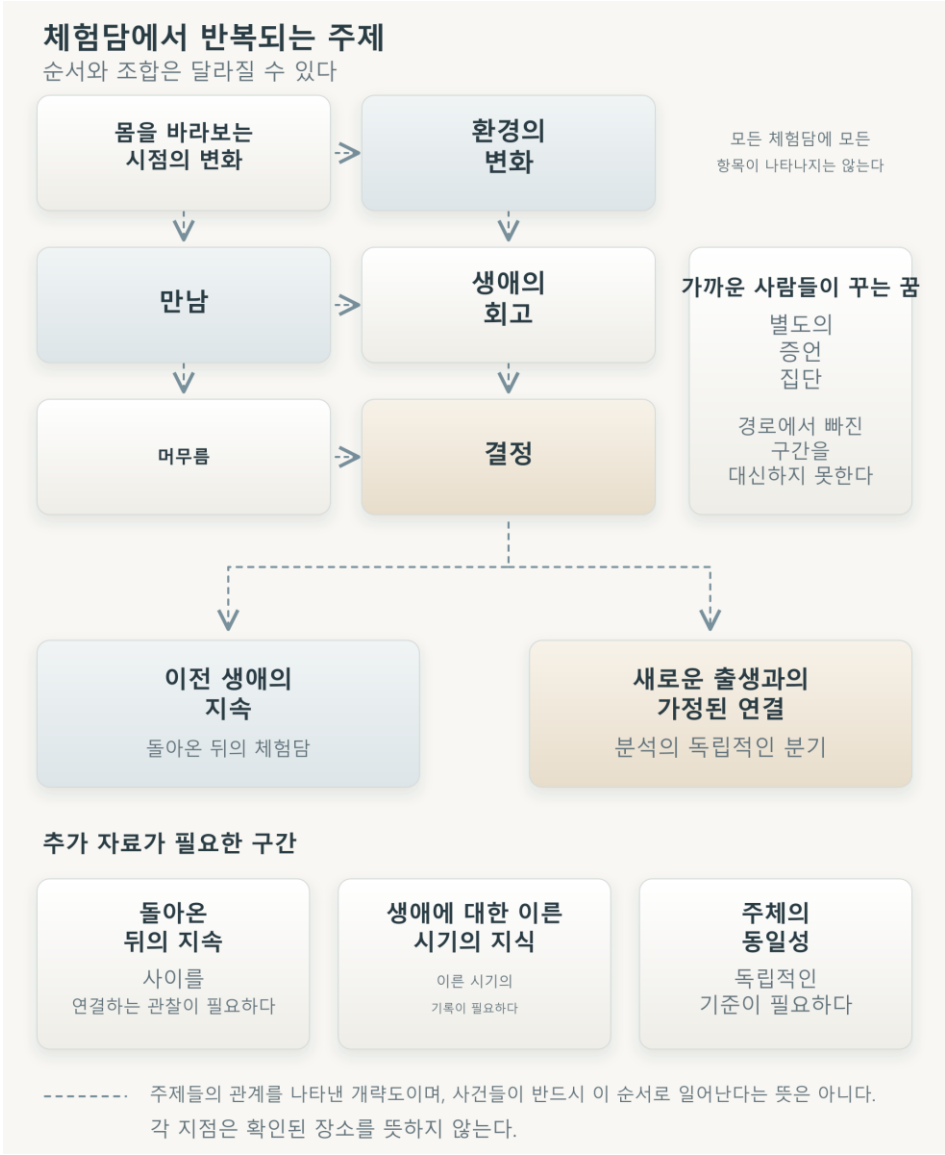


그림 28. 갈림길과 단절이 있는 주제 지도. 연결은 개략적이며 필수적인 순서를 정하지 않는다. 모든 체험담에 모든 지점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갈래들을 비교하는 법

한 가능성은 공통 과정의 서로 다른 형태라는 것이다. 다른 가능성은 내용이 일부 비슷한 여러 과정을 허용한다. 또 하나는 체험하고 이야기하는 공통 수단과 유사성을 연결한다. 이들 사이에서 선택하려면 공통된 말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특징의 조합을 찾아야 한다. 빛을 따로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사건 순서를 거의 알 수 없다. 드문 전이 방식, 특정 상호작용, 같은 행동 제한이 안정적으로 결합한다면 더 실질적일 것이다. 일치 기준을 미리 정하고 문화와 면담자의 질문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모순도 주장 수준에서 평가한다. 방 색깔의 차이가 공통 기능 구조의 모형을 반드시 깨는 것은 아니다. 자유로운 거절과 의무적인 귀환의 차이는 가정된 메커니즘 자체에 닿을 수 있다. 규칙이 모형에 중요할수록 그 부재를 배경 차이만으로 설명할 근거는 줄어든다.

따라서 최종 지도에는 갈래들이 남아야 한다. 공통 경로의 가능성은 보존하지만 출처가 확립하지 않은 곳에 단 하나의 길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음 질문은 가정된 움직임의 의미에 관한 것이다. 무엇이 반복적인 귀환을 정당화하거나 일으킬 수 있는가?

제16장 왜 돌아오는가

원인과 기능과 의미

다시 태어나는 이유라는 질문은 무엇을 위해라는 말의 뜻을 구체화하기 전까지는 하나의 질문처럼 보인다. 때로는 기제를 묻는다. 무엇이 다음 전환을 일으키는가? 때로는 기능을 묻는다. 반복으로 어떤 결과를 얻는가? 때로는 개인적인 의미를 묻는다. 왜 새로운 삶에 동의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는 서로 다른 답과 검증 방식이 가능하다.

메커니즘은 자각된 목적 없이도 작동할 수 있다. 행위자에게 목적이 있어도 전체 시스템의 구성을 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인의 의미는 사건의 원인이 아니었어도 이후에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사명의 체험을 존재의 일반 법칙에 관한 기술로 자동 간주할 수는 없다.

앞 장들에서는 과제, 학습, 귀환, 유예 가능성에 관한 보고를 살펴보았다. 이제 여러 분석 모형을 구분할 수 있다. 가정된 규칙을 비교하기 위한 구성들이다. 이야기를 일관되게 읽도록 돕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모형이든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

모형마다 삶들 사이에 무엇이 유지되고 무엇이 바뀌는지, 왜 신체적 삶이 필요하며 어떤 특징으로 과정이 끝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답이 없으면 모형의 이름은 완성된 설명이 아니라 사유의 방향을 가리킨다.

학습 모형

가장 이해하기 쉬운 설명은 반복되는 삶이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습»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정보의 획득, 기술의 습득,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의 변화, 도덕적 발달은 서로 다른 과정이다. 결과를 판단할 특징도 각각 필요하다.

태어나기 전에 아주 넓은 앎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삶에서 무엇을 더 알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긴다. 가능한 답

하나는 기술과 직접 살아 겪는 것을 구분한다. 아픔에 관한 표현을 알 수 있고 따로 아픔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모형은 특정 체험을 얻는 데 몸을 가지는 가치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허용한다. 하지만 왜 바로 그 체험이 필요하며 반복되어야 하는지까지 설명하지는 않는다.

다른 답은 학습을 행동 방식의 변화와 연결한다. 그때는 기억, 성향, 결정 능력, 타인에 대한 태도 중 무엇이 다음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어지는 결과가 없으면 연속된 삶 사이의 연결은 불명확해진다. 축적을 뒷받침하려면 이어지는 결과와 그 보존의 징표를 정해야 한다.

망각을 독립적인 선택의 조건으로 모형에 넣을 수 있다. 하지만 설명에는 대가가 있다. 가정된 망각이 완전할수록 학습의 계승을 검증하기 어렵다. 어떤 성격이든 과거 교훈의 결과라고 선언하면 가설은 모든 결과를 포괄하며 거의 구별하지 못한다.

모형을 연구로 발전시키려면 제한이 필요하다. 특정 생애 순서에서 어떤 변화가 더 자주 나와야 하는가? 어떤 보고가 축적의 가정을 반박할 수 있는가? 가정된 전달은 현재 사람의 통상적인 발달과 어떻게 다른가? 이 질문들은 학습을 미리 부정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 의미를 명확히 한다.

끝에 관한 질문도 있다. 목적이 유한하다면 충분성의 기준이 필요하다. 목적이 계속 달라지면 다음 순환이 어떤 관계에서 이전 순환을 이어 가는지 설명해야 한다. «발달»이라는 말 자체로는 방향도 한계도 누가 결과를 평가하는지도 알 수 없다.

관계와 바로잡음

다른 모형은 관계를 중심에 놓는다. 새 삶은 연결을 이어 가고, 끼친 해를 바로잡고, 역할을 바꾸거나 다른 이를 도울 가능성으로 가정된다. 그때 단위는 개별 사람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연결망이 된다.

이 도식은 복잡한 조정 문제를 낳는다. 한 삶의 조건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면 누구의 결정이 그 선택에 참여하는가? 이견이 가능한가? 다른 사람이 다르게 행동하면 계획은 달라지는가? 각자가 자기 운명을 전부 선택한다는 모형은 선택들이 교차하는 일을 설명해야 한다.

조건을 선택했다고 가정한다는 이유로 현재의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에 실제로 동의했다고 추론할 수도 없다. 그러려면 선택의 존재와 내용, 결과의 이해, 결정하는 주체의 연속성을 확인해야 한다. 운명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으로 이런 조건들을 대신할 수는 없다.

고통과 학습의 연관에는 특히 정확성이 필요하다. 겪은 일에서 나중에 의미를 찾았다고 고통이 그 목적에 미리 배정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이후의 의미화와 최초 원인은 별개의 주장으로 남는다. 이 구분으로 연구는 입증되지 않은 결정을 사람들에게 부여하지 않고 의미를 논의할 수 있다.

독립적으로 기록한 서로 연결된 보고들이 있다면 관계 모형은 더 실질적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치에도 통상적 정보 경로와 대조 규칙을 검증해야 한다. 모든 만남을 이전의 합의로 설명하려면 가정과 결과를 구별할 수 없게 되는 대가를 치른다.

경험과 참여와 봉사

또 다른 모형은 체험의 다양성에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새 삶은 다르게 보고 행동하는 방식이 된다. 순환의 끝에 관한 질문도 달라진다. 다양성이 그 자체로 가치 있다면 완료가 반드시 졸업시험의 형태인 것은 아니다.

이 설명은 일반적인 생각의 수준에서 수많은 서로 다른 삶의 가능성을 설명한다. 하지만 왜 바로 이런 조건이 필요하고 누가 그 가치를 평가하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다양한 체험의 공통 담지체가 있는지, 아니면 주체마다 일부만 얻는지도 정해야 한다.

참여 모형은 세계 안의 행동을 강조한다. 도움, 관계, 구체적인 과제를 위한 귀환을 가정한다. 체험 뒤 자기 삶에 부여한 의미와, 체험 전에 있었음을 독립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과제를 구분해야 한다. 둘 다 개인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검증에서는 역할이 다르다.

마지막으로 의무적 순환 모형도 가능하다. 현재의 바람과 무관한 규칙에 따라 전이가 일어난다. 이런 가정에는 무엇이 규칙을 의무적으로 만드는지 확인할 필요가 따른다. 스승, 회의체, 더 높은 근원을 가리키면 질문은 그 행위자의 권한으로

옮겨 간다. 권한을 가진 존재의 이름 자체가 결정의 근거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림 29. 가정된 귀환에 대한 다섯 설명.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학습, 관계, 경험의 다양성, 도움, 의무적 순환을 나타냈다. 저자의 구성은 결과, 전환 규칙, 종료 가능성을 구체화해야 하는 분석 모형들을 비교한다.

머물 자유

출생 거절의 질문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 체험자는 남고 싶어 하거나, 거절을 말하거나, 유예를 받거나, 순환에서 최종적으로 벗어날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한 단계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최종 거절은 특히 연구하기 어렵다. 현재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표본에는 구성상 현재 삶에 존재하는 이들이 들어 있다. 이 표본만으로 더 태어나지 않은 이들의 비율을 직접 셀 수는 없다. 환생 모형 전체를 잠정적으로 받아들여도 이 선택의 한계는 남는다.

«현재 삶 뒤에는 더 몸을 얻어 태어날 필요가 없다»는 보고는 가정된 미래에 관한 것이다. 검증하려면 무엇이 반박에 해당하는지, 새로 태어남을 어떻게 확인할지, 얼마나 오래

관찰할지 정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없으면 «마지막»은 이야기 내용의 일부로 남는다.

개별 매개변수를 고를 자유와 전체 시스템을 거절할 자유도 다르다. 가족, 시점, 과제를 고를 수 있다고 존재 전반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지도는 이 자유들을 따로 보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별 결정이 절대적 자율성으로 슬며시 바뀐다.

누구를 신이라고 부르는가

목적을 논의하면 더 높은 근원의 질문이 생긴다. 제5장과 제6장의 기술에서 «신»은 알아볼 수 있는 대화 상대, 빛나는 존재감,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일체감, 겪은 일의 후속 설명이라는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킨다.

이 뜻들을 자동으로 서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 개인을 향한 말은 참여자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 반대로 일체감의 체험에는 자신과 주변의 경계가 약해지는 일이 동반될 수 있다. 최종 이야기의 말이 같아도 체험 구성의 차이는 사라지지 않는다.

개인별 제시 가설은 하나의 출처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모습들을 취할 수 있다고 본다. 연구할 수 있으려면 모습이 바뀌어도 무엇이 일정하게 남는지 밝혀야 한다. 외모, 규칙, 순서, 결정의 의미까지 모두 달라질 수 있다면 어떤 자료가 출처의 단일성에 반하는지 정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존재 의미의 질문은 반복되는 줄거리의 질문보다 넓다. 보고의 유사성은 목적을 체험하는 안정된 방식을 보여 줄 수 있다. 전체 시스템의 객관적 목적을 추론하려면 보고 내용을 독립적 근거와 연결해야 한다. 이 책은 그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체험의 인간적 의미를 위한 자리를 남긴다.

제17장 세계관을 검증하는 법

설명보다 앞서는 주장

이야기를 비교한 다음 단계는 따로 검증할 수 있는 주장들을 정식화하는 일이다. «기술된 세계 전체가 존재하는가?»는 한 관찰로 다루기에는 너무 큰 질문이다. 더 명확한 질문은 구체적 정보, 사건 순서, 조건에 따른 모습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연구 프로그램은 여러 방향에서 출발할 수 있다. 통상 관찰로 접근할 수 없는 대상에 관한 보고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야기의 이른 버전과 늦은 버전을 비교할 수 있다. 질문 방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지 알아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한 보고의 순서를 연구할 수 있다. 이 과제들이 미리 같은 설명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주장마다 결과를 일치, 오류, 불확실성으로 볼 조건이 필요하다. 답을 접하기 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과 뒤 규칙을 바꾸면 발견한 규칙성과 분류를 결과에 맞춘 일을 구별하기 어렵다.

이후 제안하는 도식들은 연구 방향이며 이 책에서 수행한 실험의 기술이 아니다. 실현하려면 해당 전문 역량, 윤리 조건의 합의, 참여자 보호가 필요할 것이다.

의료 사건 중의 관찰

임상적 검증은 세 기록을 연결해야 한다. 의료 사건의 객관적 순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조건, 당사자의 이른 자유로운 이야기다. 어떤 대상을 정확히 보고해도 통상적인 방식으로 언제 보고 들을 수 있었는지 모르면 체험의 시점을 정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검증용 자극은 병실의 통상 정보와 구분해야 한다. 시간상 연결에는 미리 정한 자극 변화와 독립적인 시간 기록이 유용하다. 응답을 평가하는 면담자는 가능하면 이야기를 고정하기 전에 정답 내용을 몰라야 한다.

연구 전에 허용할 일치의 목록, 시간 구간, 응답 평가 방식을 고정한다. 자극이 바뀌면 내용의 정확성과 시간의 정확성은 별도 결과가 된다. 언제든 제시했던 어떤 이미지와의 일치는 미리 정한 구간의 이미지와 일치하는 것과 의미가 다르다.

이런 절차에서는 치료가 우선한다. 관찰을 위해 위험 상태를 만들거나 필요한 지원을 바꾸는 일을 전제하지 않는다. 의료적 우선순위를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생긴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과제다.

긍정적 결과에는 이용 가능한 정보 경로와 재현성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부정적 결과도 과제의 한계 안에서 읽어야 한다. 표적 자극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 자극의 지각에 관한 구체적 가정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겪은 내용에 관한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다른 생애에 관한 초기 보고

아동 이야기를 연구할 때에는 일치를 찾기 전의 기록이 중심적으로 중요하다. 자유로운 발언을 날짜와 맥락과 함께 적는다. 이어 추가 설명, 어른들의 질문, 가정된 이전 가족을 만난 뒤 나온 정보를 따로 보존한다.

주장 목록은 검증 가능성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 가족이 있었다는 식의 일반적 말에는 들어맞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름, 장소, 사건의 드문 조합은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지만 철자 변형, 탐색의 범위, 통상적 앎의 출처를 검증해야 한다.

오류와 불일치를 보존하는 일이 중요하다. 맞은 세부사항만 발표하면 전체 주장 묶음을 평가할 수 없다. 문서로 확인한 정보, 친척 한 명의 이야기로 확인한 정보, 공동 논의 뒤 여러 사람의 동의로 확인한 정보도 구분하는 편이 좋다.

가능한 추가 대조 하나는 미리 정한 규칙으로 원래 목록을 여러 생애와 독립적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평가자는 참가자들이 어느 가족을 이야기에 맞는다고 여기는지 모른다. 탐색의 모든 어려움을 없애지는 않지만 원하는 답을 아는 데 선택이 얼마나 의존하는지 검증할 수 있다.

가정된 생애를 찾는 과정 자체도 정보 전달 이력의 일부가 된다. 따라서 단계를 문서화해야 한다. 후속 검증의 독립성은 우선 각 시점에 참가자들이 어떤 정보를 가졌는지 복원할 수 있음을 뜻한다. 마지막에 어떤 설명을 선호하게 되든 유용한 절차다.

꿈과 사망 소식

꿈에서는 관련 소식을 얻기 전의 기록이 특히 유망하다. 일기에는 특이한 일치뿐 아니라 통상 기록의 계열도 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맞아떨어진 사례가 어떤 배경에서 골라졌는지 모른다.

대응 규칙을 미리 정해야 한다. 이름, 모습, 전체 분위기, 구체적 사건의 일치는 정밀도가 다르다. 허용 시간 구간도 가능한 일치 수를 바꾼다. 이런 매개변수를 자유롭게 둘수록 결과를 본 뒤 연결을 고르기 쉬워진다.

여러 목격자가 있다면 서로 논의하기 전에 기록을 얻어야 한다. 이미 했던 소통도 따로 표시한다. 너무 늦게 분리했다고 자료를 버릴 이유는 없지만, 독립성에 대한 결론은 제한해야 한다.

가능한 대조 비교는 기록이 실제 사건 및 비교 가능한 대조 사건에 얼마나 들어맞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어느 쌍을 가정된 일치로 보는지는 평가자에게 알려 주지 않는다. 쌍 구성 규칙은 미리 정한다. 결과는 개별적으로 고른 이야기의 인상보다 정해진 절차가 그 쌍들을 구별하는 능력에 관한 것이 된다.

잘 문서화한 일치에도 이용 가능한 정보 경로와 비슷한 보고의 빈도를 평가해야 한다. 사건 하나가 질문을 제기할 수 있고, 조건을 미리 정한 계열은 재현성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림 30. 증언을 검증하는 세 경로. 도식은 의료 사례, 아이의 보고, 꿈에 관한 연구를 비교한다. 이른 기록, 접근 가능했던 정보의 확인, 독립적인 대조에는 일치 사항과 오류를 모두 보존하는 일이 포함된다.

개인별 차이와 공통 경로

공통 경로가 개인별 형식을 취한다는 가설에는 두 특징 묶음의 비교가 필요하다. 첫째는 인물, 대상, 공간, 종교적 명칭이라는 모습들에 관한 것이다. 둘째는 관계와 규칙이다. 누가 결정하고, 거절이 가능하며, 무엇이 전이에 앞서고, 정보는 어떻게 전해지는가?

첫 묶음은 다르지만 둘째가 비슷하다면 개인화 가설과 양립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이야기하는 공통 특성과도 양립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체험 종류와 비교하고 질문의 영향을 검증해야 한다. 여러 문화의 같은 주제 목록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문화의 기술은 체험 내용과 독립적으로 얻는 편이 좋다. 먼저 모습을 기독교적이라고 부른 뒤 그 존재만으로 당사자의

기독교적 기대를 입증해서는 안 된다. 실제 믿음, 이야기를 접한 이력, 사건 전후의 견해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미리 정한 규칙을 적용하는 여러 사람에게 부호화를 맡기는 편이 좋다. 그 불일치 자체도 유용한 정보다. 같은 장면을 연구자들이 일관되게 다른 단계에 분류한다면, 가정된 세계의 특별한 성질보다 지도의 모호함을 가리킬 수 있다.

어떤 결과가 실제로 결론을 바꿀 것인가

알려진 통상 경로를 배제하고 결과를 사건 시점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 조건에서 미리 정한 정보를 반복해서 얻는다면 큰 진전일 것이다. 구체적인 특이 정보 효과에 대한 근거가 강해질 것이다. 정보의 담지체에 대한 후속 추론에는 그래도 별도 분석이 필요하다.

또 다른 중요한 결과는 줄거리가 면담 방식에 안정적으로 의존하는 경우일 수 있다. 절차가 지도의 어느 부분을 만들거나 강화하는지 확인하도록 도울 것이다. 마찬가지로 통제된 개입에서 특정 요소 조합을 독립적으로 재현하면 그 조합의 메커니즘이 더 명확해질 것이다.

연구는 양쪽으로 달라질 가능성을 유지해야 한다. 더 엄밀한 자료는 특이한 가설을 강화하거나 제한하거나 여러 현상으로 나누거나 처음 범주가 너무 넓었음을 보여 줄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프로그램을 연구로 만든다.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적용 범위가 다른 여러 설명을 유지할 수 있다. 정확히 어느 단계에서 검증된 것이 끝나고 가정이 시작되는지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최종 답을 미리 정하지 않고도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

결론

죽음의 체험이나 출생 전 삶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미 기억과 언어를 거친 체험을 전한다. 그 경로가 증언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는 않는다. 어떤 방식으로 연구할 수 있는지 정해 준다.

출처를 비교하면 신체 관점의 변화, 만남, 의미의 획득, 머무름, 결정, 귀환이라는 알아볼 수 있는 주제들을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주제의 반복이 단일한 외부 메커니즘을 확립하지는 않는다. 여러 이야기로 만든 순서도 전체 순환의 관찰이 자동으로 되지는 않는다.

처음에는 작아 보이는 구분들이 가장 유용했다. 순환 정지와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은 다르다. 의료 사건의 지속시간과 체험 장면의 지속시간도 다르다. 존재감은 특정 인격을 알아봄과, 확신은 정확성과, 정보 전달은 같은 주체의 지속과 다르다. 휴식과 기다림, 유예의 가능성과 최종 거절도 구분된다.

이 구분들은 존재의 지속이라는 질문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는다. 더 명확하게 만든다. 이제 어떤 정보가 보존될 수 있었는지, 인격의 어떤 성질이 연속적이라고 가정하는지, 어떤 관찰이 생애 사이의 구체적 연결을 확인할지 물을 수 있다.

제안한 지도는 조건부로 남는다. 비교적 자세히 기술한 영역과 자료가 부족한 전이가 있다. 전체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그런 경로가 불가능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완결된 관찰 결과로 독자에게 제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귀환의 목적에 관한 질문은 독립적으로 남는다. 삶들 사이의 특이한 연결을 확립하더라도 왜 존재하고 필수적이며 가정된 목적은 누구에게 속하는지까지 설명되지는 않을 것이다. 학습, 관계, 참여, 과제 수행은 명확한 조건과 구별 가능한 귀결을 얻을 때에만 연구 모형이 된다.

체험의 개인적 의미가 외부 설명보다 분명할 수 있다. 의식 구성의 전체 그림이 없어도 삶, 기억, 가까운 이들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다. 연구가 당사자 대신 삶의 의미를 골라 줄 필요는

없다. 과제는 무엇을 알고 왜 안다고 여기는지 정확히 기술하는 것이다.

후속 연구는 다음 관찰의 질에 달려 있다. 이른 기록, 독립 목격자, 보존된 오류, 공개된 절차, 정확한 시점 연결이 때로는 또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보다 더 많은 것을 준다. 바로 이런 세부사항 덕분에 의식의 경계에 관한 질문이 일관된 연구의 대상으로 남는다.

부록 1 개별 증언 기록표

증언 명세서는 출판 자료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세부사항마다 출처를 보존하고 사건, 기억, 해석을 섞지 않도록 돕는다. 모르는 값은 모른다고 적어야 한다. 빈칸은 현상의 부재를 뜻하지 않는다.

항목들은 이야기 전체뿐 아니라 구체적인 주장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의료적 사정은 문서로 확인되지만 안내자의 말은 늦은 면담에서만 알려졌을 수 있다. 같은 사례 안에서도 정보의 근거가 다르다.

항목	기록 내용
사례와 출판물	가명이나 개인 식별자. 같은 사례에 관한 출판물 목록. 다시 전한 이야기들을 따로 세지 않는다.
보고 유형	임사체험; 아동의 발언; 성인의 기억; 꿈; 유도 세션; 다른 목격자의 보고.
가정된 사건	해당 날짜, 장소, 사정. 각 날짜의 근거를 따로 밝힌다.
이용 가능한 첫 기록	언제 누가 작성했는지, 전체가 보존되었는지, 자유로운 이야기의 기록인지 다른 사람이 전한 것인지.
질문의 이력	자발적으로 보고한 것, 열린 추가 질문 뒤 나온 것, 내용을 제시하는 암시 뒤 나온 것.
의학적 맥락	문서화된 상태와 시간 구간. 호흡이 없었다는 가족의 보고로 의료 기록을 대신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상태	자신의 위치, 신체성, 행위 주체감, 자신에 대한 기억, 일어나는 일을 평가할 능력.
체험되는 환경	시각, 청각, 다른 감각, 공간의 구성, 대상들, 움직이거나 주의를 옮길 가능성.
다른 행위자들	모습, 알아본 방식, 말이나 다른 소통 방식, 메시지의 내용, 부여한 역할.

항목	기록 내용
두 종류의 시간	외부 시점 표지와 주관적 순서는 따로 기록한다. 실제로 어떤 경계들이 일치하는지 밝힌다.
검증 가능한 내용	정확한 최초 표현, 가능한 대응, 확인 근거의 출처, 불일치의 유무.
정보 경로	이야기의 각 단계 전에 있었던 접촉, 읽기, 논의, 알게 된 이력, 출판물, 그 밖에 이용 가능한 앎의 경로.
독립성	목격자들이 언제 서로 대화했는지, 소통 전과 확인 정보를 얻기 전에 무엇을 기록했는지.
주장별 결과	명시한 한계 안에서 확인됨; 반박됨; 미정으로 남음; 이용 가능한 자료로 검증할 수 없음.

부록 2 가정된 각 단계에 대한 질문

이 표는 전체적인 읽기 방식을 정한다. 행들이 필수 순서를 주장하거나 확인된 장소를 가리키지는 않는다. 답할 때에는 화자의 말을 연구 분류와 나란히 보존해야 한다.

단계	자기 자신	환경과 다른 존재들	시간과 전이
신체 관점의 변화	자신의 위치와 신체 소유감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생애 기억은 보존되었는가?	무엇을 보거나 들었는가? 지상의 어떤 세부사항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가?	장면의 외부 시점 표지가 있는가? 무엇으로 시작을 정하는가?
전이	누가 움직임을 일으키는가? 체험자가 멈출 수 있는가?	길이나 표지, 또는 순간적인 환경 변화가 있는가?	지속시간을 기술했는가, 순서만 기술했는가? 어떤 경계를 사용하는가?
만남	어떻게 누구인지 알아보는가? 만남의 순간에 무엇을 이해하는가?	그 자리에 있는 존재의 모습은 어떠한가? 부여한 정체는 무엇으로 확인하는가?	소통은 언제 시작되는가? 메시지 뒤 무엇이 달라지는가?
생애 회고	평가를 스스로 내리는가? 기억은 어떻게 체험되는가?	이미지, 대화 상대, 직접적인 이해가 있는가?	장면들은 차례로 이어지는가, 함께 주어지는가? 외부 기준이 있는가?
머무름	상태는 안정적인가? 바람과 몸 상태는 달라지는가?	어떤 활동과 관계를 기술했는가? 회복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무엇이 머무름을 끝내는가?
결정	무엇을 선택하거나 미루거나 거절할 수 있는가?	누가 결정을 제안하고 설명하거나 제한하는가?	결정은 언제 최종적인 것이 되는가? 다시 논의하는가?

단계	자기 자신	환경과 다른 존재들	시간과 전이
신체적 삶과의 연결	정확히 무엇이 연속된다고 가정하는가?	가족, 몸, 생애 정보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출생과 동일성의 변화를 구분했는가? 확인된 날짜가 있는가?
이후의 기억	무엇이 보존되었고 이해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질문과 대응 탐색에 누가 참여했는가?	첫 기록은 언제 생겼는가? 나중에 알게 된 정보는 무엇인가?

부록 3 주요 용어집

아래 정의는 이 책에서 용어를 사용하는 뜻을 정한다. 단 하나의 철학적 의식 이론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퀄리아. 체험의 주관적 측면, 즉 감각이나 상태가 어떻게 체험되는가. 퀄리아의 기술은 체험의 외부 원인을 확인하는 일과 다르다.

현상학. 이 맥락에서는 모습, 감정, 시간, 신체성, 자기 자신의 위치를 포함하여 상태가 체험자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의 기술이다.

체험의 주체. 가정된 체험자. 물리적인지 다른 본성인지 미리 정하지 않고 체험의 연속성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용어다.

자기의식. 자신에 대한 자각. 분석에서는 최소한의 존재감, 자신의 생애에 대한 앎, 그 밖의 자신과 맺는 관계들을 구분한다.

성찰. 자신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평가할 능력. 체험이 있다고 그것에 관한 상세한 사유가 반드시 동반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위치감. 체험되는 자신의 위치. 그 기술 자체로 정보 출처의 물리적 위치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동일성. 서로 다른 시점의 같은 주체를 다룬다는 주장. 정보나 성격이 비슷하다고 동일성의 기준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임사체험. 당사자가 죽음의 가까움과 연결하는 체험. 여기서 다루는 출판물은 이후의 보고로 판단한다. 구체적인 의료적 사정과 설문 기준은 따로 확인한다.

유체이탈 체험. 통상적 신체 경계 밖에 있거나 다른 위치에서 몸을 관찰한다고 자신을 기술하는 체험. 이 용어는 체험을 가리킨다.

인터미션. 환생 이야기에서 삶들 사이에 있다고 가정하는 구간. 달력상의 단절 하나로 내용과 지속시간을 도출할 수는 없다.

환생. 새로운 신체적 삶을 통해 존재가 이어진다는 가정. 정확히 무엇이 지속되는지는 모형마다 다르게 정한다.

전향적 연구. 관심 있는 결과를 얻기 전에 관찰 조건을 정하는 연구. 실제 질은 프로토콜의 이행에 달려 있다.

후향적 연구. 이미 일어난 사건을 기억과 남은 자료로 연구하는 것. 가능한 범위는 이른 기록과 정보의 이력에 달려 있다.

상관물. 다른 지표와 연결된 측정 가능한 특징. 연관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의 방향이나 체험의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지는 않는다.

유도된 기억 회귀. 가정된 과거를 돌아보도록 제안하는 절차. 응답이 체험상 설득력 있다고 역사적 출처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크립토므네시아. 출처에 접근 가능한 기억 없이 전에 얻은 정보를 사용하는 것. 구체적 사례에서 이런 설명에도 근거가 필요하다.

독립적 기록. 다른 이야기나 후속 검증의 영향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에서 작성한 기록. 독립성의 정도는 사정에 따라 확인한다.

기능 부호. 예를 들어 동행이나 기다림처럼 이야기 요소의 역할을 나타내는 연구상의 표기. 부호는 원래 기술을 대신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둘 다 보존한다.

부정 사례. 예상 요소가 없다고 직접 보고하거나 특정 가정에 반하는 결과가 있는 사례. 정보 누락 자체가 부정 사례는 아니다.

부록 4 논의한 보고의 찾아보기

색인은 일반 도식에서 구체적인 출처로 돌아가도록 돕는다. 제5–9장에서 논의한 개인 보고가 담긴 문서 29건을 모았으며, 일부는 다른 절에서도 사용한다. 대괄호 속 번호는 참고문헌을 가리킨다. 이는 찾아보기 위한 문서 목록이며 독립적인 확인의 수가 아니다. 특히 오델 체험담의 두 버전은 같은 화자에 관한 것이며, 셸리와 캐미의 개별 에피소드를 연속적인 경로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

출처	보고	장
[14]	Mrs. Grace	5
[15]	피터 N	5
[16]	샤론 T	5
[17]	Val C	5
[18]	리사 R	5
[19]	티나 W	5
[20]	새미 E	5
[21]	캐서린 L	6
[22]	오델 H	6
[23]	리에트 W	6
[24]	셸리 P	6
[25]	조지 C	6
[26]	브라이언 D	6
[27]	스티븐 I	6
[28]	캐미 R	6
[29]	모린 K	7
[30]	제임스	7

출처	보고	장
[31]	앤절라 E	7
[32]	제니퍼 B	7
[33]	다이애나 G	7
[34]	케리 T	7
[35]	애덤 K	8
[36]	미셸 N	8
[37]	크리스티안 산드베리	8
[38]	제니퍼	8
[39]	앨릭스 P	8
[40]	우르줄라 K	8
[42]	메이	9
[43]	빌 D	9

함께 제공하는 source_registry.csv와 source_registry.json은 원문에서의 링크, 자료 유형, 논의 위치를 보존한다. 출판 연도를 최초의 독립적인 문서화 날짜 대신 사용하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날짜는 확인되지 않은 채로 둔다. 특정 주장의 출처를 검증하려면 부록 1의 개별 증언 기록표를 작성하고 출처 자체로 돌아가야 한다.

부록 5 장면의 순서를 검증하는 방법

주제의 반복에서 예측으로

공통 경로 가설은 새 이야기의 구성을 미리 예측하면 더 강해진다. 이미 읽은 자료에서 빛, 만남, 귀환을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각 사건의 기준, 순서의 확인 방법, 허용할 예외, 예측을 검증할 독립 보고를 고정해야 한다. 아래는 제15장과 제17장을 잇는 저자의 연구 프로그램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의 기술은 아니다.

두 모형을 비교하자. 첫째는 단일 순서를 가정하지 않고 모티프의 빈도, 문화 맥락, 면담 절차를 고려한다. 둘째는 전이에 관한 특정 제한을 더한다. 같은 원문으로 작업해야 한다. 모형의 말로 된 기술은 계산 가능한 예측과 허용 복잡성을 정한 뒤에야 연구상의 요구가 된다. 실패할 때마다 자유로운 예외의 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

통합하기 전의 자료

먼저 인물과 문서라는 두 연결된 대장을 만든다. 한 사건의 여러 출판물, 면담, 버전을 독립 사례처럼 학습과 검증에 나누지 않는다. 자유로운 이야기, 추가 질문, 내용을 제시하는 암시를 따로 표시한다. 모티프마다 기술, 직접 부정, 언급 없음, 질문 없음, 모호함을 구분한다. 순서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선행, 후행, 동시성, 확인되지 않은 관계도 보존한다.

두 부호화 담당자는 처음에 따로 작업한다. 합의 전의 원래 결정을 보존한다. 모습과 기능의 구분이 특히 중요하다. 흰옷이 의료 지원을 정하지 않으며 다른 이의 존재가 동행을 정하지도 않는다. 불일치는 정의의 부족을 보여 줄 수 있다. 전체 경로를 더 보기 좋게 만드는 부호를 고르는 것만으로 고쳐서는 안 된다.

계산할 수 있는 작은 예제

완전히 가상인 기록 여덟 개를 살펴보자. 여섯에는 전이와 만남을 명시하며 그중 다섯에서 전이가 만남에 앞선다. 일곱째에는 전이만 있고 여덟째에는 순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두 요소를 나열한다. 마지막 두 기록도 자료에 보존하지만 이 쌍의 방향 비교에는 넣지 않는다. 누락이 반대 순서로 바뀌지는 않는다.

기록	가상 사건	순서가 확인됨
D1	전이 → 만남	예
D2	몸 → 전이 → 만남	예
D3	전이 → 몸 → 만남	예
D4	전이 → 만남 → 결정	예
D5	전이 → 만남	예
D6	만남 → 전이	예
D7	전이만 있음	해당 쌍 없음
D8	전이와 만남	아니요

설명을 위한 대조로 매우 좁은 귀무 모형을 미리 선택하자. 한 쌍의 방향은 서로 독립적이며 각각 이분의 일의 확률을 갖는다. 이 규칙에서 여섯 번 중 적어도 다섯 번 일치할 확률은 [C(6,5) + C(6,6)]/2⁶ = 7/64 = 0,109375이다. 그러므로 여섯 번 중 다섯 번 방향이 같아도 선택한 대조 모형에 비해 자동으로 특이한 결과가 되지는 않는다. 이 값은 공통 경로가 거짓일 확률도 아니고, 가능한 모든 심리적 설명과 비교한 결과도 아니다.

프로그램은 이 예제를 재현하고 기록을 제외한 이유들을 나열하며 중복 식별자를 거부한다. 제10장의 433일과 제3장의 2,9퍼센트 경계값도 계산한다. 소스 코드와 실행 순서는 동반 자료에 제시한다.

다음 사례를 엄격히 검증하기

실제 자료 집합에서는 두 방향이 같은 확률이라는 가정부터 근거가 필요하다. 면담 자체가 순서를 유도할 수 있고, 이야기의 길이는 관찰 가능한 전환 수를 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쟁 모형은 이 성질들을 고려해야 한다. 비교 결과는 미리 따로 남겨 둔 사람들과 출처들에서 평가한 뒤, 문화와 언어 집단 사이에 적용되는지도 따로 검증해야 한다. 제안하는 주 지표는 새로운 독립 단위에 대한 예측의 평균 로그 손실이다. 확률의 신뢰성은 별도로 검증한다.

새 보고에서 순서 모형의 이점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면 예측 가치를 뒷받침한다. 면담을 고려한 뒤 이점이 사라지면 절차의 역할을 가리킨다. 어느 결과도 그 자체로 사후의 담지체나 주체의 동일성을 확립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보고 구조를 서로 다른 관찰 가능한 귀결과 연결하는 이론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번호는 본문 인용에 대응한다. 개인의 이야기는 보관 기록을, 연구는 출판물이나 이용 가능한 저자 사본을 제시한다. 초록이나 불완전한 출판물을 사용한 곳에는 접근의 한계를 표시했다. 링크는 정보의 출처를 복원할 수 있는 자료로 이어진다.

1. Greer D. M., Kirschen M. P., Lewis A. et al. *Pediatric and Adult Brain Death/Death by Neurologic Criteria Consensus Guideline.* 2023. DOI 10.1212/WNL.0000000000207740. Terminology; General Principles; Recommendation 1.

2. Bray J. E., Gräsner J. T., Nolan J. P. et al. *Cardiac Arrest an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Outcome Reports: 2024 Update of the Utstein Out-of-Hospital Cardiac Arrest Registry Template.* 2024. DOI 10.1161/CIR.0000000000001243. Table 2; Process.

3. Parnia S., Spearpoint K., de Vos G. et al. *AWARE—AWAreness during REsuscitation—A prospective study.* 2014. DOI 10.1016/j.resuscitation.2014.09.004. Resuscitation 85:1799–1805; pp. 1802–1803; Table 2.

4. Parnia S., Keshavarz Shirazi T., Patel J. et al. *AWAreness during REsuscitation - II: A multi-center study of consciousness and awareness in cardiac arrest.* 2023. DOI 10.1016/j.resuscitation.2023.109903. Resuscitation 191:109903; Results; Figure 2.

5. Sanders R. D., Gaskell A., Raz A. et al. Incidence of Connected Consciousness after Tracheal Intubation: A Prospective, International, Multicenter Cohort Study of the Isolated Forearm Technique. 2017. DOI 10.1097/ALN.0000000000001479. Anesthesiology 126(2):214–222; Abstract.

6. Mauduit M., Anselmi A., Tomasi J. et al. *Does Hypothermic Circulatory Arrest for Aortic Surgery Trigger Near-Death Experience? Incidence of Near-Death Experiences after Aortic Surgeries Performed under Hypothermic Circulatory Arrest.* 2021. DOI 10.1055/s-0041-1725091. Methods; Results; Tables 2–4.

7. Rousseau A.-F., Dams L., Massart Q. et al. *Incidence of near-death experiences in patients surviving a prolonged critical illness and their long-term impact: a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2023. DOI 10.1186/s13054-023-04348-2. Critical Care 27:76; Results; Discussion.

8. Blanke O., Ortigue S., Landis T., Seeck M. *Stimulating illusory own-body perceptions.* 2002. DOI 10.1038/419269a. Nature 419:269–270.

9. Ehrsson H. H. *The Experimental Induction of Out-of-Body Experiences.* 2007. DOI 10.1126/science.1142175. Science 317:1048.

10. Blanke O., Pozeg P., Hara M. et al. *Neurological and Robot-Controlled Induction of an Apparition.* 2014. DOI 10.1016/j.cub.2014.09.049. Current Biology 24(22); Studies 2–4.

11. Ring K., Cooper S. *Near-Death and Out-of-Body Experiences in the Blind: A Study of Apparent Eyeless Vision.* 1997. DOI 10.1023/A:1025010015662. Journal of Near-Death Studies 16(2):101–147; pp. 119–123, 133–135.

12. Rivas T., Smit R. H. *A Near-Death Experience with Veridical Perception Described by a Famous Heart Surgeon and Confirmed by his Assistant Surgeon.* 2013. DOI 10.17514/JNDS-2013-31-3-p179-186. Journal of Near-Death Studies 31(3):179–186; pp. 181–186.

13. Holden J. M., Joesten L. *Near-Death Veridicality Research in the Hospital Setting: Problems and Promise.* 1990. DOI 10.17514/JNDS-1990-9-1-p45-54. Journal of Near-Death Studies 9(1):45–54; pp. 50–52.

14. Mrs. Grace. Mrs. Grace NDE 7649. 연도 미상. 자유로운 이야기와 설문 응답.

15. Peter N. Peter N NDE. 연도 미상. 자유로운 이야기와 설문 응답.

16. Sharon T. Sharon T NDE 8597. 연도 미상. 자유로운 이야기와 설문 응답.

17. Val C. Val C NDE 9155. 연도 미상. 자유로운 이야기와 설문 응답.

18. Lisa R. Lisa R NDE 9456. 2022. 자유로운 이야기와 설문 응답.

19. Tina W. Tina W NDE 8608. 2018. 자유로운 이야기와 설문 응답.

20. Sammy E. Sammy E NDE 13385. 연도 미상. 자유로운 이야기와 설문 응답.

21. Katherine L. Katherine L NDE 8213. 연도 미상. 자유로운 이야기와 설문 응답.

22. Odell H. Odell H NDE 6339 and 5003. 연도 미상. 자유로운 이야기와 설문 응답.

23. Riëtte W. Riëtte W Pre-birth 3519. 연도 미상. 자유로운 이야기와 설문 응답.

24. Shelley P. Shelley P Experience. 연도 미상. 자유로운 이야기와 설문 응답.

25. George C. George C Pre-birth 3414. 2019. 자유로운 이야기와 설문 응답.

26. Bryan D. Bryan D NDE 13327. 연도 미상. 자유로운 이야기와 설문 응답.

27. Stephen I. Stephen I Pre-Birth 3099. 연도 미상. 자유로운 이야기와 설문 응답.

28. Cami R. Cami R NDE 6132. 2011. 자유로운 이야기와 설문 응답.

29. Maureen K. Maureen K NDE 8982. 연도 미상. 자유로운 이야기와 설문 응답.

30. James. James Other 6402NDE. 2012. 자유로운 이야기와 설문 응답.

31. Angela E. Angela E Other. 2011. 자유로운 이야기와 설문 응답.

32. Jennifer B. Jennifer B Pre-birth 3201. 2017. 자유로운 이야기와 설문 응답.

33. Diane G. Diane G NDE 622. 연도 미상. 자유로운 이야기와 설문 응답.

34. Cary T. Cary T Pre-birth 3363. 2019. 자유로운 이야기와 설문 응답.

35. Adam K. Adam K Pre-birth 3421. 2020. 자유로운 이야기와 설문 응답.

36. Michelle N. Michelle N Pre-birth 3443. 2020. 자유로운 이야기와 설문 응답.

37. Christian Sundberg; Rick Archer. Christian Sundberg Transcript Pre-Birth Memories Veiling and the Purpose of Incarnation. 2021. Buddha at the Gas Pump 613 인터뷰; 전체 전사본.

38. Jennifer. Jennifer Pre-birth 3370. 2019. 자유로운 이야기와 설문 응답.

39. Alex P. Alex P Prebirth 3264. 2018. 자유로운 이야기와 설문 응답.

40. Ursula K. Ursula K NDE 13301. 연도 미상. 자유로운 이야기와 설문 응답.

41. Masayuki Ohkado; Akira Ikegawa. Children with Life-between-Life Memories. 2014. Journal of Scientific Exploration 28(3), 477–490; The Subjects 절, 표 2, 결혼식 관찰의 기술, 주 10.

42. Mae. Mae Prebirth 3289. 2018. 자유로운 이야기와 설문 응답.

43. Bill D. Bill D Prebirth 3435. 2020. 자유로운 이야기와 설문 응답.

44. Poonam Sharma; Jim B. Tucker. Cases of the Reincarnation Type with Memories from the Intermission Between Lives. 2004. Journal of Near-Death Studies 23(2), 101–118; 102쪽의 방법과 107–108쪽의 세 단계 기술.

45. James G. Matlock; Iris Giesler-Petersen. Asian Versus Western Intermission Memories Universal Features and Cultural Variations. 2016. DOI 10.17514/JNDS-2016-35-1-p3-29. Journal of Near-Death Studies 35(1); 초록과 서론.

46. Masayuki Ohkado. A Case of a Japanese Child with Past-Life Memories. 2013. Journal of Scientific Exploration 27(4), 625–636; 연구 기술과 발언 표.

47. Ian Stevenson; Godwin Samararatne. Three New Cases of the Reincarnation Type in Sri Lanka With Written Records Made Before Verifications. 1988. Journal of Scientific Exploration 2(2), 217–238; Thusitha Silva 사례.

48. Rawat K. S. The Case of Shanti Devi. 1997. 사망일과 출생일이 적힌 문단들.

49. Rawat K. S.; Rivas T. The Life Beyond: Through the Eyes of Children Who Claim to Remember Previous Lives. 2005. PDF 3–4쪽.

50. Haraldsson E. Birthmarks and Claims of Previous-Life Memories: I. The Case of Purnima Ekanayake. 2000. 18–20쪽; 표 2.

51. Stevenson I. Twenty Cases Suggestive of Reincarnation. 1974. Jasbir 34–52쪽; Swarnlata 67–69쪽.

52. Matlock J. G. Congenital Physical Anomalies Associated with Deceased Persons in Reincarnation Cases with Intermissions of Less Than Nine Months. 2023. DOI 10.1016/j.explore.2022.08.019. 방법; 표 1.

53. Stevenson I.; Pasricha S.; McClean-Rice N. A Case of the Possession Type in India With Evidence of Paranormal Knowledge. 1989. 81–101쪽.

54. Barrington M. R.; Mulacz P.; Rivas T. The Case of Iris Farczády—A Stolen Life. 2005. Journal of the Society for Psychical Research 69.2 49–77쪽.

55. Brown A. S.; Murphy D. R. Cryptomnesia: Delineating Inadvertent Plagiarism. 1989. DOI 10.1037/0278-7393.15.3.432. 초록 또는 출판물 일부.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15(3), 432–442쪽.

56. Thomason S. G. Xenoglossy. 1995. 5–8 및 10–11쪽.

57. Stevenson I. Children Who Remember Previous Lives: A Question of Reincarnation, revised edition. 2001. 제10장; 주 8.13 및 10.1.

58. Wright S. T. et al. The impact of dreams of the deceased on bereavement: a survey of hospice caregivers. 2014. DOI 10.1177/1049909113479201. 초록 또는 출판물 일부. American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31(2), 132–138쪽.

59. Kerr C. W. et al. End-of-Life Dreams and Visions: A Longitudinal Study of Hospice Patients' Experiences. 2014. DOI 10.1089/jpm.2013.0371. Journal of Palliative Medicine 17(3) 296–303쪽.

60. Depner R. M. et al. Expanding the Understanding of Content of End-of-Life Dreams and Visions: A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alysis. 2020. DOI 10.1089/pmr.2020.0037. 방법과 주제 분석.

61. Dam A. K. Significance of End-of-life Dreams and Visions Experienced by the Terminally Ill in Rural and Urban India. 2016. DOI 10.4103/0973-1075.179600. 방법, 결과, 예시.

62. Barrett W. Death-Bed Visions: The Psychical Experiences of the Dying. 1926. 제2장.

63. Haraldsson E. Alleged Encounters with the Dead: The Importance of Violent Death in 337 New Cases. 2009. 107–110쪽; 사례 2180.

64. Shared Crossing Research Initiative. Comparing Near-Death Experiences and Shared Death Experiences: An Illuminating Contrast. 2022. DOI 10.17514/JNDS-2022-40-2-p77-94. 79–86쪽.

65. Tressoldi P. et al. Shared Death Experiences: A Multicultural Survey. 2023. DOI 10.1177/10499091221093270. 초록 또는 출판물 일부. 2022년 일월 26일 프리프린트의 방법.

66. Hinton D. E.; Peou S.; Joshi S.; Nickerson A.; Simon N. M. Normal Grief and Complicated Bereavement Among Traumatized Cambodian Refugees: Cultural Context and the Central Role of Dreams of the Dead. 2013. DOI 10.1007/s11013-013-9324-0. 문화적 맥락과 꿈 분석.

67. Black J. et al. Comforting Versus Distressing Dreams of the Deceased: Relations to Grief, Trauma, Attachment, Continuing Bonds, and Post-Dream Reactions. 2021. DOI 10.1177/0030222820903850. 부호화 방법.

68. Vicente R., Rizzuto M., Sarica C. et al. *Enhanced Interplay of Neuronal Coherence and Coupling in the Dying Human Brain.* 2022. DOI 10.3389/fnagi.2022.813531. Frontiers in Aging Neuroscience 14:813531; Results; Table 1; Discussion.

69. Xu G., Mihaylova T., Li D. et al. *Surge of neurophysiological coupling and connectivity of gamma oscillations in the dying human brain.* 2023. DOI 10.1073/pnas.2216268120. PNAS 120(19):e2216268120; Discussion.

70. Martial C., Piarulli A., Gosseries O. et al. *EEG signature of near-death-like experiences during syncope-induced periods of unresponsiveness.* 2024. DOI 10.1016/j.neuroimage.2024.120759. NeuroImage 298:120759; Results; Table 1.

71. Martial C., Carhart-Harris R., Timmermann C. *Within-subject comparison of near-death and psychedelic experiences: acute and enduring effects.* 2024. DOI 10.1093/nc/niae033. Neuroscience of Consciousness 2024(1):niae033; Tables 2–7.

72. Fritz P., Pichelin A., Ancion A., Alnagger N., Lejeune N., Ghuysen A., Gosseries O., Martial C. *Near-Death Experience During Emergency Ketamine Use: A Case Report.* 2025. DOI 10.1002/brb3.70939. Brain and Behavior 15(10):e70939; Case Report; Discussion.

73. Martial C., Fritz P., Gosseries O., Bonhomme V., Kondziella D., Nelson K., Lejeune N. *A neuroscientific model of near-death experiences.* 2025. DOI 10.1038/s41582-025-01072-z. Nature Reviews Neurology 21:297–311; NEPTUNE; Conclusions.

74. Moore L. E.; Greyson B. Characteristics of memories for near-death experiences. 2017. DOI 10.1016/j.concog.2017.03.003. 방법, 결과, 한계.

75. Schmidt B.; Böhmer J.; Schnürch M.; Koch T.; Michelmann S. Post-hypnotic suggestion improves confidence and speed of memory access with long-lasting effects. 2024. DOI 10.1016/j.actpsy.2024.104240. 방법 2.1–2.3; 결과 3.

76. Meyersburg C. A.; Bogdan R.; Gallo D. A.; McNally R. J. False Memory Propensity in People Reporting Recovered Memories of Past Lives. 2009. DOI 10.1037/a0015371.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8(2) 399–404쪽.

77. Wambach H. Life Before Life. 1979. 방법 절과 출생 선택에 관한 질문.

78. Wambach H.; Snow C. 편집. Past-Life Therapy: The Experiences of Twenty-Six Therapists. 1986. 죽음과 전이에 관한 절.

79. The Michael Newton Institute. Life Between Lives Hypnotherapy Training: Training Manual & Guidelines for LBL Facilitation. 2022. 18–29, 96, 99–100쪽.

80. Baker R. A. The Effect of Suggestion on Past-Lives Regression. 1982. DOI 10.1080/00029157.1982.10404067. 출판사 초록.

81. Weiss B. L. Many Lives, Many Masters. 1988. PDF 51 및 93–94쪽.

82. Morita T. et al. Nationwide Japanese Survey About Deathbed Visions: "My Deceased Mother Took Me to Heaven". 2016. DOI 10.1016/j.jpainsymman.2016.04.013. 원문의 초록.

83. Rashidi et al. Rebirth: Near-Death Experiences (NDE) in Iranian Muslim Patients: An Interpretive Phenomenological Study. 2025. DOI 10.22038/ebcj.2025.88508.3145. 제목, 방법, Rebirth 주제의 해석.

84. Koch C., Massimini M., Boly M., Tononi G. Neural correlates of consciousness: progress and problems. 2016. Nature Reviews Neuroscience 17:307–321. DOI 10.1038/nrn.2016.22. 신경 상관물의 정의와 메커니즘, 배경 조건, 표지의 구분. 출판사 초록과 Key Points.

저자와 프로젝트

이메일: info@brenev.com

저자 웹사이트: brenev.com

미라 웹사이트: mira.technology

다른 프로젝트: haraizen.tech

텔레그램: https://t.me/Eudgenee